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나간 것을 좇아가지 말라.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5월 1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55호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포교 화두 'Z세대' 조계종 본격 논의

포교원, 7월 4일 Z세대 포교 간담회 열어

SNS와 모바일을 활용하는 젊은 Z세대에 대한 포교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계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 4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문수실서 Z세대 포교 방안을 모색하는 포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본지 기획 보도(1151~1153호)** 이후 Z세대 포교의 필요성을 인지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직접 주최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 포교국장 노휴 스님 등 포교원 관계자들과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유권준 불광미디어 전략기획실장, 이준식 정토TV SNS팀장, 구희철 불교TV PD, 본지 노덕현 기자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간담회는 패널의 발언과 포교원 관계자들의 질의 등으로 이뤄졌다.

유튜브 속 '콘텐츠 확보' 관건

간담회서는 Z세대가 주로 애용하는 유튜브 속 종교 콘텐츠 현황이 논의됐다. 본지 노덕현 기자는 "현재 유튜브 속 이웃종교계는 일명 Z세대 포교를 위해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각 교회에서는 연예인 신도의 활동을 올리는가 하면 목사들의 설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는 "불교계 콘텐츠는 특정 유명 스님들의 법문에 국한돼 정량적인 콘테츠 수, 정성적인 조회수에서도 이웃종교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간담회 패널들은 유튜브 콘텐츠 확보를 위한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권준 불광미디어 실장은 "유튜브에서 자극적이고 소모적인 콘텐츠 외 정신적 위안을 주는 콘텐츠 수요도 많다"며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불교를 흥미롭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영 책임연구원은 "자기가 갔던 사찰과 사찰 설명을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면 입장료를 할인해주고 기념품을 주는 등 일종의 프로모션이 필요하다. 또 선도적으로 유튜브 포교를 해나갈 SNS전법단 구성 등 조직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대 공감이 Z포교 이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콘텐츠 생산에 있어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준길 정토TV SNS팀장은 "젊은 세대에 인기가 많은 법륜 스님 즉문즉설의 경우 시대 고민과 소통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법문도 불자층, 일반인층을 나눠 진행한다. 불교에 관심이 없는 젊은 층을 겨냥해 삽화나 만화 등을 활용해 흥미를 주는 등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재응 책임연구원은 "법륜, 혜민 스님 등 스타 스님으로 착시현상이 있다. 이들을 제외하면 브랜드파워가 있는 생산자들이 부족하다"며 "그 무엇보다 인재양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지 노덕현 기자도 "취재 과정에서 승가교육의 IT강습이 종무행정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준에 불과했다. 승가교육부터 신도교육까지 스마트폰 활용, 사진 및 영상촬영, 편집, SNS활용 등을

本紙 보도 후 필요 공감
포교원장 스님 직접 주최
'인력·콘텐츠 확보' 제안
"모임 구성해 지속 경청"

교육한다면 관심이 있는 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BJ절절'로 활동했던 구희철 불교TV PD는 불교계 인식 전환을 함께 요구했다. 구희철 PD는 "BJ로 활동해보니 제한이 많았다. 가령 젊은 세대들이 불상에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를 한다면 기성 불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간담회 후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다. 시대 급변에도 종단과 불교계의 더딘 변화 때문"이라며 "새로운 포교에 관심있는 불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포교원이 할 수 있는 일이다. Z세대 포교를 위한 모임을 지속 갖는 등 시대 흐름에 맞는 포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채식하고 기부하니, 心身이 가볍네!
매주 목요일에는 조계종 나눔캠페인 '채식데이 기부데이'를 실천하기 위한 불자들의 작은 실천이 이어진다. 7월 6일 서울 불광산사 채식당에서는 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사들이 몸을 가볍게 하는 채식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기부를 동시에 실천했다. 매주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포교사들이 캠페인 리플렛과 이날 기부금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결집대회 열어

순천 선암사 소유권 문제로 태고종과 소송 중인 조계종이 광주서 대규모의 '선암사 정상화 결집대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태고종은 "사법기관에 압력을 넣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7월 6일 광주 무각사서 '한국불교 교단사 확립과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호남 결집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집대회는 7월 7일 고등법원 심리에 하루 앞선 것으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 등 각 기관 대표와 호남지역 본말사 주지 등 600여 명이 운집했다.

조계종의 이 같은 대규모 결집대회는 지난해 7월 태고종이 조계종에 제기한 선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태고종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 측은 곧바로 항소했고, 현재 5대 법무법인으로 꼽히는 태평양과 화우가 소송을 맡았다.

이날 결집대회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선암사는 조선불교조계종 31본산의 하나이며, 1962년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제20교구본사로 자리한 소중한 도량이다. 종단의 정상적인 관리에 대해 일부 세력은 법과 종무의 근거도 없이 사찰을 부당하게 점유해 대항했다"면서 "태고종 선암사는 2011년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억지스런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선암사를 넘어 한국불교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계종 "태고종 불법점유"
VS
태고종 "억지주장 그만"

또한 조계종 호남지역 본말사 주지 일동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선암사를 불법점유한 태고종은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부정하는 역사왜곡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올바른 한국불교 교단사와 선암사 역사 홍포 △불교 자산과 선암사를 온전히 계승하기 위한 활동 등을 펼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선암사대책위 공동위원장 진화 스님(송광사 주지)은 "태고종 측이 대처승 청산을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종단 정화를 이끄신 동산 스님과 청담 스님 호적 자료를 무단으로 입수해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두 어른 스님 또한 대처였다는 태고종의 주장은 역사왜곡을 넘어 종단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태고종 선암사 주지 호명 스님은 조계종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스님은 "두 어른 스님 호적자료는 이미 우리 종단 내에 있는 것인데다 조계종은 '대처승은 중이 아니다'는 식의 자료를 법원에 수도 없이 제출했다"고 성토했다.

태고종 선암사 총무 승범 스님은 조계종 결집대회를 간접적 실력행사로 평가했다. 스님은 "소송 과정 중인 이 시기에 대규모 결집대회를 여는 것은 사법기관에 압력을 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영향력을 과시한다고 해서 사법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보기엔 억지 주장이고 타당치 않은 얘기들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현대불교 새 연재

도정 스님의 '대장부론' 시즌2



〈대장부론〉은 인도 학승 제바라가 지은 것으로 보시와 자비행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시인 도정 스님이 지난해 연재가 미완돼 다시 이어 연재한다. 시즌2로 돌아온 〈대장부론〉을 통해 보시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10면

도연 스님의 '靑春 사이다'



'카이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도연 스님이 '청춘' 그리고 '희망'을 말한다. 도연 스님은 본지 연재 '靑春 사이다'를 통해 대학생 및 직장인 등 20~30대 청춘들을 위한 격려와 치유의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다. B7면

정찬주의 '스님 이야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인 정찬주 작가가 법정 스님을 비롯한 당대 선지식 스님들을 만나고 듣고 경험했던 일화들을 소개한다. 문인과 선지식 스님들의 인연담을 통해 삶의 교훈과 가르침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차주부터 연재〉**



‘초대형 난개발’ 문제 조계종 자료집 제작

청와대 등 1000여 곳 배포

현대차 신사옥(GBC)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초대형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온 조계종이 자료집을 제작, 청와대 · 국회 · 서울시 등에 배포해 심각성을 알린다.

봉은사역사문화환경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원명 · 지현)는 “천년고찰 봉은사 주변 구 한전부지 일대에서 계획 중인 대규모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을 수록한 자료집을 배포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대책위는 자료집 제작 배경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이 국민 안전과 천년 문화유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자 자료집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집은 △천년고찰 봉은사의 중요성 △현대차 신사옥 GBC 개발 및 영동대로 개발과 봉은사 △대규모 개발의 문제점 △조작과 부실! 도시와 시민의 삶을 망치는 대규모 개발 이렇게는 안 됩니다 등 네 단락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자료집을 청와대 내각과 국무총리 등 각 장차관, 국회의원 전원, 문화재청 및 서울시 문화재위원, 각 교구본사주지스님과 종회의원, 주요사찰 주지 스님 등 1000여 곳에 배포해 대규모 개발의 문제점을 호소하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재정 정상화·승려교육 개혁 적임자는?

[진단]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과제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의 정견과 함께 선거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태고종의 시급한 과제를 진단해본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는 7월 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26대 총무원장 후보자 정견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견발표회에는 200여 대중이 참석해 종단 발전을 위한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재정

부동산 환수 등 대안 제시

의무금 납부 이행은 회피

구상권 청구 이견, 갈등요소

교육

종립대 사이버대학 개설

수행승 전액 지원 공통입장

재원 마련 계획 없어 아쉬움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후보 정견발표회에서는 각 후보들의 다양한 종단 현안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종단 재정 정상화’ 최우선 과제로

이날 토론에서는 태고종 재정 정상화에 대한 태고종도들의 관심이 몰렸다. 첫 공통질문도 40억원이 넘는 ‘종단 부채’를 당선 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기호 1번 능해 스님은 이 문제에 대해 ‘부동산 환수’를 제시했다. 능해 스님은 “수익사업 전개와 함께 종단 망실재산 환수위를 구성해 재산 환수로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다. 조계종의 경우 심원사가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을 환수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기호 2번 백운 스님은 대출기관과의 금액삭감 협상 및 이자동결을 제시했다. 스님은 “종도에게 부채를 전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반드시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기호 3번 지홍 스님은 부채청산위 구성 및 청문회 개최를 통한 구상권 행사를 제시했다. 지홍 스님은 “실질적인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채권회수를 통한 법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또 채권단과 협상을 통해 새로운 조건의 부채상환 대책 마련도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기호 4번 대은 스님은 중단기 상환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님은 “먼저 부채상환특위를 구성해 부채구조를 파악하겠다. 종단 사찰 운영실태 공개 및 각급 감사제도 정립으로 재정 투명화를 통해서도 재정확충을 이루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은 종단 부채 원인 제공자 처벌 및 구상권 청구에 이견을 보이는가 하면 종단 의무금 납부율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백운 스님과 지홍 스님이 찬성을, 능해 스님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종단 내부의 갈등 소지도 드러났다.

‘승려교육 개편’도 과제로 꼽혀

두 번째 과제로는 태고종 승려기초교육 개선이 꼽힌다. 기호 1번 능해 스님은 동방불교대의 내실있는 교육 및 사이버대 설립 등을 제시했으며, 기호 2번 백운 스님은 이 · 사판의 이원화 교육과 이판 교육을 담당하는 정수원 설립 및 교육 전액 지원 등을 약속했다.

기호 3번 지홍 스님은 동방불교대 학점은행제 도입 및 재가자를 위한 전법사교육원 확대개편, 교육도서 발간 등을 통한 교육제도 개선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기호 4번 대은 스님은 비구니 전법사 제도의 개선 및 정비를 통한 육부중 체계 확립, 법계고시 및 재교육 등을 제시했다.

각 후보들은 출가자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태고종 교육제도 개편에 입장을 같이 했다. 특히 수행승에 대한 종단 지원을 약속했지만 장학금 지원 등에 대한 재원 마련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정견발표회에서는 선암사 분규 해결 및 종단 위상 강화 등의 과제가 드러났다. 각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토론회는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묻는 자리로 진행됐다. 열띤 토론 끝에 사회자인 도완 스님은 총무원장 선출 후 2년 공약이행률 점검을 제안했다.

한편 태고종은 이날의 정견 발표회를 끝으로 7월 1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26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성 범계 엄중 처벌”

조계종 호법부 담화문 발표

최근 출가수행자들의 성 관련 범계행위가 언론매체에 보도됨에 따라 조계종 호법부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세영)는 7월 4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승가의 위의를 훼손하는 성 관련 범계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호법부는 “최근 일부 스님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범계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종단과 승가 전체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 출가수행자의 위의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범계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법과는 별개로 종헌종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스님은 일정기간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윤호섭 기자

군종교구장 혜자·선일 스님 복수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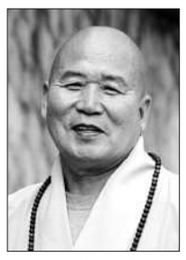
후보 단일화 못해… 교구장 이취임식 27일

조계종 제4대 군종교구장 후보로 혜자 스님과 선일 스님이 복수 추천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7월 5일 상임운영위원회를 열고, ‘제4대 군종교구장 추천의 건’을 다뤄 이 같이 결의했다. 회의서는 총무원장 추천 상임위원인 우봉 스님(중앙종회의원)이 108산사순례회 회주 혜자 스님을, 육군본부 군종실 대령 이정우 법사가 현 부교구장 선일 스님을 추천했다. 이에 상임위원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 총무원과 군종교구 간 추천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논의했다.

1시간의 논의 끝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위원들은 10분 정회 후 재논의에 들어가는 등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결국 상임위원회는 두 후보를 복수 추천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복수의 군종교구장 후보가 추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2대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을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서 상임위원회 표결은 있었으나 이를 거쳐 결국 단일화를 이뤄냈다. 이번 회의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군종교구 측 참석 인원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혜자 스님


선일 스님

상임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군종교구장, 국방부 원광사 부주지, 총무원 당연직 4인과 총무원장 추천 5인, 당연직 군승 4인과 군승 추천 6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총무원 측 인사인 가섭스님(포교부장)과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정범 스님(중앙종회의원) 등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결국 군종교구장 선출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결정에 달렸다. 이로써 총무원 측 추천 후보인 혜자 스님의 선출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 경우 ‘총무원이 추천하고 선출한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의 임기는 7월 24일이며, 교구장 이취임식은 27일 용산 국방컨벤션서 진행된다.

혜자 스님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7년 수계했다. 현재 제16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논산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에 1억 원을 쾌척하고, 군에 초코파이를 보시하는 등 군포교에 앞장섰다.

선일 스님은 운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6년 수계했다. 해군 군법사 출신으로 현재 한국청소년교화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마곡사·용주사 의혹… 책임 물을 것”

종단개혁연석회의,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촉구

2013년과 2015년 각각 불거진 마곡사 금품선거 및 용주사 범계행위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불교시민사회가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종단개혁연석회의)는 “마곡사 금권선거와 용주사 범계행위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종헌 · 종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이를 통해 수행종풍의 수호와 종단의 위의를 확립하라”고 7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했다.

이들은 불자인구가 300만 감소(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한 것도 교단 내 여러 범계행위가 큰 원인이라면서 변화를 통해서만 종도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종단 운영의 근본적 토대인 종헌 · 종법은 어떤 이유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무너진 종단의 위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과 종도들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말했다.

용주사 주지 스님을 둘러싼 범계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의혹 해소를 위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권고하고, 또한 현 용주사 주지 스님도 2015년 10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과학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마곡사 금권선거에 대해서도 법원이 2015년 5월 ‘종법에 의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지만 호법부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종헌 · 종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종단이 적폐청산과 종단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종도들과 함께 총무원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7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조계종 破僧 원인 '소유·선거·문중·계파'

조기룡 교수, 불교학연구회 하계 워크숍서 주장

근현대를 거쳐 오며, 조계종은 많은 발전을 이뤄왔지만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는 총무원장 선거부터 스님들의 청규 문제까지 다양하고, 이는 승단의 파열음을 가져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경제적 불평등과 선거제도, 문중 중심 문화, 정치 계파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사진〉는 6월 30일 양산 통도사 문수법당에서 '불교교단의 화합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불교학연구회 여름워크숍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국불교의 미래와 승가의 화합' 주제 논문에서 근현대 이후 한국불교는 종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규를 보였으며, 이를 '파승(破僧)'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 △선거제도 △문중 중심 문화 △정치 계파(종책모임)을 파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현재 승가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한 조 교수는 본래 옷과 음식 등 나눌 수 있는 물건은 현전승가(現前僧家)의 소유가 돼 분배되고, 토지와 정사와 같이 나눌 수 없는 물건은 사방승가(四方僧家)의 소유가 됐음을 되짚었다.

이에 조 교수는 "이 같은 승가의 소유 원칙이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며 "시주물은 욕망과 집착의 대상이 됐고, 평등해야 하는 승가에서는 불평등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불평등이 승가 내부 의식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면, 선거와 문중·계파는 종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갈등의 요인이라는 것이다.

조계종은 현재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민주화'를 근거로 선거제를 도입했다. 선거제는 조계종의 수장인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등에 적용된다. 행정과 입법의 대표자를 모두 선거로 뽑고 있다. 조 교수는 "선거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은 다수결의 원칙에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은 가능하지만 소수 의견이 배제된다"고 파승의 원인을 분석했다.

'문중 중심 문화'와 '정치 계파' 문제는 선거를 기반해 구성된 종단 기구에 '문중·계파 안배'의 인사를 진행하는 데서 기인된다. 조 교수는 "계파와 문중은 모두 선거를 매개로 한 승가 갈등과 분열의 주역"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계파와 문중 간 연대를 통해 종권을 창출하고 승자가 그 세속적 성과물을 점유하는 조계종의 정치 체계는 승가를 파승으로 이끄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승가도 '빈익빈 부익부' 존재
승자 독식 선거제 불화 양산
문중·계파, 종권 생산 기제로
종권 분산, 선거 등 폐해 해법
'一佛弟子' 승단 구조 고민해야

그렇다면, 파승이 아닌 화합 승가로 나아가는 방안은 무엇일까. 조 교수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일분(一分)'의 승가 의식 변화와 종단 권력의 분산, '일불제자(一佛弟子)' 승단 구조 확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정부가 법령을 아무리 제정해도 범죄행위는 근절되지 않듯이 종법을 아무리 철저히 제정해도 범계행위의 근본적 해소는 되지 않는다"며 "스님 스스로 물질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 완벽한 분배도 소유물에 대한 방하착도 어려운 일이다. 스님 스스로 자기 몫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권 분산에 대해서는 총무원장, 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의 이권을 없애고 추대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직선제냐 간선제냐와 같은 선거 제도의 선택은 근본 해결 방안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 승직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라며 "권력 분산의 궁극점은 신도에게도 종단 운영관리에 대한 주요 권한을 부여하는 출재가 상호간 협조적·견제적 시스템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자랑 동국대 교수는 '화합이란 무엇인가'를, 통도사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은 '교단의 화합 실현에 있어 지도자의 역할' 등이 발표됐다.

덕문 스님은 "교단의 화합 실현을 위해서 지도자는 여러 가지 갈마를 원활하고 여법하게 진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 역량을 갖춘 스님은 계율에 밝은 스님이란 의미"라며 "한국불교의 현실은 계율 관련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며 시스템 운영에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신성민·하성미 기자

자승 스님 임기 8년, 시민들이 功過 기록

구글시트로 누구나 기술… "불교계 성찰"

불교시민사회계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임기 8년 공과(功過) 기록에 나선다. 다만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서의 작업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해 특정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 서술이 얼마큼 객관적으로 이뤄지느냐가 성공 열쇠일 것으로 보인다.

'자승 종권 8년 백서 편집위원회'는 7월 5일 서울 인사동 관훈갤러리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 자백(자승종권 8년 백서)〉 발간 계획과 동참자 모집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 등 그동안 조계종단 집행부에 여러 문제제기를 해온 불교시민사회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임지연 상임대표는 "더 청정한 승단을 만들고, 어떤 지도자가 선출돼야 하는지 알리는 희망의 표현이 백서 제작으로 이어졌다"고 백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백서 내용은 인터넷 이용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구글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한다. 지난해 말 정치 스타트업 '와글'이 구글시트를 통해 시민들과 만든 '박근혜 퀸메이커 인명사전'을 참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형식을 차용한 구글시트는 글은 물론 각종 기사 및 동영상 링크 등을 기술할 수 있다. 백서는 △일시 △사건명 △주요 관련자와 당시 직책 △경과일지 △쟁점사항 △결과와 영향 △주요 언론보도 등으로 분류했다.

사업을 제안한 김경호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더욱 구체적인 백서가 만들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10월 총무원장 선거 전에 서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은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부정적 서술과 배치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충분히 타당성 있다면 병기할 생각이다. 다만 열린 공간이기에 자신과 다른 견해를 삭제하거나 왜곡하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010-5381-3309(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수행도량 뒤편에 불법 펜션 단지가?

총지종 괴산 중원사 인근 부지 용도변경 논란 확산

충북 괴산의 한 사찰 인근에 불법 펜션택지가 조성된 데 이어 이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진입로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인선)은 최근 "종단 수행도량인 중원사 인근 토지가 불법적으로 택지개발됐다"고 주장했다.

총지종이 주장하는 불법택지는 중원사 뒤편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4번지와 18번지로, 2년간 관개공사 및 축대조성사업이 진행됐다. 총지종은 농지의 경우 군청의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지만 인허가 없이 개발됐다고 주장했다.

괴산군청 농업정책실 농업정책팀 담당자는 "이평리 359-14번지와 18번지에서의 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없었다. 현재 골재 야적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총지종 중원사 인근 불법으로 조성된 택지 전경. 사진에 표시된 부분이 중원사다.

문제는 원상복구 명령이 골재 야적에 한정된 것이란 점이다. 해당 부처는 관개공사 및 축대조성이 되더라도 이 택지에 일부 경작이 이뤄지고 있음을 들어 택지조성 원상복구 명령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인근지역에서는 이 택지에 펜션단지가 조성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수도 공사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총지종 측은 "지주가 택지를 개발한 후 시설을 지으면 결국 군에서 민원을 우려,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괴산군청이 예산을 들여 불법택지 접근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한 사실도 함께 드러나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 불법택지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농로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예산이 증액됐을 뿐만 아니라 불법 개발 사실이 드러나고서도 도로개설 부처가 토지관련 부처가 아닌 점을 들어 이를 방치한 것이다. 괴산군청 안전건설과는 2016년 5월 이 불법토지까지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농로 공사를 추진했으며, 3개월 후인 2016년 8월 같은 구간에 대한 민원을 명목으로 예산을 4500만원까지 늘려 총 300미터까지 농로를 확장했다.

총지종 측은 "농로 명목이지만 사실상 불법 조성된 택지 조성지로의 진입로"라며 "농로 개설을 위한 현장조사에서 이미 하수도 관개공사 등 불법적인 개발현황을 파악했지만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 하에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중원사 관리인 윤한희 각자는 "현재 택지 조성지는 사찰 진입로를 통해 갈 수밖에 없다"며 "위락시설이 들어서면 수행환경이 침해받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군이 의혹을 해소하고 원상복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불타고 있는 줌머인들의 가옥. 사진제공=재한줌머인연대

"소수민족 줌머인에 폭력 중단하라"

마하이주민협, 6월 30일 성명 발표

전 세계적으로 종교갈등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에서 불교도 소수민족 줌머인들에 대한 방화 및 폭력 행위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불교계에서도 줌머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중단 및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재한줌머인연대는 7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줌머인 탄압행위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불교계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들은 "방글라데시 군과 무슬림들은 2명의 줌머인들이 나욘(피해 무슬림)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씌웠지만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는 단지 군과 경찰의 비호 아래 무슬림들이 저지른 집단 공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한줌머인연대는 국제사회와 한국불교계에 대해 피해 줌머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방글라데시 총리에 공식 항의 서한 전송 △줌머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 현지 조사 등을 요청했다.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도 6월 30일 "종교와 민족이 다르다는 것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폭력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치타공 산악지대의 폭력행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이어 방글라데시 정부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피해 방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아름 기자

불기2561
단기4350년
만사형통 기원을 바란다면
기(氣)에너지가 넘쳐야 만사형통이 찾아옵니다!

옴 마니 반메 훔 호신불 달마시계

옴은 가난과 윤회의 고난에서 벗어나 안정의 상태를 가진다. 마니는 보석을 의미한다. 반메는 연꽃 지혜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옴마니반메훔은 지혜와 방편이다. 연꽃 속의 보석이다.

부처님의 대비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일어난다.
이 시계를 착용한 자는 모든 팔난이 소멸될 것이다.

부처님의 의미는, 첫째는 지대한 관심과 둘째는 확신과 의욕이며 셋째는 성취의 깨달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부처님과 합일되면 자신과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옴 마니 반메 훔은 하늘과 인간 축생 아귀 모든 지옥문을 닫는다.

기(氣) 심령연구가 정음스님
www.kgf21.kr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불자님들께 성불하시라고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제조사 : 오리엔트)

- IPG 24K공법으로 완성된 케이스
- 세미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 최상의 금도금 24각 커팅 베젤 스타일
- 최고급 사각보석 12개 문자판에 식입
- 최고급 JAPAN 무브먼트
- 3기압방수, 3ATM
- 최고급 보석 용두
- 문자판 내부에 부처님상 양각화
- 스테인레스 스틸 메탈밴드

낱개당 판매가 138,000원
남녀세트 판매가 238,000원
(접수 불자님 축원기도 해 드립니다)



시계 점안식

호신불 달마 시계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사업번창을 원하시는 분
- 가정에 평안을 발원하시는 분
- 육신에 병고가 찾아와 기운이 없으신 분
- 마음이 어지러워 꿈자리가 뒤숭숭 하신 분
- 수험생 자녀가 계신 분

사단법인 한국불교 전통문화 포교회
등록번호 : 017-05-01
추천 :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문화관광부 법인설립허가 제 6 호

상담문의 1588-4164
입금계좌 (농협) 351-0949-7000-63 예금주: 불교조계종관음사

일 주 문



대구BBS 운영위원장에

향적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은 7월 4일 열린 대구BBS 운영위원회의서 제6대 운영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어린이 여름 숲속학교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7월 29일 오후 2시 봉선사 경내서 '어린이 여름 숲속 학교'를 개최한다.



자원봉사자 템플스테이

성우 김제 금산사 주지 스님은 7월 8~9일 경내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금산사 자원봉사자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사랑해 명상캠프

성행 (사)동련 이사장 스님은 7월 21~23일 장성 백양사서 초중고교생 대상 '나를 찾는 선, 사랑해 명상캠프'를 개최한다.



2017 행복바라미 워크숍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7월 15~16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서 '2017 행복바라미 워크숍'을 개최한다.



대불청 여름캠프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은 7월 20~26일 전북 진안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서 '대불청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조계종 직할교구 일부사찰 주지 인사

호국지장사 도호 · 약수사 도성 · 호압사 우봉 스님



도호 스님



도성 스님



우봉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직할교구 일부 사찰 주지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호국지장사 주지 도호 스님, 약수사 주지 도성 스님,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이 임명됐다.

도호 스님은 혜성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수계하고, 대원사 주지를 역임했다.

도성 스님은 혜성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하고, 총무원 재무국장, 총무원 사서국장,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지장선원 주지, 불교상담개발원장 등을 역임했다.

우봉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1994년 수계하고, 총무원 감사국장, 영랑사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교육관 확대로 '불교르네상스'를"

Interview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

5년 전 19평 규모 교육관 마련
오는 10월 전세계약 만료 앞두고
재계약 및 확대 위한 모연 행사
5억 조성 목표로 문화제Ⅱ 개최

"여성 불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펼칠 수 있도록 교육관 마련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보시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이 불교여성 인재불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교육관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5억 원 목표 기금 모연을 위한 '불교르네상스의 꿈Ⅱ' 문화제를 개최하는 것.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사진〉은 7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5년 전 불교여성을 위한 교육장을 전세로 마련해 1,00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재계약을 앞두고 교육장을 확대 마련하고자 모연 행사인 문화제를 개최한다"며 "1700년을 이끌어온 한국여성불자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11년 교육관 마련을 위한 문화제 '불교르네상스의 꿈'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600여명의 참여로 7억여 원의 기금이 모연돼 서울 견지동에 약 19평 규모 교육관을 마련했다. 이번 문화제는 교육관의 재계약을 위한 모연 행사로, 오는 10월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노 원장은 교육관 확대 마련이 불교여성 인재불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 교육 · 수행 · 봉사활동 · 창업 지원 등을 통합 및 활성화해 여성 불자들의 마음을 총결집할 수 있다"면서 "교육관 확대 마련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인의 마음을 밝힐 수 있는 심도 있는 불교 콘텐츠를 생산, 불교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노 원장은 대만불교를 선례로 들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여성 불자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만에서는 우리와 같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며 더욱 적극적인 사회 교육활동을 펼칩니다. 국제구호, 문제아동교육, 불교신자 교육 등이 매우 활발합니다. 한국불교도 기복불교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불교로 나아가기 위해서 불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불교르네상스의 꿈Ⅱ' 문화제는 10월 12일 오후 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대고와 모듬북으로 구성된 타악 퍼포먼스로 시작해 동서양 악기로 혼합된 25오케스트라 서곡, 황병기의 '침향무' 가야금 독주, 탤런트 강부자 및 가수 웅산의 공연, 남상일 · 박애리의 국악공연 등이 펼쳐진다. 1인 10만원.

불교여성개발원은 본 문화제 공연에 앞서 7월 10일 오후 4시 입재식을 거행한다. 이날 자리서 교육관 마련 기금을 위한 월 후원 약정 신청을 받고, 문화제 당일 회향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교 대안공동체 설립 꿈꿉니다"

대안 공동체 세미나 여는 무위 스님



"현대사회에는 여러 병폐가 많습니다. 생활이 병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안 공동체 설립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선지식도량(가칭) 위원장 무위 스님(사진 · 대구 용연사 주지)은 대안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을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불교가 종교로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대중과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스님은 불교 인적 네트워크와 사회 기여 프로그램 · 문화사업 등을 진행하는 대안 공동체인 (사)선지식도량 설립을 준비 중이다.

"선지식의 의미는 외호, 동행, 스승의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사)선지식도량은 서로 배우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한 논의부터 세계 지성과의 교류, 자비행, 수행과 성찰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설립이 가시화될 대안 공동체를 위한 첫 사업은 현 시대의 대안 공동체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세미나이다. (사)선지식도량은 오는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1세기 대안 공동체의 실험과 현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내년 완공 선센터에 부처님을"

만오 스님, 동국대 경주캠에 3억원 전달

기부와 자비행으로 잘 알려진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 스님이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선센터 건립기금을 기부했다.

만오 스님은 6월 3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센터건립기금 2억 원 · 관음장학회장학금 1억 원, 총 3억 원을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에게 전달했다.

만오 스님은 2012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비구니 학인 스님들의 수행관인 사라림 건립을 후원하며 동국대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지속적으로 자비행을 펼쳤다. 2015년에는 관음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기금 2억 원을 기탁, 매 학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2016년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센터의 건립 기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현금 6억 원을 선센터 건립 기금으로 기부했고, 이 기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선센터 건립이 시작됐다.

신성민 기자

올림픽 위한 종교인 역할 모색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대표회장 퇴우 정념) 제23차 정기회의가 7월 4일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대표회장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과 공동회장 김운회 주교 · 서석근 목사 등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종교인 역할과 점검에 대해 토론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 존중, 가정 회복 캠페인을 제안했다.

박아름 기자

청림회, 사찰도서관 문 열어



대전비구니 청림회는 7월 3일 청림회문화회관서 불서 읽기 문화활동과 불교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글사랑' 사찰도서관 현판기증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관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의 후원한 현판식에 따라 청림회관 도서관은 제16호로 선정됐다.

청림회는 대전 보문사로 초입에 위치한 신식건물의 문화회관이다. 조계종지와 종풍을 대전지역 불자 및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힘쓰고 있다.

생명나눔, 이소정 씨에 지원금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6월 선정환자 이소정 씨에게 치료비 지원금을 7월 3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광은 홍보대사와 이소정(가명 · 6) 양 및 보호자가 참석했다.

이소정 양은 출산 당시 난산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중국에서 태어난 탓에 치료를 바로 받지 못하며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에 월 소식지 '행복한 빈손'을 통해 모금된 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했다.

박아름 기자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회원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 본회 설립동기에 대하여 종단스님 및 문화예술단체 지도자님들께 널리 알리고 회원을 모시고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스님 및 지도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설립동기 : 많은 종교지도자님들께서 몸담고 계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임원과 회원들 간에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었으면 ●법인설립자 및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연합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각종행사 등을 하기 전 회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면 ●회비 및 후원금을 회원들의 현실에 맞게 정했으면 ●행사일정을 행사 15~20일전에 미리 연락해 주었으면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상생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덕망 있는 좋은 분들 만나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소생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오랜 기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기필코 해결하여 회원님들이 신뢰하고 덕망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 종단 및 문화예술 단체등록, 종단행정, 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사암등록,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단체명의 차량등록증 등 모든 행정에 대하여 지원도 해드리고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립니다. (문의 : 사무총장 산수스님 H·P : 010-3300-0408)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7월 1일 'DMZ열차 타고 통일로, 달려라 평화열차!' 행사를 개최했다. DMZ트레인이 서울역을 출발하자 참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평화통일불교협회 향산 스님(사진 오른쪽)이 철원 평화전망대에서 북녘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통일바루 회원들이 백마고지역 도착 후 DMZ트레인 경원선 앞에서 밝게 웃고 있다.

통일 불자들, DMZ에 희망 씨앗을 심다

[현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 'DMZ열차 타고 통일로, 달려라 평화열차!'

여기저기 끊긴 다리들, 정돈되지 않은 숲길을 여러 번 지나치면 나타나는 백마고지역.

백마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최대 전략적 요충지로서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10일간 전투에서 이 산의 주인이 무려 24번이나 바뀌었다고 한다. 그만큼 참혹한 전쟁터였던 이곳에 현재는 'DMZ트레인 경원선'의 종착역이 위치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분단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역사적 아픔이 서려있는 이곳에 통일바루 · 평화통일불교협회 · 조계사 청년회 등 100여명의 '통일 불자'들이 발을 내딛었다. 기대와 좌절이 반복되는 남북정세에도 굴하지 않고, 통일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꿋꿋하고도 의미 있는 걸음이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는 7월 1일 'DMZ열차 타고 통일로, 달려라 평화열차!'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DMZ트레인을 타고 백마고지역에 도착, 비무장 지대 및 민통선 지역을 둘러봤다.

첫 번째 행선지는 2007년 11월 개관한 '철원 평화전망대'였다.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 지역, 북한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 땅을 눈으로 볼 수 있다니 참가자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다.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에 오르자 철원평야와 강산 저수지가 시야에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곳곳을 누비며 북한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 애를 썼다. 하지만 보안상 사진 한 장으로도 남길 수 없는 현실에 또 한 번 안타까워야만 했다.

그 한편에서 북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스님이 있었다. 한 마디 말도 없이 그저 바라보다 옆에 서 있던 할아버지에게 "저~쪽이 북한이지요"라고 말하며 괜스레 다시 한 번 북한을 향해 손짓한다.

통일바루 · 평불협 등 100명 참석
DMZ경원선 타고 백마고지역 도착
철원 평화전망대 · 노동당사 순례
통일 필요성 다시 한 번 환기시켜

평화통일불교협회 향산 스님은 북한과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민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통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통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야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북한과 남한이 통일돼야하는 것도 여러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 국토는 통일이 안 되면 앞날이 없어요."

눈으로 직접 본 후 통일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 짙어진 것일까. 참가자들은 하행하는 모노레일 안에서 다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 권홍섭(86) 할아버지가 선창하자 모두가 약속한 듯 합창을 시작했다. 전망대와 멀어질수록 노랫소리는 더욱 커지며 안타까움은 배가 됐다.

권홍섭 · 권혁채(86) 할아버지는 "같은 민족으로서 부둥켜안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바라봐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빨리 통일이 돼서 다함께 잘 사는 한민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구이자 종친 사이라는 두 할아버지는 "통일되기 전에 절대 죽지 말자"며 손을 꼭 붙잡고 약속한 후에야 평화전망대를 뒤로 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월정역으로 향했다. 월정역은 서울과 원산을 잇던 경원선 철마가 잠시 쉬어가던 곳이다. 역의 바로 맞은편에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간판 아래 6.25전쟁 당시 이 역에서 마지막 기적을 울렸던 객차의 잔해와 유엔군 폭격으로 부서진 인민군 화물열차가 앙상한 골격을 드러낸 채 누워있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철로를 따라 걷고, 녹슨 객차를 만져보며 경원선이 다시 원산까지 이어지는 날을 위해 기도했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자녀들의 손을 잡고 참가한 부모님들이 많았다. 분단 현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조계사 청년회 임광수(42) · 이진현(38) 부부는 "우리 또는 아이들 세대에 통일이 될 거라 생각한다. 그 전에 아이들이 분단 현실을 올바로 알아야 통일 시대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참가했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함께 일정을 마무리한 임성우(12 · 청량초) 학생도 "북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됐다. 멀리서나마 북한의 모습을 보니 좋은 자연환경을 갖췄을 것 같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직접 보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이날 행사는 철원역 및 철원 구시가지, 노동당사를 거쳐 백마고지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비록 철마는 끝까지 달리지 못했지만 눈 감는 날까지 통일을 서원하겠다는 어르신들에게서, 또 북한이 한 가족임을 알게 됐다는 아이들에게서 미래 한반도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자녀에게 갈등 · 이념 물려주시겠습니까?"

Interview

민추본 사무총장 진효 스님



"통일은 민족의 염원인 만큼 불교계 내에도 통일을 기다리는 여러 불자들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통일염원들을 한 곳에 모아 더 큰 발원으로 일으키기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진효 스님〈사진〉은 이번 행사가 참가자 뿐 아니라 불교계 및 일반사회에 통일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수의, 또 불교계 내부의 행사지만 작은 걸음이 모여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길 기대한다는 뜻이다.

또한 진효 스님은 가족 단위 참석자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며, 어린 아이들에 대한 통일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에게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을 가르쳐 주려는 부모들의 성숙된 모습이 매우 보기 좋습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 시대에 살았지만 아이들에게는 갈등과 이념을 물려줘선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박아름 기자

불교국가 연방승가회 회장단 5~7개국 승정 증명법사 참석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5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의식

부처님 당시의 상좌부 출가의식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에서는 400여 군소종단을 불문 어느종단 스님이든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먹물옷 다시금 여미며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승적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정부의 종교성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법왕이신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을 대화상을 모시고 구족계를 내려주실 三師 7尊證 大元老 큰스님들과 500여 증명 존증아사리들의 독경속에 상좌부 불교승려로 거듭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법석, 국제불교 금강계단을 마련했습니다.

구족계 계첩을 미얀마 연방승가회에서 정식 수여함

- 일 시 : 10월 11일 출발 6박 7일 일정
- 신청기간 : 7월 31일까지
- 참가서류 : 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여권
- 참가신청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우. 03158
- 장 소 : 미얀마정부 종교성내 양곤승가대학 5일간 입교함
- 문 의 : 011-229-6061

■ 주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염불정진 20년, 마음은 이미 극락정토

전국염불만일회 입재 20년 맞아 7월 28일 정진대회

염불정진대회에 참여한 불자들이 아미타불 칭명염불을 신명나게 하고 있다.

〈아미타경〉에 제시된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를 둔 염불, 아미타불을 지성으로 부르면 극락왕생한다는 염불수행은 단순하지만, 쉽게 측량하기 어려운 오묘함이 있다. 지극한 신심만으로도 성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불수행은 불교 초심자부터 스님들까지 필수적인 수행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합시다'를 슬로건으로 염불정진에 매진해 온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의 수행 20년은 그런 의미에서 불교 수행 대중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전국염불만일회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밀양 표충사에서 20년차 염불정진대회를 연다. 사명대사 호국성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300여 명의 전국 염불행자들이 참여해 하루에 1만번 씩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염불할 예정이다. 여기에 동산반야회 법주 법산 스님, 안동일 염불만일회 회장의 법문 및 특강이 마련돼 있으며 다도 퍼포먼스, 바라춤, 한국춤, 천수북, 사물 영남농악, 오카리나연주 등도 진행돼 염불행자들의 흥을 돋운다.

국난극복 · 교단쇄신 결사 대회
매일 1만 번 칭명염불 벌여
100일 단위 철야, 원력 지속

그동안 전국염불만일회는 전국 사찰 중 염불성지를 중심으로 염불운동을 진행해 왔다. 1998년 고성 건봉사에서 첫 염불정진대회가 실시됐으며 천봉산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달마산 미황사, 팔공산 은해사, 한라산 법화사, 덕숭산 수덕사, 토함산 불국사, 백담사 만해마을, 여엽산 연화사, 오대산 월정사, 치악산 구룡사와 자연학습원, 금오산 향천사, 양산 통도사 등에서도 대회가 열렸다.

2025년까지의 회향은 멀리 남아있지만 전국염불만일회 소속 염불행자들의 원력은 변함이 없다. 정진기간 동안 100일 단위로 동산불교회관 3층 법당에서 무량광 · 무량수 나무아미타불 철야정진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원력은 역사적으로 국난의 시기나 교단의 부패가 심할 때 결성돼 새 바람을 불어넣는 신앙공동체가 됐다. 신라 경덕왕 17년인 758년, 발징 스님이 고성 건봉사에서 염불만일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1908년 건봉사 염불만일정진에 이르기까지 벽오, 만화, 금암 스님 등이 고통 받는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해왔다.

전국염불만일회는 "염불만일결사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만 전통적으로 실천되어 왔고, 현재에도 살아있는 실천적인 정토신앙이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함께 북을 치고 염불을 하는 그 즐거운 순간이 바로 정토"라고 강조했다.

정진대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장은 "독경, 사경 등 다양한 수행이 있지만, 염불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가장 쉬우면서도 좋은 수행"이라며 "매 순간 마음을 깨끗이 하는 계기를 함께 만들자"고 동참을 당부했다. (02)732-1206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비로자나국제선원, 새 도량서 포교 날개짓

7월 14일 이전 개원 및 점안 법회… 증명 혜총 스님



재한 외국인들에게 불교를 전법해 온 비로자나국제선원이 새로운 포교 역량을 펼칠 도량을 마련해 이전한다.

조계종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 · 사진)은 오는 7월 14일 새로운 도량의 시작을 알리는 이전 개원 및 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한다. 법회 증명은 조계종 前 포교원장이자 대각회 이사장인 혜총 스님이 맡는다.

'청정한 자성불의 회복과 불교의 세계화'를 이념으로 2006년 10월 설립된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재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교 교리와 참선을 배울 수 있는 서울서 몇 곳 안되는 도심 사찰이었다. 또한, 어린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교 영어 교육과 방학 시즌 불교 영어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해 불교 세계화와 계층 포교 주역으로 위치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환경은 열악했다. 그간 상가 건물을 임대해 포교활동을 펼쳐왔으나 사격이 확대돼 주석하는 스님부터 신도까지 불편함을 겪어왔다.

새로 이전한 도량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지하 1층은 지역문화센터와 어린이 법회 공간으로 활용된다. 선무도 강좌와 어린이 담마 스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상 1층은 갤러리와 카페 까루나가 들어선다. 갤러리는 불자 예술인 협동조합 '주인공' 작가들의 전시 공간이 될 전망이다. 2층은 사무실과 공양간, 3층은 법당, 4층은 요사채로 활용된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은 "새로운 도량에서 업그레이드된 수행 · 포교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며 "불교 교리와 수행의 생활 속 실천을 배우는 '마음행복학교'를 준비 중이다. 1년간의 커리큘럼을 이수하면 인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이재명 시장, '기본소득 필요성'을 말하다

7월 1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54회 미래복지포럼서

'청년배당'을 통해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의 정책을 현실화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 도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선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제54회 미래복지포럼 '기본소득, 복지제도의 새로운 대안인가'를 7월 18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제자로 나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또한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각각 '기본소득의 핵심 쟁점'과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점 시사점'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예견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은 사전 신청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02)723-5102 박아름 기자

"軍 전법에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조계종 신임군승 6월 30일 19명 임관



비구니 군승 자원 스님(사진 오른쪽 첫번째)을 비롯한 군승 대표들이 남성사에서 열린 고불식에서 전법을 서원하고 있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6월 30일 충북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교장 김갑수)에서 2017년 신임군승 임관식 및 고불식을 봉행했다.

올해 신임군승은 총 19명으로 4월 26일 충북 괴산 학생군사학교에 입대해 6주간 군사교육과 충북 영동 종합행정학교에서 3주간 군종장교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올해 임관 군승 중에는 비구니 군승이 공군에도 파송됐다. 올해 파송 군승은 자원 스님(동국대 졸업)으로 군종교구는 2014년 창군 최초로 명법 스님을 비구니 군승으로 파송했으며, 2015년 균재 스님, 2016년 혜능 스님을 파송한 바 있다.

올해 임관 군승 중에는 육군 비중이 높았다. 육군 파송 군승은 총 12명으로 △정인 임재현 군승(27사 78연대) △보산 우성현 군승(28사단 82연대) △현법 김현욱 군승(20사단 62여단) △향담 공성현 군승(7사단 3연대) △순기 김도현 군승(수기사 26여단) △해인 석광현 군승(26사 73여단) △야허 박민형 군승(11사단 9여단) △수종 박영호 군승(5사단 35연대) △정행 정준영 군승(30사단 92여단) △청강 유대경 군승(12사단 52연대) △달원 조은석 군승(3사단 18연대) △순철 서정대 군승(23사단 58연대) 등이다.

해군은 3명으로 △상월 박태환 군승(제주기지 전대) △자홍 정수함 군승(해병 6여단) △지명 손상민 군승(해병대 교육훈련단) 등이다.

공군은 4명으로 △구산 이경태 군승(2여단) △자원 홍순영 군승(3훈비) △석림 박민구 군승(38전대) △혜림 이민우 군승(8전비) 등이다.

임관식 후 종합행정학교 법당 남성사에서 열린 고불식서 임관군승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수행자의 본 분사를 잃지 않을 것이며, 장병들의 곁에 항상 함께하겠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전법의 의지를 맹세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장도에 오른 여러분들을 축하한다"며 "군승활동이 윤활유와 비타민의 역할로 부처님 품안에서 따뜻한 병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전 후방 임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임관한 군종장교는 군승 19명을 비롯해 군목사 37명, 군신부 19명으로 총 75명이 임관했다. 노덕현 기자

행복공장, 8월 20~27일 무문관 참선 진행

1.5평에 독방에 나를 가두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참선 수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행복공장(이사장 권용석)은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홍천수련원서 7박 8일간 '폐관 참선 프로그램-무문관(無門關)'을 연다.

무문관 프로그램의 지도는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맡는다. 무문관의 전체적인 일정은 1.5평의 독방에 7박 8일 동안 머물며 혼자서 참선 수행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초심자들을 위해 무문 혜개 스님의 공안 해설집 〈무문관〉에 대한 금강 스님의 방송 강의와 수행 문답 등도 함께 진행된다. 강의와 수행문답을 참석하지 않을 경우 오로지 정진도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인원은 25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참가비는 50만 원이다. (02)6084-1016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획기적 시도!

고쳐 풀이한
법성게

그 공능功能과 쓰임새

법성게의 게송 순서를 바꾸고,
한자를 재배치한 획기적 저서!

화엄의 사상을 210자로 농축한 〈법성게〉의 본뜻을 확연히 드러내는 새로운 접근!

학송 지음/신국판/무선/320쪽/15,000원

서양의 심리학과 붓다의 가르침은 양립할 수 있는가?

붓다와 프로이트

무아의 심리학



불교와 심리학의 융합을 위한 초석!

오래되고 중요한 과제인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무아의 문제에 대한 불교와 서구심리학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마크 엡스타인 지음/윤희조 · 윤현주 옮김
국판/양장/336쪽/15,000원

미국불교

역사 및 주요 종파와 전통에 대한 성찰
BUDDHISM IN AMERICA

리처드 휴지스 시거 지음/장은화 옮김
신국판/590쪽/30,000원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는 미국불교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미국 불교의 개략적인 역사, 주요 불교종파와 전통, 그리고 미국 불교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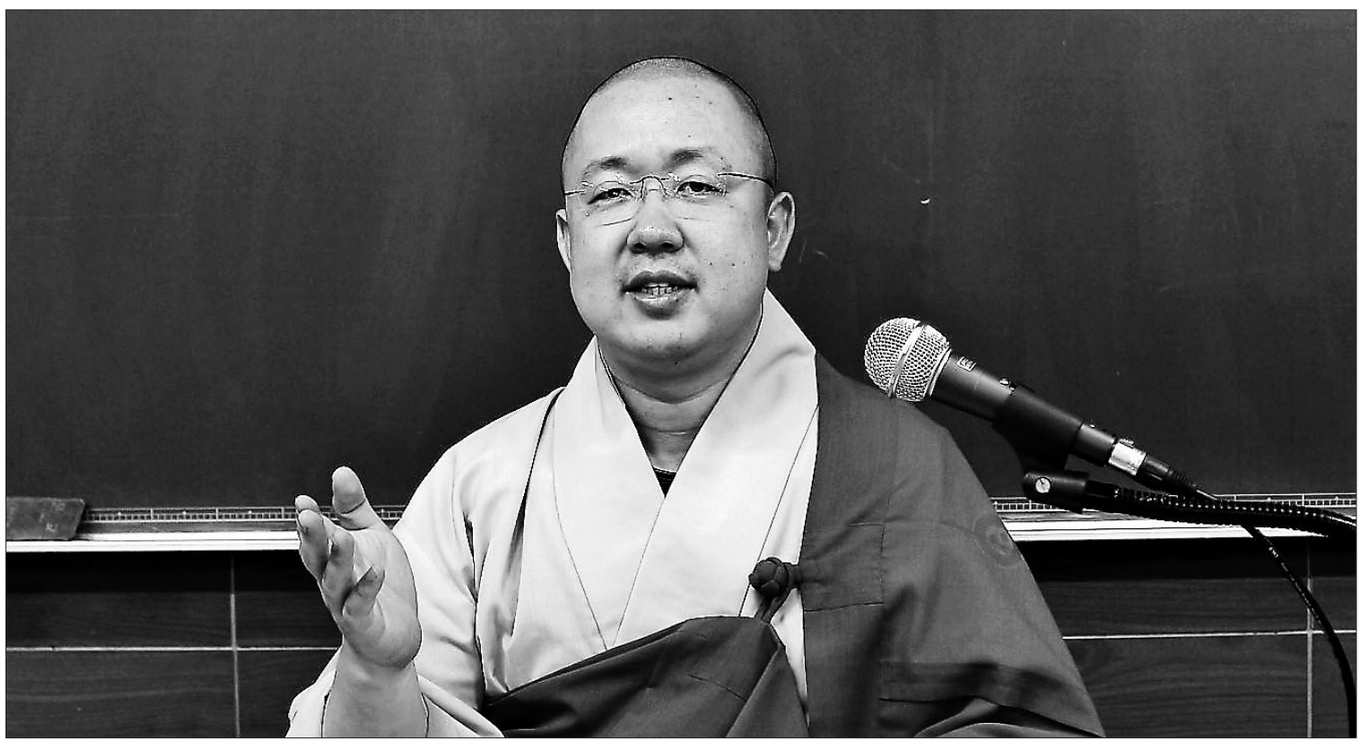
"맑은 自性에 때가 끼면 차별 낳는다"

전북불교회관 일요법회… 주제: 삶의 13계명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총무국장 구담 스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지만 그 모습은 제각기 다르다. 그리고 그 수많은 모습 중 어떤 것은 본받을 만하고, 다른 어떤 것은 비난당하기도 한다. 이는 결과물에도 차이가 생겨 바른 삶과 그렇지 못한 삶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총무국장 구담 스님은 6월 25일 김제 금산사 직할포교당 전북불교회관 일요가족법회서 틱낫한 스님의 〈붓다〉 내용을 인용해 '천천히 가는 삶의 13계명'을 설명했다. 스님은 불자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들을 나열하며 "인간의 자성은 차별이 없지만 습관으로 인해 남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며 "자비심을 내고 세상 존재를 끌어안을 때 내 삶이 바뀐다"고 조언했다.

정리=이지선 수습기자



구담 스님은… 중앙승가대 불교학부를 졸업하고, 군법사 대위로 전역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을 수료하고, 금산사 재무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금산사 포교국장과 금산사불교회관 보현사 총무국장, 전주 서원시니어클럽 관장 등을 맡고 있다.

마음이 몸의 주인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몸도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지금 이 자리가 극락에 들어가는 일주문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나 축생계로 가는 일주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출생으로 프랑스에서 열심히 포교활동을 하시는 틱낫한 스님의 〈붓다〉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재세 시절 단막극 형태 소설로 재구성한 책인데요. 책에 나오는 여러 계명 중 '천천히 가는 삶의 13계명'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에 함축된다

첫 번째, 삶이란 오직 지금 이 순간 현재라는 찰나의 시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걱정·근심합니다. 〈천수경〉에는 백천만겁동안 지은 악업도 지금 이 순간 한마음 밝게 바꾸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정해진다고 합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허공에 물감을 뿌리면 안 묻죠? 여러분들이 '나는 가난해' '나는 못 생겼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과거 습관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성은 풀로 들어가면 푸른빛을 내고 물로 들어가면 시원함을 주고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면 각자의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자성은 차별이 없고 오염되지 않는 건데 과거 생의 습관대로 때가 껴서 우리 스스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몸은 못 가지만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현재에 함축되어 있고 마음은 현재라는 찰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속에 티끌이, 티끌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불안한 마음에 힘을 빼앗기지 말라. 불안이 지나면 다시 고요가 옵니다.

불안한 마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마음은 과거의 업식으로부터 왔습니다. 두려움은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바람피고, 거짓말하고, 술마시고 이 다섯 가지에서부터 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형상인 불상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속 부처님을 항상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천력이 부족하면 보현보살, 복이 부족하면 관세음보살, 조상천도를 위해서는 지장보살 등 발원하는 마음에 보살님, 부처님 중심을 세우고 기도 원력을 세우면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해 끌어안는 게 사랑이다. 이것저것 계산하다가는 인연이 멀리 달아난다.

평생 살면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연이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를 반드시 도와줍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과의 신의를 저버리거나 속마음을 숨기고 대하니까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남편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그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최소한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도 나를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깨어있어라. 그리고 웃음과 좋은 말과 배려를 한 번이라도 실천하라.

사는 게 힘들고 귀찮다고 남에게 불친절하면 안 됩니다. 성공하고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아주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기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인사하면 나도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해야 합니다. 돈으로도 보시할 수 있지만 웃는 말, 얼굴, 행동으로 보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숨쉬기 명상으로 습관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힘들다면 생각을 멈추고 '몰라' 하고 놓아버려라.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항상 그것에만 집중하려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힘이 듭니다. 이 때 마음 던져놓기에 호흡명상이 도움을 줍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면 스트레스 받다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도 그렇고 보살님들도 그렇고 지금 법문을 하고 듣는 이 순간만큼은 스트레스 없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 집중하고 교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회가 없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을 땐 호흡명상이 이런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호흡명상조차 힘들 때는 '몰라' 하고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몇 년간 산 속에서 수행을 했지만 터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큰 바위 위에 누워 하늘을 가만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할 때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허무함만이 남습니다.

> **틱낫한 스님 〈붓다〉 인용**
> **自性은 차별 없이 똑같지만**
> **습관 의해 남과 다르게 느껴**
> **자비심 내야 삶이 변화한다**

여섯 번째, 걷기 명상으로 대지의 힘을 온 몸에 실어라. 움직임이 곧 생명의 시작이다.

움직이면 혈액 순환도 잘 돌고 건강한 기운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어둡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곧 몸도 병들게 돼 있습니다. 앉아서 참선하는 것도 좋지만 공기 맑고 좋은 곳에서 몸을 움직여보세요.

다름 인정해야 마음 열린다

일곱 번째, 어디를 가는가. 모든 게 여기 있는데 당신에게 자비와 이해 그리고 자유가 있다면 어디를 가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곳이 바로 당신의 고향이며 극락의 일주문이다.

부처님 법은 꼭 법당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잘나서 내가 숨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에너지가 나를 숨 쉬게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주위의 모든 인연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불자는 항상 마음속에 불평,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보다는 내가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감정은 감정일 뿐, 일시적인 감정에 힘을 낭비하지 말라. 사사로운 감정에서 온갖 사건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감정적인 것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아홉 번째,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는 네 번째 계단에서 힘을 빼라. 인생의 목표성취는 즐기는 자의 것이며 매 순간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목표가 있지만 욕심만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매 순간 인연이 왔을 때 그 인연에 맞게 잘 응해주면 됩니다. '잘 응해준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성을 똑같이 다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을 못났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열 번째, 통찰력과 자비심은 상대를 끌어안는 힘이다. 상대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한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아홉 번째와 같은 맥락으로, 웬만하면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고 노력하려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열한 번째,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된다.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지금부터 기도하라. 나중에는 엄청난 시너지가 돌아올 것이다.

어딜 가나 항상 기도하는 마음은 잃지 마세요. 스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님은 매일 꾸준히 기도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매 순간 조금이라도 부족한 면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빼먹지 않고 매일 기도한다면 반드시 가피(加被)가 옵니다. 2007년부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30분동안 돌아가신 할머님과 영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도 빼먹은 적 없어요. 10분이든 30분이든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 돈에 투자하는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 삶에 투자하라. 돈은 내 삶의 일부분이며 일시적이고 그 안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어있다.

옛날 부자들은 엽전을 항아리에 넣어놓고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돈님, 돈님. 나가실 때 사람만 치지 않고 나가주세요." 어렵게 돈을 모았는데 그 돈들이 주머니에서 나갈 때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합니다. 돈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돈은 내가 좋은 일에 쓸 때 최고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10억을 벌든 10원을 벌든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좋은 일에 쓰면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술 마시고 유흥에만 쓴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열세 번째, 침묵은 어떤 말보다 강하다.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말로 뱉을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죠. 남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 내가 굳이 말을 얹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업을 대신 짊어질 자신이 있다면 한 마디 얹어도 되겠지만 그럴 자신 없다면 구태여 구업을 짓지 마세요.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사)한국불교조계종 종단 통일가사 점안법회 봉행

한국불교조계종은 미래불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종단개혁과 혁신으로 불교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한국불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정법수행을 일으켜 세우고 법계일탈이 만연하여 해체된 승가공동체 구현과 대중공의와 종도주권의 실현을 위해 종단의 체질을 최근 새롭게 바꾸고 종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종도들이 다함께 원융회통을 통해 종단 법인설립 이래 최초로 전통 점안의례 통일가사 점안을 봉행하여 한국불교조계종의 승려 의제를 통일하고 법계제도를 새롭게정착 조계종 정체성 확립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전법의 혁신과 종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로 종단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분열과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소외된 종도가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창의적인 종무행정을 공평무사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종도들이 환골탈퇴하는 개혁을 통해 기계를 닮아가는 메마른 사회의 풍토에 깨달음의 영혼을 불어넣고 있는 종풍쇄신 운동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제방의 대덕큰스님과 전국에 계신 종도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1일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법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FAX : 02)720-8271 H.P : 010-5432-0108(총무원장 운산), 010-4167-3666(사무총장 도광)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미친 소를 길들이는 방법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⑤ 소와 목동 이야기 ㊤

약초 캐다가 어느새 길을 잃었지
천 봉우리 가을 잎 덮인 속에서.
산 스님이 물을 길어 돌아가더니
숲 끝에서 차 달이는 연기가 일어난다
– 율곡 이이, '산속(山中)'

이런! 너무 열심히 약초 캐다 보니, 길을 잃어버렸네요. 해는 어느덧 저물어 어둠이 깔립니다. 차가운 바람과 어둑해진 주변, 문득 고개를 드니, 울창한 숲 속입니다. 아! 길을 잃었구나. 약초를 쫓다가 첩첩 산골짜기까지 들어와 버렸네요. 손에 한 가득 움켜쥔 약초. 걸망에도 잔뜩 입니다. 하지만, 길을 잃은 마당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디로 나가야 하나, 순간 두려움과 막연함이 엄습합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연기가 한 줄기 피어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저쪽 방향에 절이 있구나! 휴, 살았네요. 이제 하산하는 길을 찾을 수 있으니.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목표를 향해 매진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욕망들이 들러붙곤 합니다. 그리고 욕망은 맹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꼼짝없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쫓기고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유로운 삶을 택하지도 못합니다. 율곡 이이의 '산중'이라는 시처럼, 약초를 쫓고 또 쫓다 보니 산 속에 오리무중으로 갇혀버렸네요. 하지만,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러고 있나' 바라보게 됩니다. '자각(自覺)'하는 마음이 발동한 순간입니다. 수행의 과정을 게송으로 읊은 〈십우도송〉은 이러한 '발심(發心)'의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각하는 마음'의 발동, 初發心

현재 우리나라 사찰 전각의 벽화는 대개 두 주제로 나뉩니다. 하나는 석가모니 일대기를 여덟 폭의 장면으로 그린 '팔상도'이고, 다른 하나는 수행의 단계를 우화적으로 그려놓은 '십우도(또는 심우도)'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소를 길들이는 목동'에 비유하여, 풀이하여 그려놓았기에 '목우도(牧牛圖)'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생 동안 무명과 욕망에 길들여져, 본 바탕인 반야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상태를 '검은 소'에 비유합니다. 깨달음과 분리되어 버린 자아를 '집나간 소'에 비유하였기에 '소를 찾는다'라는 의미로 '심우도(尋牛圖)'라고 하기도 합니다. 궁극의 깨달음과 계합하는 과정을 첫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총 10단계로 도해하고 있기에 보통 '십우도(十牛圖)'라고 합니다.

십우도의 대표적 근거가 되는 곽암 선사와 보명 선사의 게송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명선사의 '목우 10송'을 보면, 첫 번째 제목은 '미목(未牧)'으로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납게 생긴 머리의 뿔로 방자하게 으르렁거리며/ 시내와 산골로 치닫고 달리니 길에서 점점 멀어만 가네/ 한 조각 검은 구름은 골짝 어귀에 비켜 떠있는데/ 치닫는 걸음마다 아름다운 싹을 침범할 줄 누군들 알리요.

치성한 번뇌 망상은 사방으로 튑니다. 불뚝 화를 냈다가도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저기 아무 곳으로나 치닫는 발걸음에 무고한 새싹들이 짓밟힙니다. 자각되지 못한 무지와 욕망은, 이렇게 미처 날뛰는 소처럼, 참으로 위험합니다.

고질적으로 현행되는 오온(五蘊)의 작용에, 하릴없이 휘둘려,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가슴을 벌렁거립니다. 결국 가속도가 붙은 업력은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명의 작용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이것을 자아와 철석같이 동일시합니다. 곽암 선사의 게송은 〈심우(尋牛)〉(소를 찾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사찰 전각 벽화 소재 '십우도'
무명으로 날뛰는 마음 '소'를
동자는 어떤 지혜로 길들일까
소 찾는 일정 이렇게 시작된다

"망망한 수풀을 헤치고 소의 자취를 찾노니/강물은 넓고 산은 험하며 길은 더욱 깊기만 하다/탈진하고 기력이 떨어져 찾을 길 없는데/다만 숲 속 나뭇가지엔 매미 우는 소리만 들리네."

깨달음을 구하려 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왜곡된 현상에 속아 번뇌 망상이 들끓는 단계입니다.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수행 길에 들어섰으나, 도통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모습입니다. 의식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허투루에너지만 탕진하고 막막한 상태이네요.

검은 소, '무명'이 만드는 '레알 세상'

십우도에 등장하는 검은 소는 '무명(無明)'을 상징합니다. 즉, 지혜(智慧)가 없는 상태의 중생심을 가르킵니다.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저술한 〈수심결〉의 첫머리에는 이 같은 중생의 상태를, "탐·진·치의 뜨거운 불덩이" 속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미목(未牧: 길들기 전)' 마음이 방자하고 객기의 충동에 휩쓸리는 상태로, 수행으로 전향하기 전의 모습이다. 보명선사의 〈목우십도송〉



'회수(回首: 머리를 돌이키다)' 일구월심 공을 쌓아 어느 정도 힘을 얻었으나, 아직 방심할 수는 없는 경지.

"탐욕과 성냄과 무명의 뜨거운 번뇌여/ 마치 활활 타는 집과 같거늘/ 그 속에 오래 머물러 참으며/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을 것인가"라며, 윤회의 고통 속에 마냥 시달릴 것인지 아니면 해탈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종용합니다.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부처가 되는 길 밖에는 없네 … 이 육신은 변하는 거짓이라/ 태어남이 있으므로 죽음이 있거늘/ 참마음은 허공 같아서/ 끊기지도 변하지도 않는다"라며, 허망한 몸을 근거로 탐진치에 휘둘리지 말고 허허로운 참마음을 찾으라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소를 길들이는 동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명의 천적인 지혜입니다. 스스로를 아는 마음, 자각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자각하여 첫 걸음마를 떼는 단계인지라 힘이 미비합니다. 아직은 무명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그 밑바닥까지 보아낼 힘이 없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은 지도 모릅니다.

중생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근저의 자의식을 은근히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시기 전, 망설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세세생생 유전된 업식의 힘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뿌리가 아주 깊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에 '강물은 넓고 산은 험하며 길은 더욱 깊기만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깨달음을 향한 길은 아득하기만 할까요. 곽암 선사의 십우게송 서문에는 "종래 잃지 않았는데 무엇을 찾는가?"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멀어져서 속세로 향하더니 드디어 집을 잃고 마는 구나. 집에서 점점 멀어져 갈림길이 갑자기 달라져, 얻고 잃음이 치성하여 시비가 험하구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 잃지 않았는데 무엇을 찾는가"라는 첫 문구에서, 본인이 여기가 집인 줄 몰라서 그렇지 어디를 가든 거기가 '집'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여래장(如來藏) 사상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건 간에, 불성(佛性)은 존재의 안팎으로 편재하고 있습니다. '시각(始覺)이 곧 본각(本覺)이다'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십우도의 첫 장면에 동자가 등장하는 것은 바야흐로 '시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십우도는 시각에서 본각으로 가는, 무명의 자아가 깨달음의 바탕으로 계합해 가는 과정을 그림과 함께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십우도의 다음 장면들을 보면, 검은 소와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엎치락뒤치락 고삐를 부여잡고, 다음에는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과연, 동자는 검은 소를 굴복 받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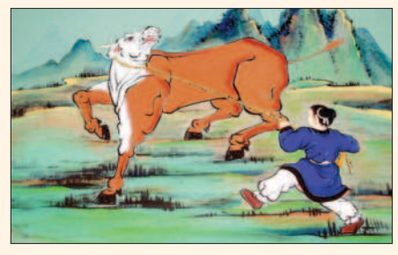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토막 불교상식

'십우도'란 무엇인가?

수행자의 수행 과정의 단계를, 비유적 이야기를 통해, 그림과 게송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동자가 잃어버린 소를 찾아 우여곡절 끝에 길들여서, 집으로 돌아와 궁극의 깨달음에 드는 과정을, 그림(圖)과 송(頌)으로 도해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저작은, 특히 북송 중기부터 남송 초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가장 시대가 오래된 것으로



는 중국 북송대 청거호승(淸居皓昇) 선사의 '목우도송 12장'이 있다. 다음으로 보명(普明) 선사의 '목우 10장', 유백(惟白) 선사의 '목우 8장' 등 유명 선사들이 이 형식을 빌려 참선의 수행단계를 알기 쉽게 제시하였다.

중국에서는, 선풍이 점점 쇠퇴해가는 원(元)·명(明)대에 이르기까지도, 보명선사의 목우도(牧牛圖)가 일반적으로 유행했고, 반면 일본에서는 무로마치시대(1392~1573) 이래부터 곽암(廓庵) 선사의 십우도(十牛圖)가 널리 알려졌다. 우리나라 사찰 벽화에 주로 그려지는 것은 남송의 곽암 선사 십우도송이다.



"문정왕후 어보 반환 주역은 불교계"

불교 문화재 환수 단체가 2009년부터 운동 시작해
2013년 반환 결정 이끌어
수 년간의 환수운동 과정
조계종 · 봉선사 · 미주 불교 스님 · 불자들이 지원해 와

혜문 "불교 역할 알려야"
어보 반환 기념하기 위한
회암사 무차대회 계획 중

문정왕후 어보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돌아왔다. 한미 정상화담의 성과로 대서특필됐지만, 어보가 돌아오기까지 숨은 주역은 불교계의 역할이 컸다.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약탈 · 불법유출된지 67년만에 문정왕후 어보가 돌아왔다. 어보 환수를 외교적 성과로 말하고 있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불교계 문화재환수운동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문정왕후 어보 반환운동의 시작은 2009년 문화재제자리찾기의 문제 제기부터다. 당시 봉선사 스님이었던 혜문 대표는 봉선사 · 회암사 사부대중과 함께 회암사 성보 환수 운동을 시작했다. 혜문 대표는 회암사 성보를 찾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조사했고, 2009년 뉴욕에서 문정왕후 어보 반환의 결정적 단서인 '미국 국무부 문서'를 찾아냈다. 문서에는 6.25 전쟁 당시 미군 병사에 의해 조선 태조 이성계를 비롯한 왕과 왕비 어보 47개가 약탈됐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환수를 위한 결정적 증거를 찾았지만, 환수를 이루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원활한 조사를 위한 해외체류비용 등이 문제였다. 이를 지원한 것이 봉선사 사부대중이었다. 장기 체류 당시에는 미국 뉴저지 보리사, 뉴욕 원각사, 미주 불교문화원 등의 도움이 있었다.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도 민족 문화재 환수라는 명분에 공감해, 공동 성명서와 반환요청서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3년 9월 미국 소장처인 LA주립박물관에서 문정왕후 어보에 대한 반환 결정을 내려진다. 하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혜문 대표에 따르면 불자인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은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국새와 어보가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이를 통해 환수를 위한 행정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혜문 대표는 "문정왕후 어보 반환은 봉선사를 중심으로 하는 조계종과 불자들, 미주 불교계, 북한 불교계 등이 10년에 걸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수년간의 운동을 지원하고 결정적 역할을 해주신 불자들의 역할은 아무리 칭찬해도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혜문 대표는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정왕후 어보 반환을 기념하는 행사를 계획중이다.

실제 조선불교 중흥에 나섰던 문정왕후와 허응 보우 스님은 1565년 4월 8일 회암사서 무차대회를 봉행해 새로운 도약을 기하려 했으나, 문정왕후가 무차대회를 3일 앞두고 사망해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혜문 대표는 문정왕후가 이루지 못했던 무차대회와 어보 반환 기념전을 회암사서 개최하자는 제안서를 7월 3일 양주시청에 제출한 상황이다.

혜문 대표는 "'500년 전 문정왕후와 허응 보우 스님의 꿈을 이루자'는 게 문정왕후 어보 반환운동을 진행했던 진정한 이유"라며 "부처님 앞에 문정왕후 어보를 다시 모시고 왕과 백성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평등한 불국토를 기원하는 법회와 특별전이 회암사에 열리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문정왕후 어보. 한미 정상 회담 성과로 꼽히고 있지만, 반환되기까지 기틀은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환수운동이 만들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우수 불교인재 양성에 매진하자"

동국대 경주캠 불교문화대학 발전위 발족

위원들 기금 3억 원 쾌척
2021년까지 10억 원 모연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발전을 위한 내부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학장 김성철)은 6월 30일 교내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불교문화대학 발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족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과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법수 스님,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장 보당 스님(보국사 주지)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우수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발족된 불교문화대학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법수 스님이 맡았으며, 불교문화대학 총동창회와 기수별 학생회 임원, 교내 교직원과 학생 대표 및 외부전문가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위원회는 △신입생 유치 시스템 구축 △진로지도 프로그램 활성화 △불교문화발전기금 모금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기금은 2021년까지 10억 원 모연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발전위원들은 십시일반 모연해 기금 3억 원을 조성 · 전달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은 치사를 통해 "인재불사를 위해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키우는 일은 불자의 사명이고 자존심"이라며 "소중한 뜻을 받들어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지방 최고의 대학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동문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불교 종립대학 위상과 역할 제고를 통해 우수한 불교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은 6월 30일 교내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불교문화대학 발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불교로 논한다

한국불교학회, '불교와 4차산업' 발표자 간담회

12월 2~3일 추계대회 앞두고
국내 발제자들 연구 방향 논의
해외 학자 10명도 공모로 참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 · 증강 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응용 방안에 대한 국내외 불교학자들의 논의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7월 3일 엠버서더 호텔에서 '불교와 4차산업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오는 12월 2~3일 동국대에서 개최하는 추계 학술대회를 앞두고 국내 발제자들의 연구 방향 등을 발표 ·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날 연구자들의 발표를 통해 한국불교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의 윤곽이 확인됐다. 4차 산업혁명이 현대 사회의 화두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과학 기술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응용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논의할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불교 학자 28명(국내 18명, 국외 10명)이 참여한다. 특히 국외 학자들의 경우 해외 연구사이트 공모를 통해 10명을 선발해 참가 자격을 부여했다.

대회는 △4차 산업기술의 불교철학적 해석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사회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전법 포교 △사물인터넷 · 스마트시티와 불교 △가상 · 증강현실을 이용한 불교교육용 프로그램의 개발 등 5가지 소주제로 진행된다. 국내외 불교학자들은 5가지 소주제 맞춰 논문을 발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발제자들의 개별 연구 계획 등이 소개됐다. 최초로 인공지능의 불성에 대해 연구해 2008년 조계종 학인논문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보일 스님은 인공지능을 불교윤리학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사고와 지능을 가진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중생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불교철학과 인권 문제로 접근한다. 또한 한성자(태국 마히돌대)는 번뇌의 유무가 인간과 로봇을 구별하는 대척점이 됨을 확인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구 전남대 교수는 디지털 사찰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교 접근성을, 장재진 동명대 교수는 사물인터넷을 통한 사찰 건축 구조 등을 연구 · 발표한다.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은 "'4차 산업혁명과 불교'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연기 사상만이 초지능 · 초연결성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해석하고 논의할 수 있다. 이 같은 논의들은 세계 불교학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불교학회는 7월 3일 엠버서더 호텔에서 '불교와 4차산업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성민 기자

남도 문화 내 원효 위치 조명한다

보조사상연 · 순천대, 20~21일 공동 워크숍

남도 문화 안에 원효 스님의 위치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과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소장 남호현)는 오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순천 일원에서 공동 하계 워크숍을 개최한다.

'남도문화에서 원효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순천대에서의 학술 세미나를 비롯해 송광사, 불일암 순례 등이 진행된다.

학술세미나에서는 김호성 보조사상연구원장(동국대 교수)이 '원효의 징성가에 대해', 이종수 순천대 교수가 '지리산권 원효설화의 특징과 문화사적 의미'를 각각 발표한다. 논평은 석연경(시인, 청암대), 김춘호(원광대)가 맡는다.

학술대회에 앞서 보조사상연구원과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는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일반 참가자는 50,000원의 참가비가 있으며, 교수 · 강사 · 대학원생은 무료다. 참가자는 학회 간사에게 문자로 신청한 후 참가비를 입금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접수 · 문의 (010)4494-1981

신성민 기자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7월 31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15회 대원상 (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에서는 설립자인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해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해 2017년 제15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상세는 본원 홈페이지 및 월간 「불교문화」 공모 내용을 필히 참조 바람.]

| 포교대상 |

공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1) 출가 부문
(2) 재가 부문
상금 : 총액 5,000만 원 이내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1) 출가 부문
– 3인(곳) 이내 시상
–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 활동을 전개하는데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또는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2) 재가 부문
– 3인(곳) 이내 시상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콘텐츠대상 |

※ 불교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주제 및 소재)의 콘텐츠
공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1) 텍스트 · 이미지 콘텐츠
(2) 오디오 · 영상(비디오) 콘텐츠
상금 : 총액 4,000만 원 이내
오디오 · 영상(비디오) 콘텐츠는 DVD나 USB 등으로 제출할 것.
※ 각 시상 분야에 대해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음.
※ 후보자 또는 후보 작품들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 ·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상 부문 및 상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출 서류 : 제15회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양식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접수 기간 : 2017년 9월 11일(월) ~ 9월 29일(금)
접수 및 문의처 :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주소 :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전화 : (02)719-2606, 1855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시상식 일정 : 추후 발표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섬집 아기와 어머니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 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

이 동요는 해외에 머물던 15년 동안 '고향땅'과 더불어 가장 많이 흥얼거리던 노래이다. '고향땅'은 초등학교에서 배웠지만 '섬집 아기'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어머니와 합창해 익힌 사연 깊은 노래이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가난하였다. 어머니는 가난을 이겨내려 숯 장사, 고구마 장사등 돈이 되는 일을 찾아 나서며 고되고 힘겹게 가난과 싸워오셨다. 집에서 부안 읍내까지는 10km가 넘는 길이었으나 버스 값을 아끼려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읍내의 장터까지 걸어 다닌 어머니였다. 밭이나 논에서 일도 많이 하였는데 그때

입대 전야, 어머니와 부른 '섬집 아기'
출가 후에도 어머니 생각나면 노래했다

마다 따라나서는 나에게 어머님이 들려주신 노래, 열 번 스무 번 들어서 익힌 '섬집 아기'였다.

하여, '섬집 아기'는 나의 그림자가 되어 인도와 네팔로 따라다녔고 티베트에서 고산증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군인들의 도움으로 깨어났을 때에도 나는 염불처럼 어머님을 떠올리며 '섬집 아기'를 중얼거렸던 것이다.

인터넷의 블로그 등에 많이 올려있는 '내 죽거든'이란 시(詩)도 고산증세로 의식이 희미해져갈 때 안간힘을 다해 수행자로 유서로 남긴 글이다. 그 당시에도 나는 '섬집 아기'를 떠올리며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 '내 죽거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리지 말길. 관이니 상여니 만들지 말길, 그저 입은 옷 그대로 둘둘 말아서, 타오르는 불더미 속에 던져 버릴 것'을 글로 남겼으리라.

나의 고향은 3면이 바다인 변산반도이다. 그러다 보니 바다가 멀지 않았고 어머니를 따라 '돈지'라는 바닷가에서 게 잡는 일이 자주 있었다. 게를 삶아 먹으면 시장기를 달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드문 일이나 가끔씩 갯벌의 구멍에서 쭈꾸미나 낙지를 잡는 횡재하는 일도 벌어지게 된다. 그날도 나는 은밀하게 확신을 갖고 경험을 되살려 낙지 잡이에 열중이었다. 바닷물이 썰물일 때 게 잡는 작업을 하다가 밀물로 바닷물이 차오를 때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해변으로 빠져 나와야 한다.

그날, 나만의 은밀한 작업, 낙지 잡는 일에 열중하다 밀물의 바닷물에 갇히게 된다. 함께 간 동네 아줌마들이 어서 빠져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었으나 순식간에 허리까지 차오른 바닷물이 두려움을 더해주며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의 나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래도 애써 잡은 낙지 두 마리를 입에 물고 헤엄치려했으나 물이 깊어 서 있는 장승처럼 몸이 떨리며 굳어지고 있었다.

그때이다. 어머니는 게 잡은 망태도 바닷물에 던져버리고 온 힘을 다해 헤엄쳐 나를 끌고 안전지대로 빠져나오게 된 것이다. 바닷물을 토해내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닌, 어머니는 나의 등을 두드리며 연신 바닷물을 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낙지 두 마리도, 게 잡은 망태까지 잃어버린 빈 손이었지만 어머니와 나는 웃고 있었다.

당시 어머니는 가끔씩 예배당에 다녀오는 신참 기독교인이었으므로 감사의 기도도 잊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와 부른 합창도 '섬집 아기'였다. 그 후 '섬집 아기'를 함께 부른 아이는 출가해 스님이 되고 군에 입대하게 된다. 첫 휴가 때 어머니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밥상 위의 쌀에서 깨진 쌀과 뉘를 가려내며 작은 소리로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을 되뇌고 있었다. 소변 때문에 일어난 아들은 어머니의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의 뜻을 묻게 된다. 어머니는 머뭇거리며 말씀하신다.

"하룻밤 자면 떠날 아들에게 싸래기와 뉘를 골라내 좋은 쌀로 밥을 지어 먹이고 싶어서이다. 뜻은 모른다만 아들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었다."

아들은 가슴이 먹먹해 울고 싶었다. 어머니를 와락 껴안으며 그날 밤 졸라서 어머니와 함께 부른 노래가 '섬집 아기'였다.

꽃은 누구를 위해 피는가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불립문자(不立文字)를 표방하는 선가에서도 주옥같은 글을 남긴 선사들이 많았다. 그것은 선사들 중에도 학식이 높고 학문적 자질이 뛰어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선불교가 인도에서 온 달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선이 토착화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달마도래 후 100년쯤이 지나고 양자강 이남에서 중국화 된 선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중국선의 자생적 발생에는 〈화엄경〉의 성기(性起)사상, 〈열반경〉의 불성, 여래장(如來藏)사상 그리고 노장사상(老莊思想)이 결합되어 발생하였다. 이리하여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중국의 선불교는 새로운 불교로 일어나면서 동아시아 전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당(唐)나라 때 일세를 풍미하던 선불교가 당나라가 망하고 송(宋)나라가 들어서면서 쇠퇴의 조짐을 보이게 된다. 다시 유교가 각광을 받으면서 유학을 공부하여 입신출세의 길을 가려는 것이 대부분의 상류층 지식인이 원하던 것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유학(儒學) 공부에 몰두하다 출가하여 세출간의 영웅이 된 선사가 있었다. 바로 설두중현(雪竇重顯, 980~1052) 선사다. 설두는 어릴 적부터 유학을 공부하여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 그는 특히 시(詩)에 재능을 발휘하여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세속의 부귀영화가 무상한 것을 깨닫고 23살에 출가를 결행했다. 익주(益州) 보안원(普安院)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어 경과 율을 익힌 후에 지문광조(智門光祚)를 찾아가 5년간을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수행정진하였다. 그가 도를 깨달은 계기는 불자(拂子)에 얼굴을 맞고서다.

어느 날 스승 광조에게 물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의 허물은 어떤 것입니까?" 광조가 손에 들고 있던 불자로 얼굴을 후려쳤다. 그는 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 그러자 또 다시 불자로 후려쳤다. 이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운문종을 개창한 운문문언(雲門文偃), 향림징원(香林澄遠), 지문광조(智門光祚)의 대를 이어 운문종의 4대(四代) 조사가 되었다.

나중에 그는 스승의 청에 의해 절강성(浙江省) 명주(明州)에 있는 설두산(雪竇山)으로 들어가 자성사(資聖寺)에 머물면서 30여 년을 독특한 선풍을 드날렸다. 70여 명의 제자들을 배출하여 기울던 운문종의 종풍을 다시 일으켜 세운 운문종의 중흥조라 불리었다.

유학자 출신인 그는 글을 잘 하여 여러 가지 저술을 남겼다. 〈설두개당록(雪竇開堂錄)〉, 〈동정어록(洞庭語錄)〉, 〈송고백칙(頌古百則)〉, 〈조영집(祖英集)〉, 〈폭천집(瀑泉集)〉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단연 백미(白眉)로 꼽히는 것은 〈송고백칙〉이다. 부처님 당시로부터 그가 살았던 11세기까지의 선사들의 오도기연(機緣)과 공안에 송을 붙인 것이다. 선사(禪師)로서 공안에 대하여 본분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일종의 해설이다. 이 송고는 분양선소(汾陽善昭)에 의해 시작되어 설두, 묵조선(默照禪)의 거장이었던 굉지정각(宏智正覺), 무문혜개(無門慧開) 등이 송고집을 남겼다. 설두의 〈송고백칙〉은 후에 〈벽암록〉을 탄생케 한 모태가 되었다.

〈조영집〉은 설두의 시집이라 할 수 있는 책이다. 220 편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역대 중국의 황제들을 폄하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 대장경을 편찬할 때 목록에 포함되지 못하고 제외되었다 한다. 그러나 그의 시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알려지기도 했다. 설두의 업적을 후대에 와서 평가하는 말에, 사람들이 선의 세계에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 관심을 기울게 하여 선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선사들만 이해하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선을 일반 사람들이 친근함을 느끼도록 해 준 것을 그의 공로로 친다는 것이다. 사실 선은 깨닫기는 어려워도 접근하기는 쉬운 것이다. 난해한 사변적이고 현학적인 교리를 탈피하여 학식을 앞세우지 않는 실천 수행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교학불교보다는 선불교가 일반대중에게 더 널리 퍼질 수가 있었다. 선에서 강조한 돈오사상이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설두가 남긴 유명한 게송이 있다.

牛頭沒馬頭回
소머리로 사라졌다 말머리로 돌아오니
曹溪鏡裏絶塵埃
조계의 거울 속엔 티끌 먼지 없도다.
打鼓看來君不見
잘 보라고 북을 쳐도 그대는 못 보구나.
百花春至爲誰開
봄이 오면 피는 꽃들 누굴 위해 피는가?

보리심이 없으면 '佛果'도 없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① 발보리심은 무엇인가

施事已足爲一切衆生親者。未曾一念不與悲心相應。菩薩悲心遍緣一切無不緣者。以悲心遍故。後成佛時得一切種智無有障 ɥ以悲心故。捨聲聞解脫發菩提心。此初一念之心。唯佛知其邊量。況菩提行解脫樂。方初一念發菩提心。猶如大地金大地土不相方ⓒ。初發心時以能淨諸結使招一切功德。菩提是發心果。爲一切衆生求樂。菩薩發菩提心竟。未發願者問。解脫云何。以何因緣故問。以發心者如從解脫中來。是故問言。云何爲解脫相爲往到解脫故知爲解脫來耶。已發願者答言。發菩提心時歡喜快樂猶如解脫。是故得知。欲供養一切佛者當發菩提之心。欲報佛恩者當發堅牢菩提之心。除發菩提心更無有法能至菩提。若無菩提心則不得佛果。若不得佛果則不能救度衆生。

번역
하권 발보리심품 제15

보시하는 일을 마치고 일체 중생의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일찍이 일념으로 자비의 마음과 더불어 상응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은 두루 반연하되 일체에 반연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두루한 까닭에 나중에 부처가 될 때 일체종지(一切種知)를 얻고 장애가 없습니다.

자비의 마음 때문에 성문의 해탈을 버리고 보리의 마음을 냅니다. 이 처음 낸 한 생각은 오직 부처님이 그 한계를 헤아려 아시거늘 하물며 보리행과 해탈의 즐거움이겠습니까? 바야흐로 처음 일념으로 보리심을 일으킴은 마치 대지의 금과 흙이 서로 비교되지 않는 것과 같으니, 초발심으로써 능히 청정하며 일체의 공덕과 맺어지게 됩니다. 보리는 발심의 결과이며, 일체 중생의 즐거움을 구하게 하기 위해 보살은 발보리심을 마친 것입니다.

아직 원을 세우지 않은 사람이 묻되 "해탈이란 무엇인가?"하는데 왜 묻는가 하면 발심이란 것이 해탈에서 오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묻기를 "어떤 것이 해탈의 모습인가. 해탈로 가고 해탈이 온 줄 안단 말인가?" 합니다. 이미 원을 세운 사람의 대답은 "보리심을 발할 때의 기쁨과 쾌락이 마치 해탈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들께 공양하려는 이는 보리심을 발하며,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이는 응당 견고한 보리심을 발합니다.

발보리심을 제거하고서는 능히 보리에 이를 법이 없습니다. 만일 보리심이 없다면 불과(佛果)를 얻을 수 없고, 불과를 얻지 못하면 중생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해설

용수 보살 이후 대승불교 사상은 모두 제바라보살(제바:提婆. 아리야데바. 170~270)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제바보살은 말한다. 부처를 이루고, 부처가 되어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대답의 서막이 오늘 소개하는 본문이다. 또한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도 본문에 들어 있다. 아울러 깨달음을 이르는 보리(菩提)와 발보리심(發菩提心)이 같은 의미라는 것도 밝히고 있다.

이 구도는 간단하고도 명확하다. 일체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발보리심'이며, 발보리심이 바로 지혜인 '보리'라는 것이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번뇌를 여읜 해탈(解脫)이란 것도 발보리심을 일으킬 때 찾아오는 기쁨과 쾌락이라고 한다. 부처를 이룬다는 불과(佛果)도 발보리심의 인연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토록 쉬운 일이 우리에게 그토록 어려웠던 건 왜일까? 견고하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일 것이다.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 1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 (제 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관장 : 이준혁

※ 지면은 쥐 · 원숭이 · 용띠 기준 ※

개운원판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12신살을 이용한
방위개운법 붉은색이
정북입니다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은 1회 전화 및 방문하시면 상담 하여드립니다.



• 가액 : 20만원
특허번호 4-2013-035176-1
특수재질 PC
NAVER
귀장술 원판
귀장술 수강생 모집 검색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교육가능 합니다.

※ 원판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작 배포할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故 박일우 선생님 영전에 바칩니다

문 의 : 010-8558-2345 / 02)2273-8557 계좌번호 : 신한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주 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 금강빌딩 B-105호 (5호선, 8호선 천호역 3번출구)

“수행 함께해야 참된 우란분절”

미타선원 우란분절 금강경 산림법회

수행을 통해 우란분절의 참된 뜻을 되새기는 법회가 열린다.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종호)은 ‘우란분절(백중) 기도 금강경 산림법회’를 진행한다.

우란분절은 목련존자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데서 유래한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영가가 극락왕생해 우란분절이 시작됐다. 미타선원은 이러한 우란분절을 맞아 수행과 법문을 집중 강조한다.

7월 16일~9월 3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극락보전에서 열리는 법회는 사시불공으로 시작해 금강경 법문에 이어 천도재로 진행된다. 회향은 백중인 9월 5일이며 회향 법회로 마무리 된다.

미타선원은 매년 우란분절을 맞아 금강경 독송 및 사경으로 수행을 독려한다. 창건 후 18년 동안 빠짐없이 진행해 수행의 의미를 전달하는 특별한 우란분절로 자리 잡았다. 이번 해는 특히 전국에서 찾은 스님들의 특별 법석으로 다채로운 금강경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원로 의원인 지하 스님과 전국 선원수좌회 의장인 월암 스님의 ‘수행으로 바라본 금강경’을 마주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심 포교 활동으로 유명한 금강 · 마가 · 도문 · 광전 스님은 금강경의 안목을 쉽고 편한 언어로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금강 스님은 미황사 음악회와 템플스테이 ‘참사람의 향기’ 등에서 얻은 힐링 메시지를 대중에게 풀어 놓는다. 이날 금강 스님은 음악가를 초대해 명상 음악도 선사한다. 출연 가수는 미황사 산사음악회에 다년간 함께해 실력을 인정받은 명상 음악가들이다.



용두산 미타선원은 7월 16일을 시작으로 우란분절 기도 금강경 산림법회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극락보전에서 봉행한다. 이번 산림법회서 법문을 맡은 월암 스님이 지난해 4월 개산법회에서 법문하는 모습.

7월 16일 입재, 매주 일 법석
지하 · 하림 · 월암 스님 등 법사
창건 후 18년간 빠짐없이 열어
선사 법문서 대중 힐링 자리로

세부 일정 및 법사는 △입재 법문 지하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7월 23일 하림 스님(행복공감 평생교육원장) △7월 30일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 △8월 6일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8월 13일 도문 스님(통도사 총무국장, 前 조계사 주지) △8월 20일 종호 스님(미타선원 주지) △8월 27일 마가 스님(자비명상 이사장) △9월 3일 광전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사무처장) 등이 매주 법석을 연다. 회향일인 9월 5일에는 주지 종호 스님이 법문한다.

미타선원은 “다채로운 법석을 통해 초심자부터 오랫동안 수행해온 불자들까지 동참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며 “아울러 도심 포교지인 미타선원과 어울리는 자리로 일반인에게도 힐링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법회가 일요일인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법회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목련존자의 효심을 새기며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는 시간으로 원찰에서 법회를 봉행한 이후에도 특별히 금강경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산림법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매일 금강경 독송과 사경으로 수행에 동참하며 사경집은 회향날 천도재 위패와 함께 소각 회향한다. 이는 금강경 법문을 듣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가 함께 담겼다.

미타선원은 “우란분절을 맞아 지극한 믿음과 정성으로 효도를 실천하고자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 · 친족 및 수자령(유산된 태아의 영혼) 영가 천도재를 올리고 있다”며 “영가들이 금강경 법문을 듣고 극락왕생을 천도하는 뜻 깊은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행과 공양 공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악업의 중생도 구제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조계종 소의 경전인 금강경을 주제로 산림법회를 연다”고 취지도 전했다. 하성미 기자

신나는 여름 ‘마음 놀이터’서 놀자!

방학 맞아 부산지역 곳곳서 불교캠프 열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어린이 법회에 참석한 아이들이 촛불재(마음 on)에 참여하고 있다.

신나는 여름방학, 아이들에게 불교캠프를 통해 행복 메시지를 전하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7월 28~30일 부산지원 일대에서 어린이 여름캠프 ‘마음놀이터’를 개최한다.

학력 중심 사회에서 아이들은 학습을 강요당한다. 학습결과로 평가당하며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주도적인 삶에서 점점 멀어진다. 또한 관계 맺는 법을 바르게 익히지 못한다. 이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마련한 마음놀이터는 현대 아이들이 갖는 부작용을 치료하고 행복한 삶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마음놀이터를 △나는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한다 △모두는 주인공(나)이다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나는 주인공이다’는 레고 퍼즐, 비즈 만들기, 찰흙, 양초, 염주 나무단청 등 다양한 도구로 자신을 직접 만들고 자아상을 설명하며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스님과 도반들의 피드백으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 ‘스마일 Today’를 진행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연습한다. ‘웃어야 웃는 일이 생긴다’는 말처럼 행복한 자신을 미리 세팅해 아침을 열도록 지도한다.

‘주인공이 한다’는 주도적인 삶의 즐거움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량 곳곳에 코스별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본다. 나를 바라보고, 선물을 해주고, 맞는 음식을 만들어준다. 자신과 콤비가 되는 여행으로 주체적이면서도 자유를 맛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디자인 Tomorrow’ 시간에는 스스로 이끌어가는 내일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자기 전 직접 하루를 미리 설계해 본다.

‘모두는 주인공(나)이다’에서는 나와 모두를 밝히는 촛불재, 미션 미로 게임, 마법의 통로, 장기자랑 대회 등 참가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토닥토닥 Today’는 잠들기 전 자신의 하루에 보내는 칭찬과 위로의 시간으로 모든 대상에게 감사를 전달하고 행복을 체험하도록 돕는다.

캠프 기간 동안 한마음선원부산지원은 마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공부 UP 자신감 UP 이야기 한자’ 시간도 갖는다. 어린이 캠프 담당 혜벽 스님은 아이들에게 행복의 원리와 비법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한자 시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혜벽 스님은 “행복은 유능함과 자유 그리고 관계 맺기 속에서 드러난다”며 “행복을 찾아가는 마음공부를 위해 이야기 한자와 체험 활동을 연결해 자신의 뿌리를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관심을 독려했다. 캠프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051)403-7077

홍법사(주지 심산)는 어린이여름불교학교 ‘만다라에 풍덩’을 7월 28~30일 홍법사 경내 일대에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과자만다라 및 자연물만다라, 창작만다라 그리고 만다라 명상 등 만다라를 주제로 다채로운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 찬불 율동 및 교리수업, 물놀이, 전래놀이, 게임 등으로 즐거움을 더한다. 대상은 유치부 7세~초등학생이며 모집인원은 60명이다. 참가비는 7만원. (051)508-0345

진홍사(주지 정법)는 어린이 불교캠프를 처음으로 연다. 진홍사 어린이 여름캠프 ‘나눔이 주는 행복한 세상’은 7월 15~16일 진홍사 경내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기초 습의 교육, 발우공양, 내 마음 팝아트 등이 마련되며 캠프파이어 및 범어사 참배 워터파크 물놀이도 진행된다.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선착순 60명만 접수 받는다. 참가비 3만원.

한편 진홍사는 2015년 9월에 어린이 법회를 창단하고 올해 3월에는 반야청소년회를 창립했다. 청년회가 주축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등 어린이 포교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051)365-0524 하성미 기자

부산 생명나눔, 시민대상 장기기증 캠페인

(사)생명나눔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 이하 생명나눔부산)는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전개했다.〈사진〉

생명나눔부산은 6월 30일~7월 1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 2A홀에서 열린 ‘메디부산 2017! 시민건강박람회’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간 동안 122명의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생명나눔부산은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봉사해주신 봉사자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한다”며 “장기이식만이 유일한 치료수단인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용호복지관, 어르신들에 ‘삼계탕’ 대접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이 뜨거운 여름 사랑의 삼계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발원한다.

용호복지관은 초복인 7월 12일과 중복 7월 21일 말복 8월 11일 3차례에 걸쳐 사랑의 삼계탕데이를 실시한다. 대상은 지역내 독거 및 결식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300여명이다.

용호복지관은 “매년 따뜻한 후원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 해는 특별히 1300여명에 이른다. 삼계탕에 재료 및 과일을 후원받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독려했다. (051)628-6737~9 하성미 기자

세계 요가 수행자들 “한국불교 원더풀”

7월 2일 표충사서 템플스테이 체험 ‘눈길’

세계 요가 수행자들이 한국 호국불교를 대표하는 표충사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해 눈길을 끌었다.

밀양 표충사(주지 법기)에 100여명의 외국인 요가 수행자들이 7월 2일 방문했다. 이들은 ‘2017 밀양 국제 요가테라피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요가인들로 ‘건강과 세계 평화를 위한 요가’라는 주제로 현대인의 질병 및 치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이다. 행사에는 인도 비베까난다요가대학교 나겐드라 총장과 싸 비르 씽 칼사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등 세계 7개국 최고 요가 전문가가 초청됐다. 요가 수행자들은 표충사에서 주지 스님과의 차담, 법고 체험, 박물관 및 사당을 둘러보며 표충사를 탐방했다. 이어 호국 승병을 체험하며 활쏘기 체험 및 병장기 등 다양한 템플 라이프를 체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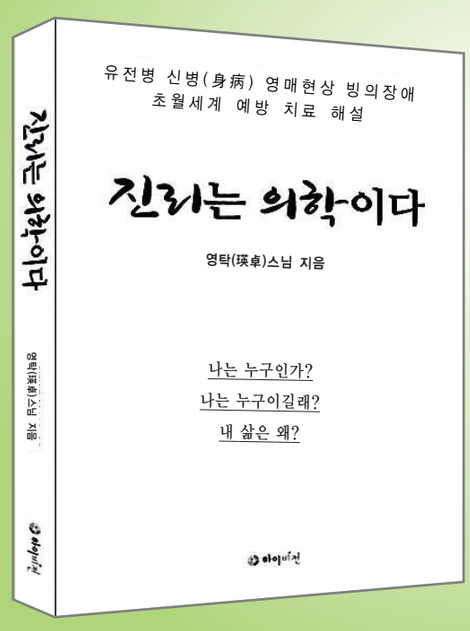
표충사는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표충사를 방문해 뜻 깊었다”며 “표충사서 얻은 힐링 및 휴식으로 참된 건강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055)352-1150 하성미 기자



100여명의 외국인 요가 수행자들이 7월 2일 밀양 표충사를 방문했다. 한 외국인이 호국승병 체험 활쏘기를 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진리는 의학이다!

천불사 영탁스님이 세계 최초로 중생제도 대원력 서원을 성취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
조상영가 왕생극락 시킬 수 있는 방편 대공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는
삼계사생육도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잠재의식 다겁다생의 업보를 해체 분리
파괴 소멸시켜 해탈하는 초월세계
우주진리법 입니다.

신병(身病), 영매현상, 빙의장애는
완치될 수 있고, 유전병도
예방 치료 됩니다.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값 15,000원 | 신국판 | 261쪽 | 하이비젼

■ 문의 : 천불사 053)624-2272, 053)624-2275



수련회 일정

1 초등생 여름캠프 “고운 꿈을 향해 쏴라”
□ 기 간 : 7월 28일 ~ 30일(금, 토, 일)
□ 주요프로그램 : 108염주꿰기, 연꽃 등 만들기, 명상,레크레이션, 만들기 체험, 사찰음식체험 등
□ 참 가 비 : 8만원
□ 대 상 : 초등 3학년 ~ 6학년

2 중·고생 여름캠프 “고운 꿈을 향해 쏴라”
□ 기 간 : 8월 1일 ~ 3일(화, 수, 목)
□ 주요프로그램 : 108염주꿰기, 연꽃 등 만들기, 요가, 위파사나 명상, 숲속 명상, 사찰음식체험 등
□ 참 가 비 : 8만원

3 성인 수련회 “찰나에 알아차림과 쉼”
□ 기 간 : 8월 4일 ~ 6일(금, 토, 일)
□ 주요프로그램 : 요가, 위파사나 경행, 좌선, 숲 속 명상, 108염주 꿰기, 스님과의 대화, 사찰음식체험 등
□ 참 가 비 : 10만원

4 요가 및 위파사나 집중수행
□ 기 간 : 매월 셋째주 금, 토, 일) (7월 14 ~ 16일, 8월 18 ~ 20일)
□ 대 상 : 중 · 고생, 성인
□ 프로그램 : 요가 및 위파사나 집중수행
□ 참 가 비 : 9만원

참가문의 : 054-833-6933. www.gounsa.net

“부처님 은혜, 포교로 갚지요”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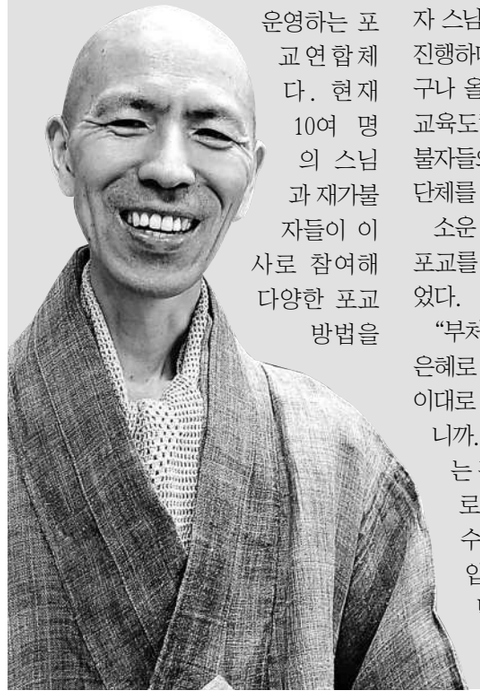
문화공동체 보리마을 운영위원장 소운 스님

150만 인구가 사는 호남 최대의 도시 광주. 하지만 불교세가 크지 않은 이곳은 변변한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조차 없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청소년 법회는 어린이 법회보다도 못한 현실에 처했다. 이로 인해 최근 광주에서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살려야 한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이제 광주불교는 끝이다”라는 자조 섞인 말들에 이어 구체적 행동으로 번지면서 지역불교 발전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음사 주지 소운 스님 〈사진〉이 추진하는 ‘문화공동체 보리마을’이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보리마을은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전문 포교단체를 표방한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운 스님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포교일선에 나섰다”고 소회를 밝혔다.

“불자님들이 오래 전부터 자녀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 법회를 요청해왔습니다. 또 방학 때 불교캠프를 보내고 싶은 젊은 부모들의 바람도 전해 들었죠.”

문화공동체 보리마을은 언뜻 지역문화단체로 착각할 수 있는 이름이지만 ‘깨달음을 위한 곳’이라는 의미의 순수 불교단체다. 현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어린이 포교를 해오는 불교어린이단체 (사)동련 광주지부와 불교청소년단체 파라미타 광주지부를 통합해 운영하는 포교연합체다. 현재 10여 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이사로 참여해 다양한 포교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 · 청소년 불자들의 수련회와 교육, 인성계발 · 포교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역 불교지도자 양성과 역사문화탐방 등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민은 비단 소운 스님만의 것이 아니라 보리마을에 동참하는 이들의 고민이자, 호남불자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하다. 소운 스님은 “향후 어린이 불교합창단을 운영해 합창제 등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소운 스님이 이처럼 포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사찰과 연관이 있다. 2년 전 주지로 취임한 관음사는 한때 광주불교 최고의 포교도량으로 보문유치원과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 거사회 등 많은 신행단체를 운영했던 곳이다. 하지만 1990년대

동련 · 파라미타 연합해
젊은 세대 프로그램 개발
포교 활성화 머리 맞대

말 이후 20년 넘도록 쇠락을 거듭해 방치됐고, 최근 소운 스님으로 인해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있다.

백양사 포교국장 시절 말사인 관음사를 지켜보던 소운 스님은 “산중 사찰도 운영을 하는데 도심 사찰이 정상적인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스님은 관음사로 오게 됐고,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났다. 현재 관음사에는 7명의 소임자 스님들이 역할에 맞게 공동수행을 진행하며 원칙에 입각해 운영한다. 누구나 올 수 있는 대중도량, 체계적인 교육도량(불교대학 · 대학원 운영), 불자들의 다양한 수행처인 불교신행단체를 운영하는 도량이 목표다.

소운 스님에게 당연한 질문이지만 포교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를 물었다.

“부처님 밥값은 해야지요. 부처님 은혜로 살고, 대중의 은혜로 사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관음사는 광주불교를 이끌 수 있는 사찰로, 보리마을은 전국에서 손꼽을 수 있는 포교단체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국사 문화유산 접근성, 한결 높아진다

군산시, 동국사 문화체험시설 · 주차장 조성

국내 유일의 근대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에 문화체험 거점시설과 숙원사업인 주차장이 조성된다.

군산시는 “동국사 앞 주차장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연면적 1,500㎡ 3층 규모의 주차장 및 문화체험시설을 설치한다”고 7월 4일 밝혔다. 동국사 문화체험시설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오는 10월중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동국사는 진입로가 좁고 주차장이 없어 불자들이 신행활동을 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게다가 최근 들어 군산지역 근대문화유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확보했으나 동국사로 직접 진입할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에 설치하게 될 문화체험시설은 3층 규모로 1층과 2층은 5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3층에 문화체험공간과 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동국사 숙원사업이 해결됨으로써 사찰을 찾는 불자와 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시와 동국사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동국사가 포함된 군산시 월명동, 영화동 일대의 근대역사박물관, 고우당, 신흥동 히로쓰 가옥 등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국사를 찾는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동국사가 포함된 월명동, 영화동 일

연면적 1,500㎡ 3층 규모
2018년 하반기 완공 계획
“근대유산 관광활성화 기여”

원 32만7456㎡ 지역에 산재한 건물 1,310여채 중 441동이 건축자산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대건축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관광자원화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돼왔다. 군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수건축자산 가치가 있는 건물 상급 9동과 중상급 55동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경쟁력과 리모델링 보조사업 등 지원 근거를 마련,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훼손과 멸실을 줄이고 특색있는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동국사에 신축 중인 일제강점기 유물전시관이 올 하반기 완공되면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건축자산 진흥구역과 함께 근대건축자산을 바탕으로 한 군산지역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거쳐 주차장과 문화체험시설을 갖추게 될 동국사 전경.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군산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동국사에 문화체험 거점시설과 주차장이 신축되면 동국사를 방문하던 관광객들이 겪은 주차난은 해소하고, 근대문화도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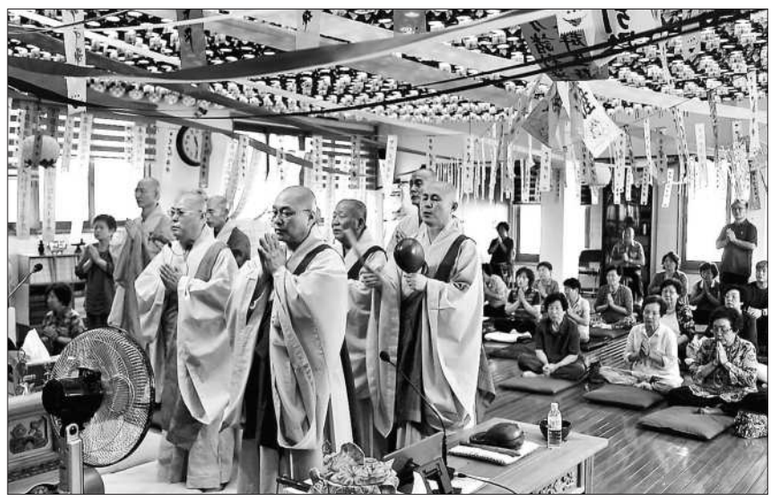
“게송으로 불법홍포 확대되길”

성불사, 〈석가여래행적송〉 영인본 발간 기념 고불식

군산 성불사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28호 〈석가여래행적송〉 영인본 발간을 기념하고, 이를 부처님전에 고했다.

성불사(주지 종명)는 7월 1일 성불사 큰법당에서 〈석가여래행적송〉 영인본 발간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법회와 약사여래불 · 지장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청용사 성진 스님, 금선암 덕산 스님, 백운 스님, 수왕사 종현 스님, 순창 강천사 종고 스님, 영천사 종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 생애를 그린 석가여래행적송 영인본 발간은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같이 살아야 한다는 염원을 담은 불사”라며 “이를 계기로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여한 사부대중이 〈석가여래행적송〉 영인본 발간을 부처님전에 고하고 있다.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은 인사말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불사에 동참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부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석가여래행적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유형문화재 제328호 〈석가여래행적송〉은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유통된 내력 등을 776구 210게송으로 구성한 책이다.

한편 고불법회에 앞서 개금불사 점안법회도 봉행됐으며, 수왕사 주지 종현 스님의 증명으로 점안한 약사여래불은 스리랑카 석가족의 후손이 조성한 불상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비구니도량 신광사 호국영령 추모행사

회주 경주 스님 감사패 받아

광주 최초 비구니도량 신광사(주지 동현)는 6월 29일 대웅전서 ‘제16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천도재’를 개최했다. 신광사 회주 경주 스님, 주지 동현 스님,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 미망인회를 비롯해 300여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추모행사는 호국영령 위패 봉안의식 · 불교의례 · 추모 노래 · 감사패 수여 · 천도의식 등이 진행됐다.

동현 스님은 봉행사에서 “조국 번영의 토대가 된 호국용사들이 보여준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교훈으로 우리의 가슴에 남았다”며 “영령들의 애국심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구 청장은 “호국영령들의 마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주 경주 스님은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지난 15년간 추모행사를 진행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영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자체 USB탑제)	1대
② 입력 450W 대출력 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화를 떠나라, 아만(我慢)을 버려라 모든 속박을 끊으라 헛된 망상과 소유에 집착 없는 이에게 고난은 결코 닥치지 않으리라.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653-5151
무상 합장

명예박사학위
취득할 분
미국령상담. 학과자유
선택. (철학, 문학,
정치학, 대체의학 등)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
070-8844-2030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배워야 산다
사찰,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스님과 법사님 필수조건
명리+귀장술+원인사+조상
찾는법을 단기간에 책임지도
(무료로 배우면서 공양주 하실분 1분)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수바라, 나비춤(작법),
염불,송주북, 정근북, 법고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010-7579-8200
금륜사 대진 합장

석 하 명 리
논리로 푸는 사주 명리학
속성반 (기초부터 통변까지)
명리 진로적성 상담사 1급 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010-2643-5685
부산경남지역 설운 합장

효 림 불 교
모든 불교 용품
철거 및 법당정리
010-7538-3859
010-3403-1078
대표 임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 테라피
(우주기에너지) 1,2,3단계
인상학, 타로, 파동
성명학 모집합니다
010-6284-6172
문자 부터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 바로 상담가능(책임지도)
– 불교 고승비급 전수
– 일반 사주학과는 다름
동국대 불교대학원 졸업 (석사)
010-3936-2295
정광 합장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대불 탱화,개금,석불,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제작
이조불교재활용 센타대표
010-9177-7842

대승불교염불원
(실전염불 완전정복)
• 강의일시 : 2017. 8. 7
(매주 월요일 오후2시-4시)
상담전화 010-5934-1766
경북 청송군 진보면 높은베리길 90 원광사

비구니 부전스님 구함
숙식거주자,
운전가능자, 30~50세,
월 보시금 100만원
(서울 도봉구 청암선원)
010-3382-8625

절에서 청소, 심부름.
일하실 처사,
스님이 될 행자,
공양주 보살님 구함
010-3840-43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산, 60세 이상)
010-3034-2113

부전스님 모십니다.
행자 모집합니다.
제반의식에 능통하신
스님 연락주세요.
(경북 문경)
010-8819-8988

법맥이 궁금하시거나 특수기도법을 찾는 스님은 전화 주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사찰 처사
(운전가능)
모십니다
숙식 필수
(50세 이상, 경기도)
010-5264-8312

포교당 계승자 구함
집주인이 포교당 신도 다양한
협조, 권리금 800만원,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교통편리,
10평방, 욕실, 중방거실
강서구 화곡동
02)2062-4488
본 광고는 8월까지 유효합니다

청정한 제주에서
가족같이 함께 할
기도스님과 **노보살님**
모십니다
비구, 비구니 (60세 이상)
노 보 살 님 (60세 이상)
010-3516-6368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10-3840-435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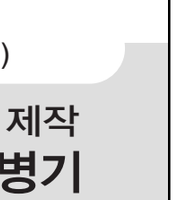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 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54)286-118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비구니 스님 , 보살님 방사 드림
(1인 1거주, 아파트형 25평)
조용한 산사에서 요양하실 분 /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분 /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
양산 통도사 부근
010-4640-4747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개 가장 쉽고 잘 맞는 성명학 강의 강
성명사주학
2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역학 학원으로 명리, 육효 등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는 역학 전문 학원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고 잘 맞는 성명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본 강의를 통하여 이름 속에 감춰진 길흉화복을 통쾌하게 밝혀 드립니다. 이름만으로도 성격, 직업, 가족관계, 신년운세 등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또한 가장 효과적인 개운의 방법!
청록 김건화의 명쾌한 임상 통변으로 본 강의를 들으면 누구나 이름 속에 담긴 운명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에 맞춰 대박 나는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수강대학 : 대박 나는 이름을 갖고자 하는 모든 성인 및 작명가로 진출 희망자
■ 개강일자 : 2017년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 개강 당일 무료 수강 가능, 자세한 사항 전화 문의
韓國傳統科學아카데미
KOREA TRADITIONAL SCIENCES ACADEMY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길 22(신설동 102-36) 화니빌딩 403호
TEL : 02)929-4646 / H·P : 010-2328-0007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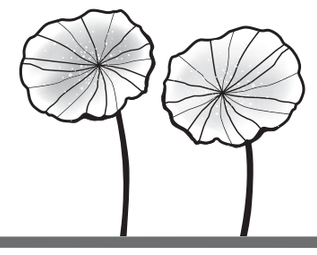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올바른 가르침의 베품도 행복이고 참모임의 화합도 행복이고 화합한 님들의 수행도 행복이다.

- 법구경 -



서울시 사찰 안내

- 서울시 노원구
- 토지 : 210㎡(약70평) • 법당 요사채 마당 주차장 등
- 지하철역 인근 조용하고 살기 편한 사찰
- 가액 : 7억 5천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파주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3층 건물 법당. 요사채. 공양간 • 토지 570㎡
- 마을주변. 교통편리. 뒷편은 산인사찰
- 양도가액 : 3억 2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서울 중랑구 불교용품점 매매 소개합니다.

- 면적 : 60㎡ (20평)
- 보증금 : 1500만원, 월세 90만원
- 물품값 : 6500만원 (오토바이 포함)

가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 (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중심지 ◎ 위치 : 경남 거제
◎ 부지 : 600평 ◎ 면적 : 10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30평,차량진입
◎ 요사 : 100평 ◎ 요사 : 40평,경관수려
◎ 양도가 : 협의 ◎ 양도가 : 10억3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40평, 대지 360평
- 요사채 3동, 산신각, 용왕당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몸만 오셔서 바로 법회가능

010-8384-7754
하루 전 미리 전화 요망

사찰(급)안내

- 진주 부근 사찰 양도
- 토지10,000㎡.단청법당.삼성각.요사2채.주차장
- 산중에 위치한 접근성 좋은사찰
- 안정되고 조용함.기도.포교사찰
- 가액 : 12억원(융자 4억 포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다용도주택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옥천 (다용도 주택)
- 주위편의시설 체육공원, 마트. 관공서, 은행, 전철역,
- 전망 좋음, 대지 257평 건물 40평
- 가액 : 4억 5천 (융자끼고 3억에 입주가능)

010-4234-2536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인천시 남구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남구
-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위치
- 2층 150 ㎡ (약 48평) 방4실,법당,주방,공양간 등
- 가액 : 보 2000만, 월100만 시설비 3000만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사하구 / 대지 : 7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양도액 : 25억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김해 / 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특징 : 대지 약 80평 (종교부지)
- 법당 : 약 26평 (주지실, 삼성각 포함)
- 요사채 : 약 24평 단독종교법인 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626-508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수도권의 위치
- 목조 단청, 전통사찰로써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
-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 가액 : 9억

010-5466-3321

별장같은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일월산 자락 아담한곳
- 현대식 목재건물 후원 30평
- 대지 500평, 밭 500평
- 마당 앞 계곡 흐르고 1급수 자연수
- 법당지을 수 있는 땅이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동림동 새고개 2길 47
- 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3억

010-8551-337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승계가능)

010-6628-82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 주차장 20대이상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방 7칸), 스님친견실 60평
-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2천만원

010-2498-7899

사찰안내 (포교당)

- 위치 : 경북경산시소재 (갓바이 인근)
- 부지:500평(종교용지)
- 법당:35평(목조,단청,2층)
- 요사채: 2동 60평
- 가액: 사억이천만원
- 특징 : 갓바이인근의 조용한사찰로 기도정진할 도량 으로 참 좋습니다.

사찰안내 (포교당)

- 위치 : 포항시 소재
- 부지: 40평(2층 방 두개)
- 보증금:1000만원(월50만원) 시설비:1200만원
- 특징: 도심 번화가에 있으며 시설이완벽하여 곧바로 법회를 볼수있습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3층
- 평수 : 6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010-9459-947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 법당 :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목조 기와 7평(단청,30년됨)
- 요사채: 철재스레트 30평, 방5개, 주방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1억 8천만원(융자 4천만원)

010-3875-6305
041-759-0592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 173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28평
- 가액 : 1억 8천

010-2376-5411
041-557-77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 부지: 145평
- 법당: 요사채 방3개 주방
- 경치 최고 시내 도보2분
- 가액:1억 7천

010-2849-8889

사 찰 안 내

- 위치: 포항(장기면)
- 대지 500평
- 임야 2,000평
- 법당, 요사 그외 건물 3동
- 가액 : 9억 5천

010-4537-5386
(메모 남겨 놓으시면 연락드림)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면적 : 3층 약 40평
- 금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130만원

02)571-919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포항 남구 청림동
- 상가 2층, 80평
- 법당,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시설완비
- 가액: 1억 8천만원

010-2857-2811

울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 30평
- 삼존불 : 아미타불, 관세음, 지방보살, 관음, 지장보살, 소불 60불, 후불탱화, 미타, 관음, 신중, 칠성, 산신
- 현재 법회도량

010-3558-9016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읍
- 부지 약 1,700평 대웅전1, 삼성각1, 부처님 진신사리 있음
- 대형돌탑 높이 9m30, 탑둘레 13m 108돌탑, 요사채2, 정자각1, 심야전기, 보일러, 태양광열설치, 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읍내거리 5분 • 가액: 16억

033-562-044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차량진입 잘되어있음, 큰도로와 1분거리 근접
- 법당 35평(요사, 종무소, 공양간) 60평
- 임야 4천평, 대지 800평 (수목장 하기 좋은 명당)
- 1,300년된 고목나무 소장하고 있음
- 가액 : 15억(조정가능)

010-4602-9661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사오분거리 부득이한 사정으로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 법당 20평, 관음전 종각 요사채 방10개,공양간,창고,외부화장실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대출 7,500안고 2억 3천 5백만원

010-4628-5699

토굴(급)안내

- 위치 : 국유림 산속 깊은곳에
- 대 240평, 건물 20평 도로포장 해발 500 컨테이너 1동
- 지하자연 식수 아주 호조건 암자는 7,500만 최저가

010-8899-8899
010-7621-762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단독 주택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인제동
- 산을 끼고 있는 단독주택
- 방2개,화장실2,샤워실,큰거실
- 포교원 및 스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
- 가액 : 1억 2천. 절충가능

010-7702-6296

사찰(급)안내 및 전세

- 위치 : 산청군 지리산 내 호수가 아름다운 절
- 평수: 275평
- 목조건물2동(법당, 산신각)
- 모든시설 완벽함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5천만원 전세 : 일억원

010-3869-678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 단독 45평
- 깨끗하고 아담한 별장같은 도량
- 높고 넓은 담장은 화분대로 제작 정원화단에 유실수 허비 야채동
- 만나보면 마음편한 노후 안정책
- 저렴한 양도가격 칠천구백만원

010-5458-2955

친환경 삼베타올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당황하지 않는 법 '불교'에 해답 있다

데이비드 미치, 저서 〈바쁜 사람들을 위한 불교〉서 방법 제시

알람이 울리지 않아 지각하거나, 운동 중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거나, 예기치 않게 당겨진 마감일에 업무를 서둘러 마무리 하는 일 등 우리는 생활 속에서 종종 당황스런 순간을 맞이한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불교전문가이자 기업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인 데이비드 미치는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또 그러한 실수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는 법이 불교에 있다고 말한다.

데이비드는 최근 그가 펴낸 저서 〈바쁜 사람들을 위한 불교(Buddhism for Busy People)〉를 통해 마음챙김하는 습관을 가지면 일상에서 실수를 저지를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하루 10분씩만 명상을 한다면 충분한 결과가 나온다"며 "행복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기로 선택한 곳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그가 소개한 '행복한 삶을 위한 4가지 불교적 습관'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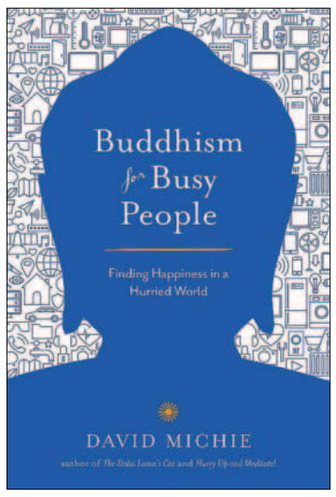
아침에 플러그 빼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침은 그날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뉴스 및 전화 또는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는 습관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특히 침실에서 전자기기를 모두 분리하면 더욱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기운이 넘치고 원기 왕성한 몸을 갖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뿐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도 점점 더 행복해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외치며 믿음을 키운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작은 것들서부터 즐겨라

매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자. 체육관으로 운동하러 가기 위해 짐을 꾸리고, 커피를 타고 운전한다.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한다. 데이비드는 "불자들은 이런 사소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선한 마음을 갖고 마음챙김을 하면서 한다"며 "샤워할 때도, 커피 한 모금 마실 때에도 그 느낌에 집중하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사소한 습관은 통근하는 것조차도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불교전문가이자 기업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인 데이비드 미치는 최근 발간한 저서 〈바쁜 사람들을 위한 불교〉를 통해 마음챙김하는 습관을 가지면 일상에서 실수를 저지를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사진출처= Shambhala Publications

하루 10분 마음챙김으로
실수 · 당황 줄일 수 있어
불쾌한 상황 맞닥뜨려도
행복 나눌 수 있어야 '불자'

동료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것

불교도들도 가끔 불쾌한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당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분별적인 생각이나 판단의 목소리의 볼륨을 최대한 줄여라.

데이비드는 "처음부터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작해 진심 어린 일을 하고, 겉으로는 진심어리고 진심어린 마음씨를 갖고 일을 하도록 노력하라"며 "'모든 생명들은 나와 같이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좋아한다'는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을 새기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복감을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그 행복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회사를 칭찬하는 이메일을 받았다면 전사에 공유하고, 점심시간 맛있고 훌륭한 스무디가게를 발견했다면 다음번에 회사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동료와 함께 가볼 것"을 추천했다.

명상으로 하루를 마감하라

데이비드는 아침에 시작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짧은 명상을 추천했다. 특히 30분 동안 모든 전자 매체를 꺼서 전등을 끄는 것을 권한다. 데이비드는 "이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애완동물들과 놀거나 가족과 함께 양질의 시간을 보내라. 빛을 끄는 것은 또한 여러분이 명상의 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인터넷으로 만나는 '불교 영화제'

라이언스로어, 2017 온라인 불교 영화제 열어
6편 영화 및 샤론 살스버그 등 6개 강연 마련

불교를 주제로 한 6편 영화와 불교 연구자 6명의 강연을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불교 영화제가 열렸다.

온라인 불교 영화제 '2017 Lion's roar & Buddhafest'가 6월 13일~7월 24일 열린다고 불교전문 매거진 '라이언스로어'는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불교의 지혜, 다양성, 예술'을 주제로 6편의 영화와 불교 연구자들의 6개 강연이 마련됐다.

영화는 △A Thousand Mothers(영어, 39분, 다큐멘터리) △Don't Know(영어, 57분, 다큐멘터리) △Tzu Chi: Doing Good in the World(영어·타이완어, 영어자막, 88분, 다큐멘터리) △One Mind(중국어, 영어자막, 78분, 다큐멘터리) △Wanderin(태국어, 영어자막, 120분, 드라마) △Drokpa(티베트어, 영어자막, 79분, 다큐멘터리) 등이다.

강연은 △진정한 사랑:마음 연결의 아름다움(샤론 살스버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반란으로서의 불교(노아 레빈) △현 시대에 자각의 힘과 아름다움 (아니 초잉 돌마, 다와 타친 필립스) △분열을 치유하는 것:다양성, 연민 그리고 상호연결(무심 패트리샤 이케다) △진실성:우리의 핵심적 가치관에 따라 존중하고 살아가기(크리스티안 울프) △감정적인 마음으로 일하는 것: 내면에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법(족첸 폰롭 린포체) 등이 준비됐다.



라이언스로어 홈페이지에 마련된 2017 온라인 불교 영화제 신청란.

티켓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능하며 라이언스로어 기존 구독자는 29달러, 비구독자는 39달러, 10년 정기구독과 티켓을 동시에 구매하면 49달러다. 라이언스로어 홈페이지(https://www.lionsroar.com) 참조.

이지선 수습기자

日 승려 타카미츠 "전 카바디 선수입니다"

푸네리 팔탄 소속 선수 고모 타카미츠
인도 인기 스포츠 카바디 선수로 활약

"승려로서 생활은 내가 카바디(kabaddi)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며, 경기 중 치열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일본 승려이자 인도의 카바디 팀 푸네리 팔탄(Puneri Paltan) 소속 선수로 활동 중인 고모 타카미츠(25) 얘기다. 카바디는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의 하나다.

'인디아익스프레스'는 6월 30일 승려와 카바디 선수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타카미츠를 소개했다.

타카미츠는 몇 년 전 그가 불교를 수학하던 다이쇼대학의 공식 홈페이지서 카바디를 처음 접했다. 경기 영상 한 편을 보게 된 것. 그때부터 타카미츠는 카바디에 빠르게 매료됐다고 한다. 당시 그의 나이 18살이었다.

"나는 영상을 본 직후부터 카바디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훈련 멘토였고,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을 때는 일본 시니어 국가대표 케이준 이토에게 배웠습니다. 그때 배운 스킬은 제 경기 능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이때 카바디는 '팀 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

타카미츠는 프로 카바디 리그의 다방 델리(Dabang Delhi) 팀의 2군 무대에서도 활동한 적이 있다. 또 2016 카바디 월드컵에서 일본팀 중 선발 선수로도 활약했다. 당시 타카미츠는 3.4번의 태클, 19 득점을 기록했다.

현재는 푸네리 팔탄 소속 선수인 그는 팀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특히 가족과 같은 팀원들과 시간이 가장 좋다고. "가족과 다름없습니다. 매일 함께 연습하고, 쉴 때는 함께 맛집을 다니거나 근교 여행을 떠납니다. 모든 선수들이 매우 친절하기 때문에 힘든 훈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타카미츠는 앞으로도 카바디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키워갈 것이라고 말한다.



승려와 카바디 선수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타카미츠(25). 사진출처=인디아익스프레스

타카미츠는 "나의 날카로운 눈빛은 경기 중 도움이 된다. 또한 공격수의 움직임을 빠르게 예상할 수 있어서 수비할 때도 이롭다"면서 "그러나 체중을 늘리고 기술 훈련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에 대해 평가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나이아가라서 느끼는 불교의 정취

캐나다불교연합, 50주년 기념 불교박물관 개관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중심에서 불교박물관이 개관해 눈길을 끈다.

캐나다불교연합은 출범 50주년을 기념해 6월 26일 온타리오 나이아가라 폭포에 불교박물관을 개관했다. 7톤에 달하는 웅장한 황동 불상과 약 20cm 크기의 불상 2200개를 비롯, 중국 · 타이 · 베트남 · 티벳 등의 불교 문화유물들이 소장된다.

캐나다 불교연합은 이번 전시에 대해 "관광객들과 대중들이 박물관에서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불교를 알게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국 서예와 불화가 특별 전시된 6월 20일 박물관 개관식에는 200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박진형 수습기자



나이아가라 폭포에 개관한 불교박물관 전경. 사진출처=henomader.com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늙으니 쉬라?… "막판 뜀박질이 제일 빨라"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⑭



몇 년 전, 72세 노인이 9순 노모를 모실 길이 막연해지자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노인의 아들들은 모두 봉양을 외면하였고, 마땅한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지자 이 같은 길을 택한 것이다. 한편 별다른 직업이 없는 60대 후반의 어느 아버지는 아들의 음주 운전을 나무라다 아들한테 구타를 당하고 분한 나머지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무능한 아버지라는 멸시와 구타로 인해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써 자신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이 두 나이 든 분들이 스스로 죽거나 부모를 살해하였으니 노년의 인생이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을 평가할 때 가끔 '나잇값도 못하는구나' 라고 비난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제 값을 다 못한 것으로 평가할 때 쓴다. 누구나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전 인생의 총체적인 삶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성과가 제일이라고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을 향해 끝없이 앞만 보고 달려간다. 분명 생명이든 일이든 끝이 있음을 알 텐데 나이 들어도 한계를 의식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은 인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이 깨어있지 못하여 삶의 가치를 놓치고 달려만 간다면 나이가 들고 물질적, 사회적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많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

우리는 나이 든 성인을 '어른' 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그들을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책임지는 계층' 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빅토르 프랭클(Victor Frankl)은 그의 나이 86세에 스스로 자신의 '노년' 에 대해 이렇게 인터뷰했다.

"늙어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발버둥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어쩌면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물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속도도 떨어지지만 그러한 것들은 어느 것이나 그동안 몇 십 년에 걸쳐서 얻은 인생의 경험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나 인생의 무상함은 내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으며, 부서진 것도 없다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우리가 해온 것, 우리가 이룩한 것, 우리가 만들어온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사랑한 사람, 우리가 받아온 고통조차도 이것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프랭클의 인터뷰가 갖는 의미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 는 것이며, 살아온 과정에서 이룩한 어떠한 것도 훼손되지 않으니 나이 듦에 대해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의연해야 함을 말해준다. 요컨대 프랭클은 인간은 생물학적 사실, 심리학적 사실, 사회학적 사실에서 독립하여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격적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한 것이다.

100세를 넘긴 일본의 시인 시바타 도요(1911~2013)는 '노년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 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줬다. 92세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시바타 할머니의 시 1편을 소개한다.

나이 아흔을 넘기며 맞는 하루하루 너무 사랑스러워/ 뺨을 어루만지는 바람, 친구에게 걸려온 안부 전화, 집까지 찾아와주는 사람들/ 제각각 모두 나에게 살아갈 힘을 선물하네 -살아갈 힘-

시에서 노래하듯 친구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살아가는 힘' 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시인은 100세를 넘기면서까지 긍정적 삶의 에너지가 넘쳐있음을 볼 수 있으며, 소녀처럼 아주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 이제는 80을 넘어 90을 사는 시대이다. 게다가 기대 수명은 100세를 넘는다. 아마도 젊은 시절, 생계를 책임지느라 바빠서 하지 못한 일을 마저 하고 가려는 마음이 자신의 기대수명을 연장한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장수(長壽)는 재앙이 아니라 기쁘고 놀라운 축복인 것이 확실하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주변에서 "늙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시지요"라고 말하자 이렇게 반문했다고 한다. "만일 내가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한다면 결승점에 가까이 가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온힘을 다해 질주하는 것이 좋겠소?" 얼마나 박력 있는 대답인가!

> "
> **'어른' 은 부양 대상 아닌**
> **책임 다하는 계층 뜻해**
> **"쉬라"는 말 듣지 않도록**
> **이웃·사회 위해 친절을**
> "

심리 사회학자 에릭슨은 인간의 심리사회발달을 8단계로 나누고, 마지막 단계의 과제로 '자아통합(ego integrity)' 을 이루는 시기로 제시했다. 나이로 보면 65세 이후의 시기가 된다. 이 시기는 한 개인의 인생을 회고해 볼 때 '지혜' 라는 특성이 생겨날 때다. 지혜는 의미부여와 자비를 포함한다. 지혜는 죽음 앞에서도 현실을 직면했을 때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디오게네스의 말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결승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초연한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큰 바위 얼굴' 같은 어른으로

아무리 나이 듦에 대한 예찬을 하더라도 나이 드는 것은 실제요 현상이다. 필자에게는 나이 들면서 갖게 되는 걱정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몸에 대한 걱정이다. 몸의 지구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느껴진다. 서너 시간씩 걸어도 끄떡없던 몸이 한두 시간만 걸어도 힘에 벅차다. 김을 맬 때나 풀을 벨 때, 심지어는 가만히 앉아서 글 쓰는 일을 할 때도 오래 견디지 못한다. 오름을 가거나 산에 가는 모임에서는 차츰 빠지게 된다.

두 번째는 마음에 대한 걱정이다. 인생에서 50년 가까이 가르치며 살다 보니 가르치는 일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때때로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게 되는데, 한 말을 또 하거나 '무슨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말을 하려고 하면 잊어버려서 당황할 때가 있다.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그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걱정이다. 몸과 마음이 이러하니 관계관리가 더 걱정이다. 강의를 요청받아도 걱정이요, 강의 요청이 없어도 걱정이다. 요청을 받으면 잘 해야 하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까봐 걱정이요, 요청을 받지 않으면 내 자신의 존재가 이미 쓸모가 없어진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이다. 다행히도 글 쓰는 일은 쓴 글을 보고 또 보니 전체적인 맥락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이러한 걱정은 나 자신의 몸과 마음,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은 '세월 이겨내는 장사' 없듯이 자연현상이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자연현상을 초월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격이다.

필자는 어린 시절 나다니엘 호오손의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 을 읽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마음먹었다. 주인공 어니스트도 어린 시절 어머니의 영향으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했다. 성장 과정에서 만나는 막대한 부자, 높은 사회적 지위보다 지속적 자기성찰이 그의 위대한 가치를 높여 주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성숙한 모습을 가진 성인이나 성현을 삶의 모델로 정해 놓고 성찰하며 살아간다면 신체나 인지적인 걱정 없이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어른' 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어떤 어른은 조용하고 말을 아끼며, 어떤 어른은 거칠고 도발적이다. 또 어떤 어른은 너무나 평범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은 찾기 어렵다. 진정한 '어른' 은 오랫동안 명상과 같은 자신을 알기 위한 수행을 통해 인간의식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깨달음의 원천을 기꺼이 나눈다.

'어른' 을 만나는 사람들은 진리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진실을 찾아가게 된다. 마치 '큰 바위 얼굴' 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듯이 말이다. 그러나 '어른' 은 자신의 사랑, 진리, 현존을 그의 삶에서 구현하고 있느냐가 신뢰의 판단 기준이 된다. 진정한 '어른' 의 원천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다.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상징적 대상을 모델로 삼기도 하지만 나이가 증가하는 것에 반비례하는 글귀를 거울로 삼는 것도 성찰의 한 방법이다. 필자가 인도 리쉬케쉬의 한 아슈람에 들렀을 때 실내 벽에 쓰인 'eat a little, drink a little, talk a little, sleep a little' 이라는 문구를 보고 '이 문구처럼 살아야겠다' 고 마음먹은 뒤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수행처에 쓰인 문구이니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이지만 왠지 마치 내가 지켜야 할 계율처럼 다가왔던 것이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절제하는 습관, 다스리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을 통해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니라 비어있는 마음, 밝은 의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나이 든 어른들의 몫이다. 나이 든 분들은 누구나 '늙었으니 쉬세요'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회향선원의 회향

회향선원(회향복지원)에서
평생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입주하시고 평생 거주가 가능하며
3년째 퇴실을 원하시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1층 : 12평 1억 (3人 까지 거주 가능)
• 2층 : 9평 5천 (2人 까지 거주 가능)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

봉 천장사 1,000일 지장기도 안내 행

천년도량 천장사에서는 1,000일 지장기도
참회대법회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 입 제 일 : 7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제천 천장사 대웅보전
■ 동 참 비 : 100일 기준 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532-6151-2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천장사)

※ 천장사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트로 5분거리)



주지 오명 합장

충북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3739-30 천장사
H·P 010-5960-208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대행 스님

모두 모형이 다르고 생김도 다르지만 생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운데도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새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상하게도 그 한마디의 에너지를 같이하면서 행하는 도리에 마음을 두시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신 걸 생각할 때, 부처님들께서 고행하시면서 공부하신 그 진리를 여러분이 실천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반드시 진실하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체제불의 한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입을 빌려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 자체,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는 걸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위로는 모든 물에 비친 달을 그 물에 담아서 한 줄에 쥐고, 아래로는 바다의 모든 생물을 그물에 담아서 한 손에 쥐고 여러분에게 같이 응해서 나투는 도리이기 때문에 그냥 쉽사리 생각해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계의 이 모두를 물질계로 연결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계로만 치닫고 마음이 방황하다가는 정신계에 통신이 되질 않기 때문에 끄달리는 게 많고 걸리는 게 많고 애고에서, 병고에서, 영계성에서, 유전성에서, 인과성에서 모두 헤어나질 못하고 쩔쩔매고 돌아가게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두 듣고 관찰하고 상세히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발전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아갈수록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바라밀'이라고 한다면 '무주상'이 나오죠. 무주상이라는 그 자체가 한마디의 말이지만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등공법에 의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상 공덕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천차만별 가지각색으로 수많은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 바다로 비유한다면 바닷물 자체, 그 테두리 자체를 바로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주상'이라는 것은 바다의 물이 그냥 그대로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주는 그 자체의 테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 즉 일체 모든 사무 사유의 에너지를 전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서 한생각 낸다 하는 것은 보살의 경륜으로서, 즉 한마음의 무심, 무심주 공덕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마음을 안 내면 그냥 그 테두리의 에너지이고 마음을 낸다면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내려서 쓰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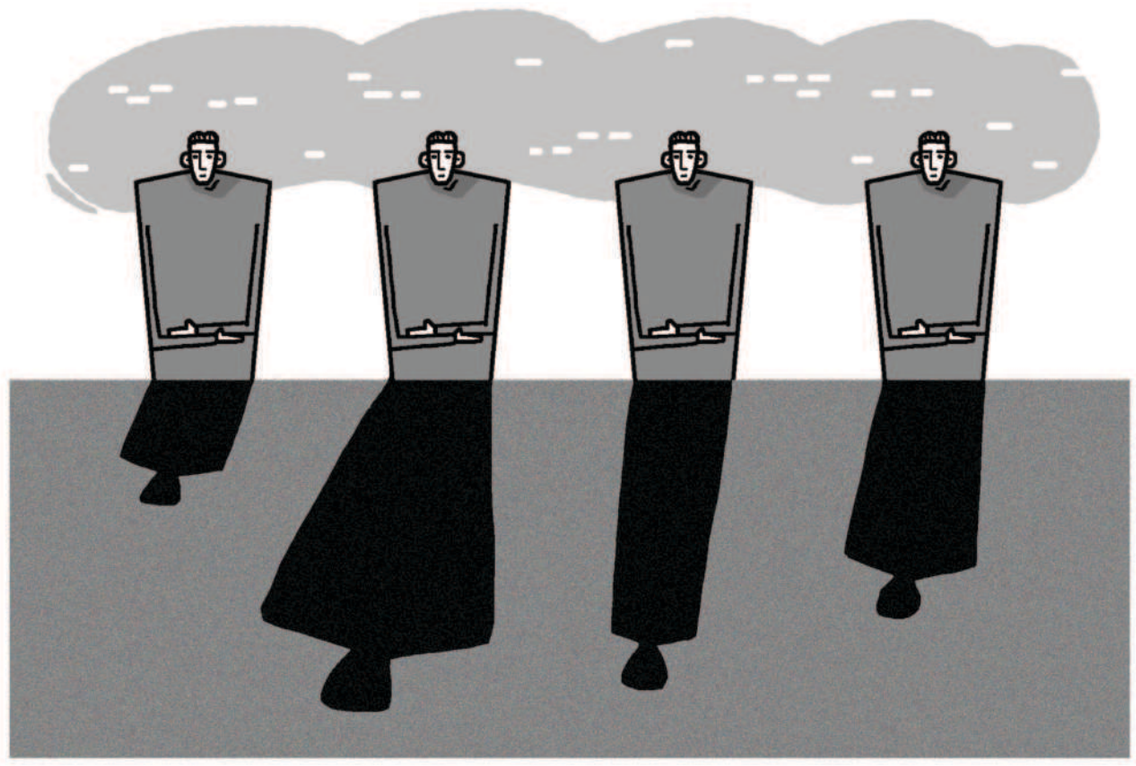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부처요, 생각을 냈을 때는 법신이요, 몸을 움죽거렸을 때는 화신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응용하면서 생활하고 가는 데 그 세 가지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이름이 붙어도 그대로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 가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상 공덕행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큰데도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이치에서 큰 덩어리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다면 또 무심주 공덕행, 이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 아니게 쓰는 것을 무심이라고 그럽니다. 물질계로만 치닫거나 정신계로만 치달으면 한 다리 없는 병신, 한 눈 없는 애꾸, 한 귀 없는 귀머거리라 이 소립니다. 그래서 물질계와 정신계 양면을 다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만이 법행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주 공덕행은 그 큰 덩어리의 에너지를 끌어 쓰는, 즉 말하자면 병이 들었으면 약사로 화해서 그 에너지를 끌어 내려서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보살행입니다. 병에도 그렇지만 각각의 종류를 다 용도에 따라서 화해서 나투는 겁니다. 지금 현 세상에서 의학을 배운 의사는 병자만 고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분야든지 다 행하는 보살의 행입니다. 즉 말하자면 의학이라든가 천체물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전체 분야를 한 손에, 한 줄에 쥐고서 용도에 따라서 다 무심행을 하는, 그 도리를 행하는 공덕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행을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내서 종류별로 화하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병자가 오면 약사가 돼 주고…, 약사가 돼 주는 데는 그 위에서 에너지를 끌어 내려서 약사가 돼야 되겠죠. 에너지가 없으면 약사의 심부름을 못하니까 위로는 에너지를 끌어 내리고 아래로는 바로 중생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공덕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가 오면 어떠한 병을 막론하고, 즉 말하자면 속에서 일어나는 병 증세는 항상 과거로부터 온 것인데, 그대로 과거로 찰나에 들면서 무명을 벗겨 주는 겁니다. 인과, 유전성, 영계성을, 과거에 있는 걸 모두 지워 주기 때문에 이 현실의 병이 낫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병을 낫게 하면 바로 약사가 된 것입니다. 보살이 바로 약사로 화해서 응해 주고 그렇게 나투었다가 또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는 관세음이 되는 겁니다. 또 명이 짧은 사람이 왔을 때는 바로 칠성 부처님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분야를 쥐고 있으니까요. 이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바로 모든 분야를 쥔 보살은 여러분이 오면 오는 대로 그렇게 대치해 내는 겁니다. 어떤 분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여러분이 용도에 따라서 가지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늠름하고 여여하게 그 보살들은 대치해 내는 겁니다. 모든 분야를 쥐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데로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장으로 화해서 나투어 주고 하는 무진장보살입니다. 무진장보살은 무심 공덕행으로써 여러분을 대하기 때문에 위로는 에너지의 줄을 잡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들의 줄을 잡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리고 공덕법행은 바로 무주상에 한데 붙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공부하는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둘로 보지 않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생명이야 둘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생명이야 둘이겠느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곤충이라도 밟으면 꿈틀하고 아파서 애쓰고,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보다 아주 낮은 동물이더라도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물에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고, 불에도 마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바람에도 있고 공기에도 있고 어느 곳이든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대무변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유생 무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나 보이는 생명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넓게만 보지 말고 좁혀서 내 한 몸을 봐 보세요. 내 몸 하나를 본다면 내 몸 하나에 그 만 중생들이, 여러분이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이 세상에 출현했던 그 가지각색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저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화해서 나투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말입니다. 지금 이 육신 속을 보면 둥글고 한일자처럼 길고 삼각형이고, 이렇게 모두 모형이 다르고 생김도 다르지만 생명은 하나입니다. 생명은 하나! 생명은 하나로 전체가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생명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 전체를 한번 보시고 생명체들이 잔뜩 들어 있는 이 몸뚱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몸뚱이 속에서도 위로는 우주와 직결이 돼 있는데, 그 뜻은 전체 우주의 에너지와 전체 공덕법행과 모든 무심도리에 행하게 되는 그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한 법의 에너지를 바로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선장이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나쁘고 좋고 이런 걸 잘 압니다. 왜? 수억겁 광년을 거쳐 나오면서 화해서 진화되고 돌아왔으니까요. 자꾸자꾸 다른 모습으로 진화를 시키면서 이날까지, 사람까지 올려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의 선장은 이름이고, 그 선장이 돌아가면서

☞ A18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苦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계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여러분의 마음이 일체제불의 마음과 일치가 돼 있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움죽거리고 행하는 것은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이런 겁니다.

주인공은 수억겁 광년을 거쳐 왔기 때문에 그 모두를 알고 있고 한 찰나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 의식들은 나쁘고 좋고 이런 거를 도저히 모릅니다. 애꾸눈, 한 다리 병신, 귀머거리입니다. 그러나 의식으로, 감각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된 것처럼 입력이 돼서 현실에 그대로 그 의식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들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은 모두 공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한 자체 이 몸뚱이 속에서…. 여러분, 그냥 지나치듯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있는 말을 하는 거지 없는 말을 끄집어내서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 속에서 의식들이 감각을 통해서 좋고 나쁜 거를 모르고 그냥 나오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속지 말고 마음의 선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그 의식들은 악업 선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좋게도 나올 수 있지만 언짢게도 나옵니다. 애고의 문제, 병고의 문제, 유전성의 문제, 영계성의 문제, 인과성의 문제, 업보성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의식들입니다. 그런 의식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대비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오는 모든 것에 속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를 마음의 선장 주인공에다가 모두 맡기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선장은 안의 모든 중생, 자생중생들을 제도하고 다스리니까 모든 걸 거기다가 맡겨라 이 소립니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대중 예!

큰스님 한마디 더 하겠는데, 몸속에 들어 있는 악업 선업의 의식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한도 내에서 인연이 돼서 바로 내 몸이 생성됩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 마음의 주인이, 그걸 영혼의 뿌리라고 합니다. 나를 형성시키는 데는 바로 여자 남자의 정자 난자가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뿌리가 정자 난자를 빌려서 영혼과 더불어 삼합이 한데 합쳐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이 인연에 따라서 모두 몸뚱이 속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 속에 짊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이 눈 애꾸고 다리병신이고 귀머거리고 그렇지만 네 마음의 근본은 바로 부처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근본과 자생중생들이 도반이 돼서 같이 있는데, 그 마음의 선장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자생중생의 항복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과거에 살던 자기한테 현실에 사는 내가 자꾸 코치를 하는 겁니다. '이 중생들을, 과거에 인연 됐던 중생들을 당신만이 다 이끌어 줄 수 있고 바로 깨닫게 할 수 있고 하나로 돌아가게 할 수 있고, 모든 게 한마음이 돼서 조금도 어김없이 발전하고 대치하게끔 당신만이 할 수 있다. 당신 몸을 당신만이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당신이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도 있다. 모든 걸 당신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고 대치를 해서 놓는 겁니다. 즉 선장을 세워 놓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중심을 세워 놓듯이 그 마음의 선장을 세워 놓고, 현실의 자기가 과거의 자기를 세워 놓고선 자생중생들, 그 업식, 악업 선업들을 다 거기에다 챙겨서 다스려서 둘 아니게 함으로써 밝은 참자기가 튀어나옵니다. 현실의 자기와 과거의 자기가 둘 아니게 바로 상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속세에 살면서 이렇게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천하고 변천하면서 좀 더 발전해야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둘 아니게 이끌어 가고 둘 아니게 행할 수 있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고 또는 모든 부족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림살이 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 섭류에 있어서도 모자라는 걸 채울 수 있고, 잘하는 건 덜어서 모자라는 데다가 채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 이 세상의 주인이 돼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 내 몸 하나 끌고 가기도 힘들어서야 어찌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줄을 잡겠습니까?

그러니 팔만대장경이 다른 게 팔만대장경이 아닙니다. 천지를 삼키고 이 세상을 삼켜서 그 줄을 잡고서 각양각색, 유의 세계 무의 세계 모든 생명들을 다 이끌어 가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일체제불의 마음과 일치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선장이 즉 부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생명들의 의식은 바로 중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생들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의 선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에 사는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참자기의 마음의 선장에게 모든 걸 일임시키고 마음을 굴려 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정물은 바로 맑은 물로 대치해서 생수로 쓰세요. 이거 보십시오. 바다와 같이 큰 마음은 빗물, 똥물, 핏물, 고름물 어떠한 물이든 모든 각종의 그 더러운 물을 다, 바다로 들어오는 것마다 맑은 물로 만듭니다. 그거를 배척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서, 오는 것 막지 않고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라앉혀서 씁니다. 그런데 가라앉는 거는 버리는 거냐. 그것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아래위로 평등하게 공법을 써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데에 역점을 둔 부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 마음의 선장의 그 뜻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뜻은 높고 내 뜻은 낮다는 생각도 말고, 낮다 높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한마음의 주인공을 잡고, 마음의 선장 주인공을 잡고 '모든 것은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고 너만이 위에서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베풀어 줄 수 있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모든 것을 맡겨서 굴려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행입니다, 공덕법행!

말을 하다 보니까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허허…,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팥죽은 팥죽 그릇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거니까요. 팥죽 방울이 수효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팥죽 솥에 있는 팥죽 방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각종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옳고 저게 옳다' 아무리 탓을 해도 바로 우리는 이 지구의, 지구가 만약에 팥죽 솥이라면 팥죽 솥에 있는 팥죽 방울입니다. 그런데 그 팥죽 방울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팥죽 방울이 돼서 지구라는 팥죽 솥이 어디로 지금 돌아다니는지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옳으니 내가 잘났느니 아만 아상을 가지고, 그저 굴러가는 돌인데도…, 돌도 내 스승인 줄을 모릅니다. 일체 만물만생을 다 내 스승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거를, 기쁜 것도 보고 좀 궂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니까 좋은 거를 가려낼 수 있는 거지, 나쁜 게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였다면 진짜 좋은 거를 가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서부터 열까지,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내 스승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고 내가 혼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안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바로 집합소라고 내가 항상 말을 하죠. 이 몸뚱이는 집합소입니다. 생명들이 살고 있는 집합소! 그 집합소 안에서 '나뭐 좀 다오.' 그러면 심부름해야 돼요. 목마르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물 갖다가 대령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또 배고프다고 하면 밥 먹여야지, '맛있는 것 좀 다오.' 그러면 맛있는 것 줘야지, 덥다고 그러면 부채질해 줘야지, 안에서 화기가 치밀면 부채질해 줘야 하고 시원하게 해 줘야지, 자고 싶다고 하면 재워 줘야지. 이게 심부름꾼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나가서 떼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관리인 혼자 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이 몸뚱이 속에서 움죽거려 주지 않는다면 몸뚱이 관리인은 죽습니다. 돈을 벌긴 뭘 법니까? 한쪽만 움죽거려 주지 않아도, 작용을 안 해 줘도 그냥 기울어져서 쓰러지는데 무슨 돈을 법니까? 그런데도 자기 혼자 벌었다는 겁니다, 네? 자기 혼자 벌었대요. 그리고 자기 혼자 먹었대요. 그리고 자기 혼자 똥 누었다고 그러고 자기 혼자…, 이거는 뭐든지 자기가 혼자 했대요. 그러니 아만이 높고 내가 있다는 아상이 그냥 제멋대로 생기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 내 몸뚱이도 내 몸뚱이가 아니라 '너희들의 몸뚱이' 입니다. 너희들의 몸뚱이요 바로…, 내가 이런 말 하는 걸 잘 들으세요.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면서 공용이면서 공식화하고 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가? 공식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혼자 먹었어요? 혼자 벌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위로는 먹고 아래로는 싸고 하는 것이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공용입니다. 공심으로 공용을 하고 지금 공식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우주 덩어리라고 볼 수도 있죠. 조그마한 별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도리를 안다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찰나찰나 나투면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며, 전부 직결된 도리를 알고 전부 같이 돌아가는 도리를 알고 모든 걸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뜻을 여러분한테 지금 현실의 용어로 현실에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목탁이나 치고 염불이나 하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지 마세요. 불교라는 건 이 세상 어느 분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한 평등공법에 의해서 무의 세계 유의 세계가 같이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이름이 불교예요.

여러분! 우리 몸뚱이 속에도 여러분이 한 생각 내면 바로 소뇌와 대뇌가 한데 합쳐서 중뇌로 들어서 중뇌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통신이 되면 바로 사대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사대로 통신이 돼서, 우리가 같이 한마음으로 통신이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도 또 마음과 마음이 같이 이어서 돌아가고, 전달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와 저 나무도 둘이 사랑을 하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람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통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우주의 섭류가 다 그러하거늘…. 모든 게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고 통신이 돼서 돌아가는 그 자체, 무의 세계 유의 세계가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교! 교화하는 교! 그렇기 때문에 불(佛)이라는 것은, 일체 우주의 근본 자체와 더불어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돌 하나의 생명도 바로 불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건 바로 불바퀴에 속합니다. 그래서 각색 각종의 불바퀴는 그대로 여여하게 우리에게 연결되면서 바로 직결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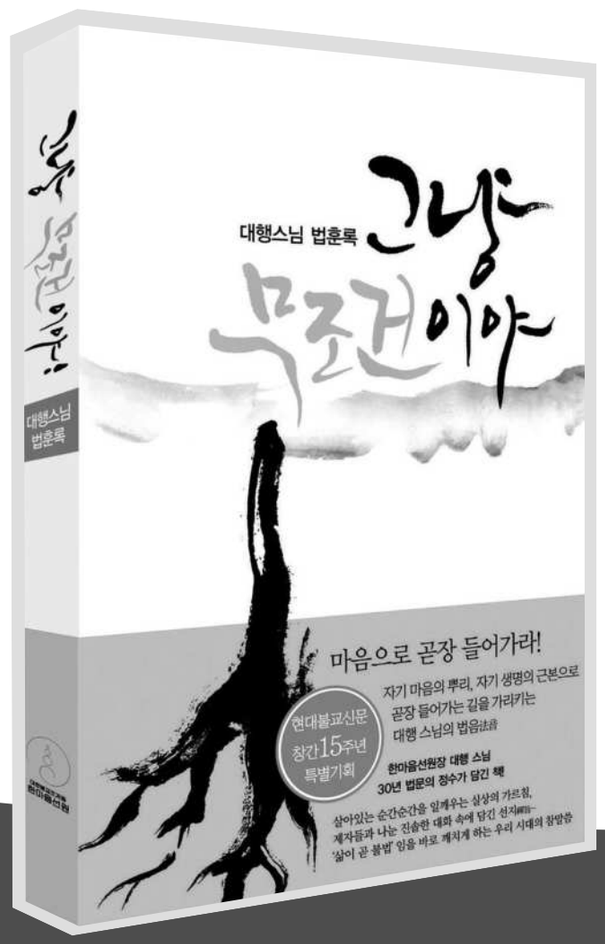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외성도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멀게 생각하면 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마음의 선장하고 현실의 당신네들하고 통할 수 있는가, 진짜로 믿고 진짜로 거기에 일임해서 통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연결되는 걸 알고, 직결되는 걸 알고, 직결돼서 돌아가는 걸 알고, 위에서 에너지를 끌어 내려서 쓸 수 있는 도리를 알고 바로 밑으로는 모두 제도할 수 있는 자유자재권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7월 17일 광명선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위로 평등하게 공법을 써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데에 역점을 둔 부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 마음의 선장의 그 뜻과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불자 세상보기 |

甲·乙 아닌 '同·幸' 관계를



성태용
前 건국대 철학과 교수

'갑질' 강자가 약자에게 행한 횡포
약자가 불평·비굴 머무는 것 '을질'
'갑·을질' 만연하면 사회엔 희망 無

대형 프랜차이즈 등 만연한 갑질들
사회·경제 정의 추락하고 있는 증거
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미담
아직 한국사회엔 희망있음 보여줘

너와 내가 있어 세상이 움직인다는
상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살아가자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 내가 살 세상을 그려 본다면, 내가 그 세상의 어떤 곳, 어떤 위상을 가지고 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살고픈 세상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아니 꼭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할까?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물음들을 던질 줄 알아야 우리의 이상적인 미래를 이루는 힘이 형성될 수 있다.

전혀 그러한 의식이 없이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만 생각이 머물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불평과 원망만을 늘어놓고, 유리하고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누리는 것이 하늘이 부여한 것인 양 나댄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끝없이 양극화로 치닫는 비극적인 미래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전체적인 반성이 없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연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갑을관계에서의 갑질, 을질이다. 을질이라는 말이 성립하느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지향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역시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무조건 불평과 분노에만 휩싸여 있다던가, 자존감을 잃고 비굴한 태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을질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강자의 횡포이기 쉽다. 많은 경우에 약자는 힘이 없기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힘들고, 강자의 횡포에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관심과 보호 속에 있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러한 이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우려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이 요즈음 들어 많이 보도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갑질 사태만 하더라도 과연 이 사회에 경제적 정의가 어디까지 실추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따듯한 소식도 있다. 얼마 전 서울 석관동 코오롱아파트의 70대 주민이 아파트 경비초소에 에어컨 5대를 기부한 일, 작은 일이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크다. 최근 돌아가신 부인을 기리며,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경비원 동생들이 고마워서"라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갑과 을이 아니다. 경비원 동생들이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단지 그분 한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아파트의 용역계약서는 쌍방을 갑, 을이 아닌 동(同), 행(幸)으로 기재한다고 한다. 그런 전체적인 바탕 위에 그분의 따듯한 마음이 꽃핀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지향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신분계급과 서열을 완전히 벗어난 사회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지배하는 사회야말로 가장 극악한 사회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런 사회는 바로 갑질이 만연하고, 을 또한 앞에서 말한 을질에 머물러 함께 사는 사회를 그려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위치에 있던, 각각이 모두 사회의 공동 목표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깨져 모든 것을 서열화하며, 유리한 위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천부적인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고 착각하면? 그것이 극악한 갑질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을질(?)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양극화의 종말은 뚝 부러져나가는 역사인 것이다. 그러한 역사야말로 너에게도 나에게도 비극이다.

당신과 나는 귀천이 없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며, 어느 누구도 없으면 우리 세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상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社說

한국불교를 위한 불편한 충고

지난 6월 30일 통도사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여름워크숍에서는 불편하지만 새겨들어야 할 논문이 발표됐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이날 워크숍에서 한국불교 승단의 '파승(破僧)' 원인을 분석·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을 내놨다. 그가 분석한 한국불교 갈등 원인은 승단 내 경제적 불평등과 선거 제도, 문중 중심 문화, 정치 계파였다.

평등한 분배를 모토로 한 승단에 사유가 발생하고, 이는 스님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 시킨다. 실제 스님과 사찰 간 양극화 현상은 최근 3~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다. "시주물은 욕망과 집착의 대상이 됐고, 평등해야 하는 승가에서는 불평등이 생겨났다"는 조 교수의 지적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적절하다.

함께 제기된 선거- 문중·계파로 이어지는 종권 창출 순환에 대한 비판도 귀기울일 부분이다. 다수결과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는 '문중·계파 안배' 인사를 통해 소수와 반대편을 철저하게 소외시킨다. 직선제든 간선제든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 제도와 이를 바탕으로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문중·계파가 존재한다면 한국불교 내부의 파열음은 잦아들지 않는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학자의 비판이 일부분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한 번은 되짚고 공론화해야 할 문제이다.

'탈종교화' 현상은 기실 제도 종교의 이탈을 의미한다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수행과 명상이 대중화, 산업화 되면서 나온 현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종교가 세속화되며 자신의 역할을 못한 점도 한 가지 원인이 될 것이다. 결국, 이 불편한 충고는 다시 불교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되짚자는 화두이다.

염불만일회 염불결사 20년에 부쳐

원효 스님은 〈아미타경소〉에서 염불수행에 대해 "입으로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면 즉시 삼계를 벗어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물며, 아미타부처님을 찬탄하여 읊조리며, 극락의 불보살님과 장엄을 관하는 수행은 어떻겠는가"라고 평가했다.

염불은 파자를 해보면 그 뜻이 명쾌히 나온다. '염'(念)은 '이제 금(今)' 자와 '마음 심(心)' 자로 지금 이 자리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금 마음에 집중해 부처가 되는 수행인 것이다. 많은 대중들이 쉽게 현재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이기에, 불교가 타락하거나 쇠퇴했을 때마다 염불수행을 통한 쇄신결사는 있어왔다.

수많은 염불수행결사 중 전국염불만일회가 20년째 진행하는 염불결사가 눈길을 끄는 것은 단순히 활발한 정진 행보 때문만이 아니다. 현재 불교계가 처한 위기 상황 속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기 때문이다.

전국염불만일회는 100일마다 모여 염불철야정진을 연다. 그 염불 방법도 불교계에서는 드문 방식이다.

매회 대회마다 3~500명의 인원이 꾸준히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불교는 변화해야 한다. 법회에 가면 지루한 의식, 지루한 법문에 실망하는 불자들이 많다. 매회 똑같은 법회에 매번 참가하는 어르신 불자들만 법당을 지킨다.

이제는 대중들이 신명나고, 감동받는 의식, 법회가 진행돼야 한다.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불교 의식의 길이 바로 전국염불만일회의 염불수행 속에 보인다. 전국염불만일회의 끊임없는 수행정진이 불교의 또 다른 변화를 이끌길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우리는 독사(毒蛇)를 보았다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1995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攻殼機動隊: Ghost in the shell)'는 오래된 철학적 물음을 진중하게 던지는 명작 중 하나다. 재미와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 '나'란 존재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육체와 정신은 어떤 관계인가 등 많은 사유를 이끌어낸다.

작품의 배경은 2029년, 신체는 기계로 얼마든지 대체가능하고 인간들의 두뇌는 전자화 되었다. 이를 하여 전뇌화(電腦化). 그런데 이 전자두뇌는 비유하자면 머릿속에 소형 컴퓨터 단말기가 들어 있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지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로서 상상하기 그리 어렵지 않은 시나리오.

그렇다면 정보화시대의 어두운 단면, 어떤 뛰어난 해커가 사람들의 전자두뇌를 헤집고 다니며 다른 사람의 기억을 나에게 주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몸과 외모는 어제의 나와 똑같다고 해도 과연 나는 '나'일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새로 이식된 기억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작품에는 결혼 후 사랑하는 딸을 둔 평범한 미화원인 한 남자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의 기억은 해킹되어 이식된 가짜임이 밝혀진다. 결국 그는 모두 만들어진 가짜 기억이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지만, 굵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다. 한여름 밤의 꿈처럼, 어차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임을 알았는데 그는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보는 등 감각기관을 통해 신체 바깥의 어떤 대상을 인식한다. 그리고 그 대상이 틀림없이 내가 느낀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향기 등을 가졌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과연 그럴까?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독사와 마주친다면 누구나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것이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심장은 쿵쾅쿵쾅 뛸 것이고, 뱀을 몹시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날이 밝은 다음날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을 지나면서 지난 밤 내가 본 것이 새끼줄이었음을 알게 된다면 그간의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짐은 물론, 그 상황이 황당해 너털웃음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본 것은 실제 독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그것을 '독사'로 그렸다. 그로 인해 내 마음에 공포가 자리 잡고, 그에 따라 내 몸과 마음은 영향을 받아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즉 바깥의 대상이 새끼줄이었던 사실과는 달리, 나 혼자 그려놓은 독사라는 이미지는 매우 실체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곧 매우 리얼(real)한 현실이 되었다. 독사는 없었지만 말이다.

그래서 불교는 말한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기쁨, 분노, 슬픔, 공포 등의 감정은 분명히 우리 바깥의 어떤 대상을 인식한 결과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가 인식한 그 대상이 정말 분노와 공포를 느끼고 기쁨을 유발하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의 세상을 반영한 결과물이 맞는지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의 '독사'를 없애고 나면 나를 웃고 울리던 것들에 초탈한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거라 가르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삶의 무한 지혜, 香향이 세상에 나왔다!!
화제의 신간



허공천(虛空天)
향운계(香雲界)에서
향수(香水)의 비가 내려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가 향수대해(香水大海)를 이룬다.

향1권 기품, 승화, 사유, 이성(理性)의 향기
향2권 지혜, 정신, 마음, 지성(知性)의 향기
향3권 생명, 차(茶), 초월, 꽃잎의 향기를 담았다.

박명숙(德慧林)저 / 향 1권 336쪽 / 향 2권 328쪽 / 향 3권 320쪽 / 정가 각 23,000원

완전한 지혜의 세계, 密밀이 세상에 나왔다!!



최상 깨달음 지혜 과정이 이보다 더 상세할 수는 없다.

5, 6, 7, 8, 9식(識) 전변 깨달음세계와 완전한 깨달음 6종각(六種覺)인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十覺) 성불 과정의 경계와 지혜의 길을 상세히 완전히 밝혔다.
밀법 태장계와 금강계, 옴마니반메훔, 광명진언 등의 실상세계를 자세히 밝혔다.

박명숙(德慧林)저
밀1권 500쪽 / 밀2권 584쪽 / 정가 각 35,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그림 족자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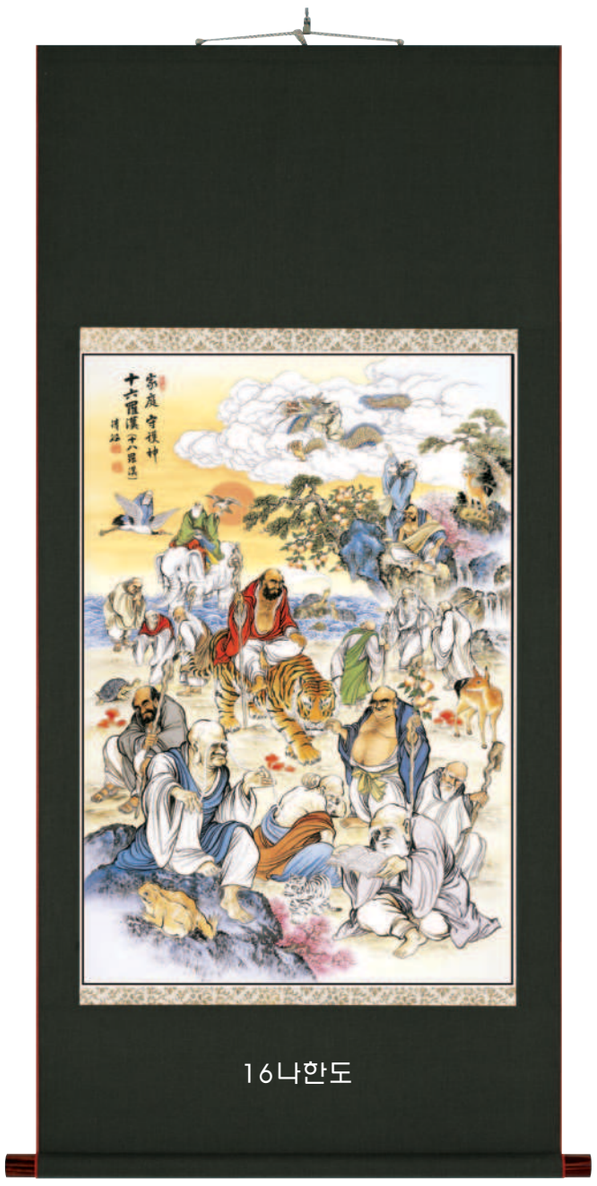
16나한도(18나한) 달마도 족자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16나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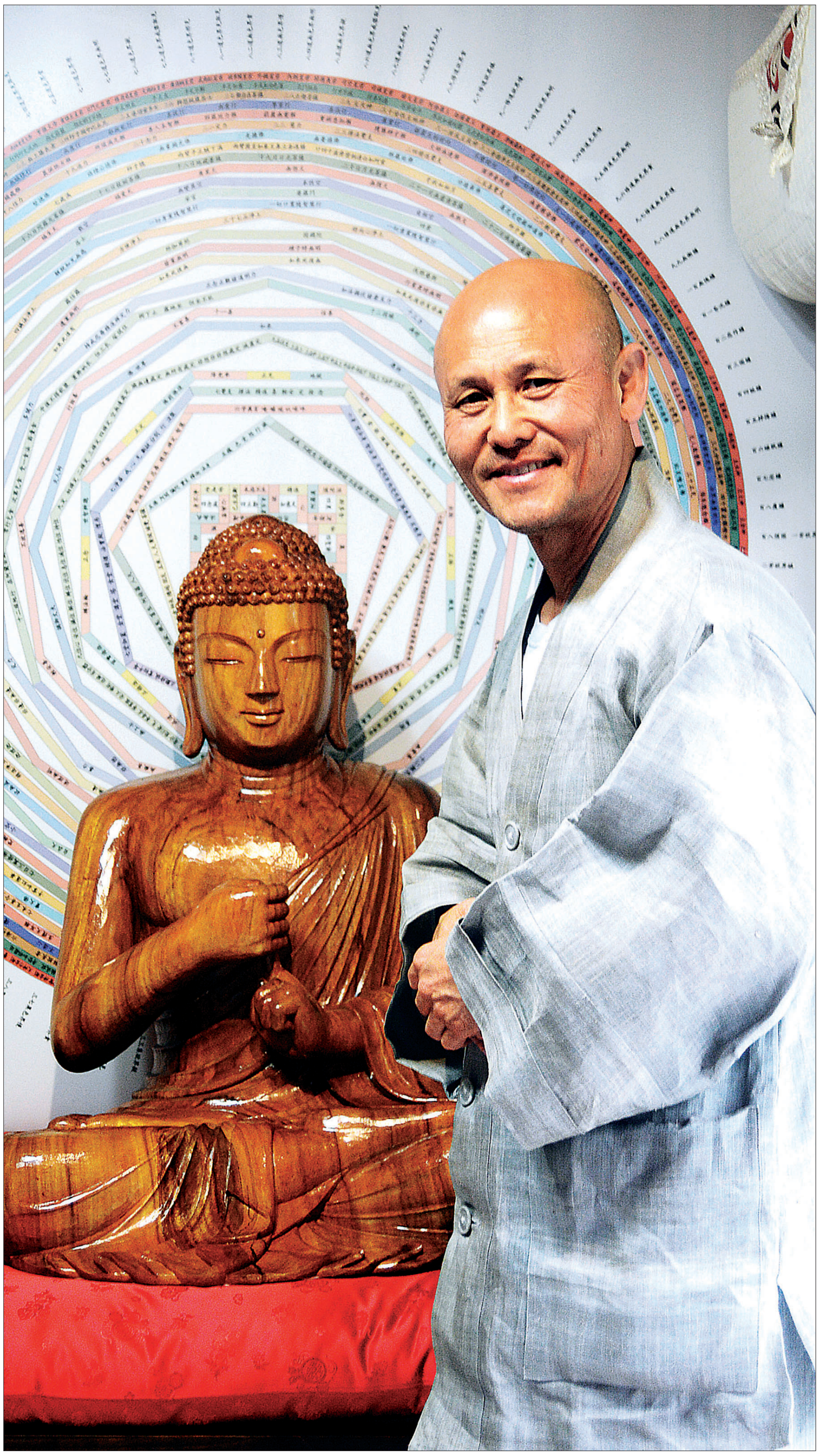


달마도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3, 010-6701-7709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제주 성보 지킴이 일등공신… “문화재는 국격 상징”



원각회 쌍계암 본조불 목조 비로자나불상은 제주의 상징인 녹나무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불상이다. 인간문화재 목아 박찬수 선생에 의해 조성됐고, 개금이 아닌 전통 방식의 제주산 황칠로 18회 도복하여 금색을 낸 것이 특징이다. 이 비로자나불상은 제주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잘 보여주고 예술성도 뛰어나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다. 사진은 불상 옆에 서 있는 윤봉택 서귀포불교대학장. 재가불자지만 일상속에서 계를 철저히 지키며 살고 싶은 발원을 담아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대는 자비보살

윤봉택
(61 · 서귀포불교대학장)



불교문화재 지정과 보존 앞장
1992년부터 23년간 향토사료 연구
선덕사 등 문화유산 지정에 역할
지정문화재 148건 보수정비 추진
2012년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

무오법정사 항일 항쟁 발굴 진력
강창규 스님 후손 찾아 서훈 상신
국가보훈처 심사결과 상훈 결정
위령재,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 출발
“호국도량으로 뿌리 내리게 노력”

“김연일 영가, 강창규 영가, 방동화 영가, 김삼만 영가….”

1918년 무오년(戊午年), 3.1운동보다 5개월 앞서 불교계가 주도한 제주도 최초 항일운동인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주역들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99년 만에 불교계 후손들인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5호 제주불교의식 예능보유자 구암 스님 등에 의해 천도재가 봉행된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 법공양을 받은 항일운동 주역 스님들의 감회는 남달랐을 터.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위령재는 1995년부터 봉행됐지만 당시는 ‘보천교 · 태을교의 난’이라 폄하됐다. 게다가 불교계 주도 운동이었다는 성격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이전이라 중문청년회의소 주관 아래 유교식 위령재로 봉행돼 왔다. 이 같은 여건 때문에 제주불교계는 지난 5월 ‘2017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문화재청 후원을 받아 불교식으로 위령재를 올린 것이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지난 1992년 재판기록이 발굴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불교계 승려들의 주도로 지역주민 7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항쟁이었다는 사실이 학자들에 의해 서서히 밝혀졌다. 그 중심에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을 세상에 알린 윤봉택(61) 서귀포불교대학장이 있다.

승려 주도 항일운동 세상에 알려

윤 학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1970년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출가, 강원서 배운 전문지식이 빛을 발하며 많은 불교 유적들이 그의 손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다. 윤 학장은 10여 년 뒤 환속해 고향인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다가 1992년 7월 서귀포시 향토사료 전임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로지 문화재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만 23년 3개월이다. 그는 2015년 12월 퇴임전까지 제주도 불교문화재의 중장기 보호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며, 불교문화재 지정과 보존 · 전승 활용에 큰 업적을 남겼다.

국가지정문화재 37건, 등록문화재 14건, 도지정문화재 97건 등 지정문화재 148건의 보존 활용을 위한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관내 비지정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 서귀포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를 제정, 체계적인 향토유산 보호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한민국문화유산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이는 문화유산분야 최고의 상이다. 이밖에도 유명문화재 유산인 법화사지, 존자암지 복원 발굴을 비롯해 약천, 남국선원 등 전통사찰 지정과 선덕사, 봉림사 등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런 윤 학장이 공직생활 동안 가장 남다른 애정을 쏟은 것이 바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의 발굴이었다.

“법정사 항일항쟁이 햇볕을 보게 된 계기는 1991년 제주향토사학자 故김봉옥 선생이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법정사 무오의거 재판기록을 찾아 저에게 전해주신 일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정리해 공표한 게 바로 제주의 호국불교 이미지를 전국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죠. 그동안 법정사 항일항쟁은 ‘보천교의 난’ 등으로 폄하됐는데, 다양한 학술토론회 등 갖은 노력 끝에 스님들이 주도한 대규모 항쟁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이후 법정사는 1996년부터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위패 봉안소와 위령탑 · 전시실 등을 골자로 한 사업이 확정되고, 2002년 8월 진입로 공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2003년 11월 ‘제주도문화재 기념물 제61-1호’로 지정됐다.

윤 학장의 공직생활 가운데 가장 큰 쾌거는 1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리무중이었던 법정사 항일항쟁의 주역 강창규 스님 후손을 찾아내 서훈을 상신하게 된 일이다.

“강창규 스님 후손을 찾기 위해 그동안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로 알려진 스님의 자취를 좇아 사계리 인근 지역의 강(姜) 씨를 일일이 만나고 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상심하고 있다가 제주불교사연구회로부터 1951년 7월 20일 작성된 강창규 스님의 이력서와 제주시 오등동이 본적이라는 단서를 제공받아 추적한 끝에 전남 해남에 거주하고 있는 강창규 스님의 후손인 손녀 강인숙 씨를 찾게 됐고, 국가보훈처의 심사결과 상훈이 결정됐는데 그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토록 연구에 매진해온 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서일까. 윤 학장은 위령재 등 불교계가 추모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곱씹어 주문했다. 그는 “불교계가 봉행하는 위령재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조국 독립에 헌신한 애국 승려들의 넋을 추모하고, 호국도량으로 전 국민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만의 불교문화 애정을

윤 학장은 1980년 8월 10여 년간 수행한 해인사 일주문을 나서며 다짐한 게 있다. 해인사 강원시절 성철 스님이 내려준 ‘똥막대기’ 간시궐(幹屎厥) 화두를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음주를 하지 않고, 훗날 인연이 닿으면 공부를 계속해야겠다는 서원도 세웠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B4 출판 〈영혼의 연금술 치유예술을 만나다〉
B5 문화 BTN불교라디오 신규 프로


2014년 공직을 마무리한 윤 학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미련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법정사 항일항쟁 발상지 인근인 쌍계암에 자리를 잡았다.



(사)서귀포불교문화원 창립 8주년 기념법회서 발제자로 나선 윤봉택 학장.



윤봉택 학장이 서귀포불교대학원 입학식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무오법정사 항쟁 발굴… 제주 호국불교 각인

서귀포 불교대학 5대학장 취임

서귀포 불교대학원 개설 첫 사업
2년과정에 논문도 발표해야 졸업
올 37기 신입생 중 80%가 젊은층
절반 남성 불자… 거사불교 초석

윤봉택 서귀포불교대학장

B1면에서 계속

2014년 공직을 마무리한 윤 학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미련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앉았다. 바로 법정사 항일항쟁 발상지 인근의 쌍계암이다. 현재 쌍계암에는 제주도지정유형문화재 31호 〈쌍계암묘법연화경〉이 봉안돼 있다. 윤 학장은 이곳에 제주서 자란 나무로 불상을 조성하겠다고 발원했다. 이후 제주도 상징목인 녹나무에 번쩍 눈이 뜨였고, 2014년 명인 조각장인 유영민 선생에게 녹나무 조각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녹나무는 잡신들이 범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향과 나무의 성분 때문에 벌레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또한 제주도는 부처님의 제자 발타라존자께서 불법을 전한 불국토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서 생산된 나무로 조성된 불상이 없고, 대부분 육지에서 모시고 오거나 최근에는 외국서 조성해오는 실정입니다."

윤 학장은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인간문화재에 불상 조성을 맡겼다. 그러면서 해인사 팔만대장경각 법보전 비로자나좌불상을 모태로 하되 똑같지 않도록 변화를 준 불상을 부탁했다. 이후 조성된 불상에 금박을 처리하지 않고 서귀포 관내서 생산된 황칠나무 황칠액으로 금옷을 입혔다. 그렇게 제주의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잘 보여주고 예술성도 뛰어나 문화재로서 가치 높은 비로자나불상이 올해 3월 제주불자들 곁에 나투었다.

이 같이 지역특색을 반영한 불상을 조성한 윤 학장은 목판 판각에도 관심이 커 이와 관련된 체험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쌍계암과 법정사 광장서는 산사문화재 체험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경(印經) 방법으로 광명진언을 목판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이는 참가자들에게 큰 환희심을 안겨주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 2007년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인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윤 학장은 고려시대 당시 제주서도 불경을 목판 판각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해인사에 보관돼 있는 '재조대장경판'이 주조된 후 45년이 지난 1296년(충렬왕 22) 제주 묘련사서 '금강명경문구(金光明經文句)'가 판각됐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탐라국이 몽고 침탈을 항거하기 위해 호국삼부경의 하나인 〈금광명경〉을 불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묘련사가 단순한 사찰로 방치되다시피 해 불교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존자암이 탐라국 시대의 불교성지라면, 묘련사는 고려시대 원의 지배 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원을 물리치고자 했던 당시 탐라인들의 항몽의지가 담긴 성지입니다."

이 때문에 윤 학장은 묘련사를 제주사회의 인쇄문화를 선도했던 과학기술의 보고라고 설명했다. 고려시대 묘련사서 '금광명경문구'가 판각된 이래 721년 만에 쌍계암서 다시 광명진언을 써내는 것은 제주의 인쇄문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윤 학장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재가불자 교육을 더 깊게

한때 출가를 경험한 불교학자이자 문화재 전문위원, 시인이기도 한 윤 학장은 지난해 3월 서귀포불교대학 제5대 학장으로 추대됐다. 사실 서귀포불교대학은 윤 학장 취임 이전 동문회의 성추문 사건이 번져 도내 최고의 불교대학이라는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나락으로 떨어진 이미지를 다시 살리고자 구원투수로 윤 학장을 추대한 셈이다. 윤 학장은 취임 후 현재 불교대학 모습이 불교답지 않은 행동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서귀포불교대학원'을 개설해 공부하는 불교대학의 초석을 깔았다. 2년 과정의 대학원은 기본적인 스님이 행할 수 있는 과정을 배우면서도 졸업 시 논문까지 발표하는 까다로운 학사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서귀포불교대학의 운영 프로그램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바르게 수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불교대학 수강생 연령층이 50~70대임을 감안하면 논문 쓰기란 쉽지 않겠죠. 하지만 논문집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지도법사 스님이 감수를 받아 발표한다면 당위성과 함께 교육의 질도 높아지리라 봅니다."

윤 학장의 노력은 점차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 입학한 37기 신입생 중 80%가 40~50대로 젊은 불자들이 증가했고, 입학생 가운데는 절반이 남성불자여서 '여성종교'라는 구시대적 이미지를 벗고 있다. 윤 학장은 서귀포가 불교 문화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사적으로 보면 서귀포는 제주도 최초 불교 전래지인 존자암이 있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입니다. 서귀포불교는 이처럼 과거 탄탄한 불교신앙의 관점에서 시작된 정토불교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양분을 바탕으로 서귀포불교대학이 건립됐고, 서귀포불교문화원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귀포를 포함한 제주가 한국불교서 갖는 위상이 높다고 강조한 윤 학장은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는 데 불자들이 뜻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4년 불교문화재 소장 사찰 지원과 관련해 제주도정에서는 문화재 사찰로부터 의견이나 자문도 없이 불교문화재 관련 지침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불교계서 2015년 1월 29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지침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지침 내용이 대폭 수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즉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윤 학장은 침묵하는 자비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봤다. 윤 학장의 외관은 마치 부처님 고행상을 닮았다. 눈두덩이는 움푹 패었고, 손과 팔은 뼈에 피부가 달라붙은 것처럼 앙상하다. 단식을 통해 몸을 비우면서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고, 마음까지 맑혔기 때문이다. 이 또한 해인사 출가 인연으로 단식을 방편 삼아 '참 나'를 바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단식이 수행의 밑받침이 된다는 점을 몸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상업무는 물론 내 몸과 마음까지 평온하니 이게 바로 일거양득입니다. '배고픈 것을 어떻게 견딜까'라는 공포심에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식은 진정한 행복으로의 여행입니다."

강원시절 큰스님이 '콩나물 대가리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와 닿는다는 윤 학장. 쌀 한 톨, 물 한 모금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그는 술과 담배, 육식을 멀리하는 것은 물론 단식으로 계 · 정 · 혜를 닦는 참 불자의 표상이다.

제주=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

윤봉택은?

1956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서 태어나, 1971년 15살 해인사 강원에 입교(해인사 방장 고암 스님 시봉)해 최연소로 졸업했다. 1980년 환속해 고향서 유기농 농사를 지으며 '보리수 학생회'를 지도하는 등 불교 활동을 지속했다. 1992년 서귀포시 향토사료 전임연구원으로 시작해 문화재 전임 연구원으로 오로지 문화재만 바라보며, 2015년 12월 퇴임전까지 제주도 불교문화재의 중장기 보호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며, 불교문화재 지정 및 보존과 전승 활용에 큰 업적을 남겼다. 지난 2012년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을 수상했다.

또한 1991년 '문예사조'를 통해 등단해 '농부에게도 그리움이 있다' 등의 시집을 펴냈고, 2010년 서귀포문인협회 회장, 2010년 서귀포시청반야불자회장에 이어 2015년부터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서귀포지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2016년 서귀포불교대학? 대학원 학장 소임과 대한불교 원각회 쌍계암 토굴을 2009년 창립, 2017년 3월 본존불로 목조비로자나불상을 조성, 봉안했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⑭ 정토종 제7조 성상대사(省常大師)

출·재가 천여 명과 염불결사

"성상대사는 한 번 소리 내어 염불할 때마다 입에서 광명이 나왔다. 행주좌와(行住坐臥)에 심지(心地)를 북돋우며 극기(克己)하기를, 낮이나 밤이나 중단하지 않았다. 우연히 병이라도 만나면 문득 무상(無常)을 떠올리고 일심으로 죽음을 기다리며 왕생극락을 구하였다. -〈참운법사집(懺雲法師集)〉

광명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마음

선도 대사와 소강 대사는 염불할 때마다 입에서 화신불이 출현하고, 성상(省常: 959-1020) 대사는 염불할 때마다 입에서 광명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러한 화신불과 광명은 신심이 아주 깊거나 염불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반인들이 천지에 가득한 부처님의 광명을 볼 수 없고, 또 부처님의 진실한 공덕을 체득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두 우리의 업장이 깊고 무겁기 때문이다. 그 중에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장애이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혜와 실상(實相: 우주와 인생의 진실한 모습)에 대해 완전히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경전과 조사스님들이 베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만약 깊이 믿고서 의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염불한다면 누구나 상응(相應)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윤회 벗어나는 극락행 티켓 예매하라

부처님의 광명은 원만하여 어떠한 광도에도 모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없다고 말한다. 중생과 부처의 인연이 깊으면 한 생에 제도될 수 있지만, 인연이 얕은 사람은 보다 깊게 하도록 도와준다. 아예 인연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데, 우연히 한마디의 아미타불을 듣게 되면 인연이 맺어지게 된다. 우리는 금생에 다행히 불법을 만났으니 부처님과 인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윤회를 벗어나는 특별법문인 정토법문까지 접했으니, 가장 수승한 인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깊어진 불연을 근거로 이번 생에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믿음(信)과 발원(願)과 명호 수지(持名)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정토종 제7조 성상 대사의 삶과 수행을 공부하면서 삼계를 벗어나 정토에 화생하는 극락행 티켓을 예매해 보자.



〈승가 불조도영〉 中 성상 대사 진영

천태지관 닦다가 정토수행으로 전향

〈정토성현록〉 등에 따르면, 성상 스님은 송나라 절강성 항주(杭州) 땅에 계시던 스님이시다. 성은 안씨며 자(字)는 조미(造微), 전당(錢塘) 사람으로 7세에 출가하여 17세에 구족계를 받으셨다. 의지가 견고하여 계행(戒行)을 철저히 지키고 〈대승기신론〉에 통달하였으며, 천태지관(天台止觀)을 위주로 수행하였다.

송나라 태종 순화(淳化: 990년) 때에 항주 서호(西湖)의 소경사(昭慶寺)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경학(經學)을 익히던 중, 여산(廬山) 혜원(慧遠) 법사의 정토문(淨土文)을 보고 크게 발심하셨다. 성불하기 위해서는 염불법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확신하고 불철주야 전수염불(專修淨業)에 매진하였다.

백련결사 본받아 정행사(淨行社) 결성

그 후 스님은 소경사에서 정토종 초조 혜원 법사의 역사상 첫 염불수행결사인 '백련결사'를 본받아 '백련사(白蓮社)'를 결성했다. 얼마 뒤 백련사를 '정행사(淨行社)'로 개명한 스님은 서방정토 왕생을 발원하는 염불행자들을 모아 전적으로 정토수행을 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지도했다. 이때 결사의 명칭을 '정행사'로 바꾼 것은 〈화엄경〉 '정행품(淨行品)'의 종지를 따른 것이었다.

'정행품'은 〈화엄경〉의 십신(十信)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 및 십지(十地) 가운데 십신위(十信位)의 수행단계에서 실천하는 청정한 수행을 강조한다. 이 품의 요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생기는 일에 따라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수행자를 성장시키는 원력을 세우는 내용이다. 여기서 정토행자의 '원력'은 서방정토에 왕생하여 성불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보리심'을 담고 있는데, 보리심을 일으키면 번뇌를 지닌 채 보살이 된다. 이른바 대심범부(大心凡夫: 큰마음의 범부)로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정토수행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성상 스님의 원력이었으리라.

재상 왕단 등 천여 명 모여 전수염불

범부가 업을 짊어진 채로 극락에 왕생하여 횡으로 삼계를 벗어난다는 '대업왕생 횡초삼계(帶業往生 橫超三界)'의 새로운 가르침을 접한 많은 구도자들이 속속 '정행사'에 모여들자, 대중이 순식간에 천여 명이나 모였다. 그 중에는 스님이 80여 명, 재상 왕단(王旦: 文正公)을 상수로 한 세속의 이름 높은 거사들이 120여 명이나 되었으며, 그 나머지는 신심이 지극한 일반 신도들이었다. 그 옛날 여산 백련사가 다시 재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염불결사 명칭 '정행사'
〈화엄경〉 사상이 근간
사경 보급 등 정토포교

원효 대사는 〈아미타경소〉에서, 범부가 곧바로 삼계고해를 벗어나 무상보리에 퇴전(退轉)함이 없는 지위를 얻는 것에 정토법문의 종취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크나큰 의도는 바로 이 믿기 어려운 정토법문을 연설하시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셨다. 〈대승기신론〉에 따르면, 불생불멸인 법성의 이치를 요해하고 자심에 갖춘 법신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10주위(10住位: 수행계위 52위 중 42위부터 32위까지)의 지위에 오르려면 이 예토(穢土)의 초신(初信)의 지위에서부터 무려 1만겁동안 퇴전 없이 수행하여 10신(信)을 원만히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 이 예토에서 생사를 거듭하면서 의식의 진화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성불의 지름길 안내하는 구원의 메시지

영명연수 선사는, 이러한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삼계에서 몸을 받고 버릴 때 겪는 고통과 충격으로 인해 그동안 수행해서 확보한 견처와 경계를 잃어버리거나 자신의 근본서원을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했다. 이러한 법문을 살펴볼 때, 모든 구도자를 쉽고 빠르고 성불케 하겠다는 아미타부처님의 본원(本願)과 서방정토에 대한 믿음 · 왕생발원 · 염불행 만으로 임종과 동시에 업을 지닌 채 정토에 화생하여 불퇴전지 보살이 된다는 정토법문은 구도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나 다름없었으리라.

염불 · 절하며 화엄경 혈서 사경

특히, 성상 스님의 신심은 그 누구도 따를 수가 없을만큼 깊었다.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며 후래 중생들을 위하는 뜻에서 〈화엄경〉 '정행품'을 사경하는데, 당신 몸의 피를 내어서 그 피로 '정행품'을 다 썼다. 사경할 때에는 언제나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새 옷으로 갈아 입고 향을 사루고는 지성껏 예배 드린 후 시작했다. 정중히 꿇어앉아서 경문을 쓰시되 글자 한 자 한 자마다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합장하며 세 번씩 돌고 나서는 '아미타불'을 세 번씩 염하고 나서 온 정성을 다해 썼다.

스님은 경전 사경과 더불어 법보시와 불상 조성을 통한 정토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이셨다. 사재를 들여 경을 천 권 찍어서 천 사람에게 나눠주며 발심해서 염불을 하게끔 권장했으며, 귀한 전단 향나무를 구해 지극한 성심(誠心)으로 아미타여래의 불상을 조성했다. 스님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저와 대중이 오늘부터 보리심을 발하여 미래제가 다할 때까지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 보신(報身)이 수명을 다할 때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하소서."라는 발원을 하였다. 그리고는 서방정토의 교주이신 무량수불을 지성껏 받드시되 매일 세 번 예배공양 올리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봉행하며 염불수행에 전력을 다했다.

아미타불 접인 받고 왕생하다

송나라 진종(眞宗) 천희(天禧) 4년(1020) 정월 12일이었다. 그날은 목욕재계 하시고 새 옷을 갈아 입고는 고요히 앉아 염불하시더니 문득 말씀하시기를, "아미타부처님께서 왕림(枉臨)하시었도다" 하시고는 공손히 예배 드리고는 이 세상을 떠났다. 그 순간 온 대지가 황금색으로 찬란하게 빛났다. 이를 본 대중은 슬픔과 환희심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스님의 세수는 62세였다. 스님의 전신(全身)은 영은산(靈隱山) 조과(鳥 窠) 선사의 탑묘 옆에 모셔졌다. 세간에서는 그를 '전당 백련사주'(錢塘白蓮社主)라고 불렀으며, 소경원정법사(昭慶圓淨法師)란 법호로 칭하기도 했다. 그는 훗날 연종(蓮宗: 정토종)의 제7조로 추대된다.

진여본성의 무량한 광명이 '아미타불'

우익 대사는 〈불설아미타경요해〉에서 "아미타불의 광명과 수명과 명호는 본래 중생을 근본으로 하여 건립한 것임을 응당 알아야 한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함으로써 명호를 수지한 사람으로 하여금 광명과 수명이 부처와 다름이 없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석가세존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미타불의 무량한 광명과 수명을 철저하게 증득한 진심 · 본성을 자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아미타불'이란 이름을 지어 부르게 했다는 법문이다. '아미타불'은 바로 진여본성의 무량한 광명과 수명의 명칭인 것이다. 무량수불 · 무량광불 · 아미타불은 모두 진여본성의 명칭이기에, 진여일심을 떠나면 명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치를 아는 불자라면 선(禪)과 염불이 둘이 아닌 차원에서 자부심을 갖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들이 하는 염불을 십지보살도 늘 놓치지 않고 있다는 법문을 기억하며, 자나 깨나 '나무아미타불'로 일향전념(一向專念)하시기를 발원한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7.5~2017.7.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2017년 개정판)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3	불교란무엇인가(초심자가 던지는 질문)	이중표	불광출판사
4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5	꽃도꽃피우기위해애를쓴다	정목	수오서재
6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7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8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문화적 '원시예술'은?

자연과 교감한 원시적 감수성 반영 일종의 힐링과 치유 예술





영혼의 연금술 치유예술을 만나다

힐링아티스트 타라 지음
그린타라 북스 펴냄
1만 9천원

"문화가 벌거벗은 태초의 '원시'에서 영감을 받을 때가 왔다. 이 '원시'는 순수의 음향을 간직한 자연과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문화적 원시 예술은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의 얼을 느낀 고대 원시적 감수성이 반영된 일종의 치유예술이었다"

지신, 목신, 수신, 지구 어머니 등 모두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싶어하는 힐링아티스트 타라가 자신의 힐링예술세계를 선보이는 시화 작품집을 펴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 책의 모든 작품, 시, 통찰의 첫 실마리는 모두 영감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작업과 집필 과정마다 명상으로 내면을 조율한 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단상으로 완성시켜 나갔다"고 설명한다.

2년에 한 번 꼴로 개인전을 열며 오로지 작품에만 몰두한 저자는 20년이란 긴 세월을 칩거하며 순수 열정과 창조의 샘을 내면서 발견한 후,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순수와 진실을 회복시켜주는 치유예술 작가로 돌아와 이번 책을 통해 독자와 만났다.

힐링 예술 세계 가득한 시화 작품집
드로잉, 천연염색, 바느질 등 시도 다양

저자는 글과 작품을 통해 삶의 모든 답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려주고, 내면으로 들어가 내 안의 나를 만나, 깨어나는 삶,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혼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책 속에 들어 있는 작품들을 켠켠히 감상해 보면 작가가 얼마나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했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 결 닥종이 제작, 하트 페이퍼 드로잉, 천연염색, 바느질, 지승, 수공예, 옻칠염색, 입체라인 실험 등등. 특히 쪽 염색은 자연과 교감하며 유기농법으로 키워낸 쪽 풀로 염료를 만들어 결 닥종이에 염색을 정착시켰다. 모두가 손이 몇배로 가는 친환경적인 작업 방식으로 물성(物性) 체험을 부지런히 쌓아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책에 실린 작품 하나 하나를 완성하는데는 짧게 4~5년, 길게는 20년 정도가 걸렸다고 작가는 고백한다. 그래서 작품 한 점 한 점이 저자 영혼의 메시지가 됐다고 덧붙인다.

즉 글 하나 하나 마다 모두 내면을 조율 한 후 영감과 명상으로 완성시켰다니, 이 책을 접하는 독자의 영혼이 치유되고 진화되는 힐링 에너지를 만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책 속에 소개된 제목처럼 매일의 반복된 일상서 녹을 걷어내고 싶다면 천천히 책장을 넘기면서 작품들과 곳곳에 조각된 시의 편린들을 통찰해 보자. 책 속에 면면히 흐르는 치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재 미국 불교는?… 탈전통, 탈종교, 사회참여, 일상생활의 수행으로 정착



미국불교

리처드 휴지스 시거 지음
장은화 옮김
운주사 펴냄
3만원

다종교 · 다문화 사회인 미국서 활기차게 발전하는 미국 불교의 역사와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미국 불교에 대한 종합적 안내서이다. 특히 다양한 종교 전통, 즉 각국의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불교 종파들의 정착 및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불교는 아시아서 발생했고, 당연히 아시아 사람들이 신봉하는 종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현대자본주의의 첨병을 달리는 미국서 불교가 기독교, 유대교와 함께 미국 최대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급성장 한다는 점이다. 또한 유럽국가에서도 불교 신자들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토인비는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동양의 불교가 서양에 유입된 일"을 들었다. 특히 미국은 19세기 말 처음으로 불교가 소개된 이후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며 발전해오고 있다. 이는 근래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 10위권 목록에 불교 관련 서적이 빠진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로 반증된다. 이 책은 미국의 종교를 전공한 저자가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미국 불교의 개략적인 역사와 미국 내서 성장한 주요 불교종파들과 그들의 전통, 그리고 미국 불교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전체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제 1부 '종교사적 배경'에서는 아시아와 미국의 종교사와 관련된 배경을 다루었다. 먼저 미국 불교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이어서 전체 불교사에서 핵심적인 사상과 역사적 발전을 간략히 서술했다. 그리고 미국에 불교가 전래된 초기에 일어난 주요 발전상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서, 과거 미국의 종교사에서 이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고찰했다.

이어 제 2부인 '주요 불교 전통'은 이 책의 핵심이며, 여섯 가지 유형의 불교를 선정한 후 각 유형이 미국에 소개될 때 작용한 독특한 세력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근대 일본 불교사와 관련된 배경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는데, 그중 정토진종과 선종, 그리고 창가학회가 이민자들의 역동성을 통해서 미국 종교 체계의 일부가 된 과정을 자세히 기술했다.

미국 불교의 역사와 특징 체계적 정리
이민자 중심으로 한 불교 정착과정 고찰

또한 아시아의 다른 여러 전통서 나타난 발전상을 선별해서 고찰하고, 미국 내의 티베트 불교의 도입과 특징, 미국 대중문화와의 연계성을 고찰했다.

마지막 제 3부 '선별된 쟁점들'에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세 가지의 중요한 발전상을 고찰함으로써 불교의 미국화를 보다 더 상세하게 다룬다. 먼저 양성평등의 이상이 진보적 유대교 및 기독교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 불교에서도 표출된 경위를 기술했다. 다음으로는 몇몇 유명인과 유명단체가 사회변화에 헌신하는 진보적 미국 불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고찰했다. 그리고 미국 불교 공동체 내에서 현재 진행되는 불교 내적 대화와 종교 간 대화를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말의 미국 불교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몇 가지 제안을 했다.

미국 불교를 종합적으로 다룬 고전적인 이 책의 한국어 번역판 출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을까?

첫째, 이 책은 미국 불교에 관한 학술자료로서 큰 가치가 있다. 미국 불교의 역사, 주요 전통, 주요 의제를 미국 종교사의 관점서 서술한 이 책은 한국어로 된 미국 불교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한국 불교학계와 독자들에게 이전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준다. 둘째, 이 책은 미국의 이민민족 불교에 대한 창의적 관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불교의 구성요소를 '유럽계 미국인 위주의 개종자 공동체', '60년대에 도미한 아시아 이민 공동체', '19세기 중엽의 중국계 및 일본계 이민 4~5세대 후예들'이라는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이 중 이민민족 불교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한다.

셋째, 이 책서 기술한 미국 불교의 현황은 한국 불교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 불교학의 흐름은 철학적, 형이상학적 교학에 경도된 경향이 있으며, 우리의 삶에 불교의 통찰을 적용하고자 하는 응용불교, 실용불교의 연구는 많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불교 전통이 한자리에 모인 미국사회에서 불교는 탈전통, 탈종교, 사회참여, 일상생활의 수행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국 불교가 열린 마음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지만 그에 부응하지 못하여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한국 불교는 미국 불교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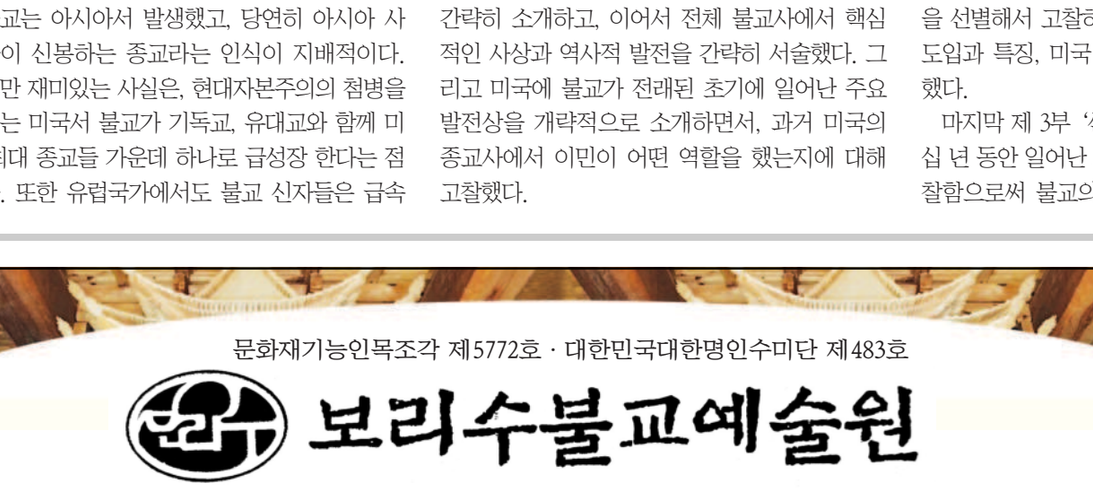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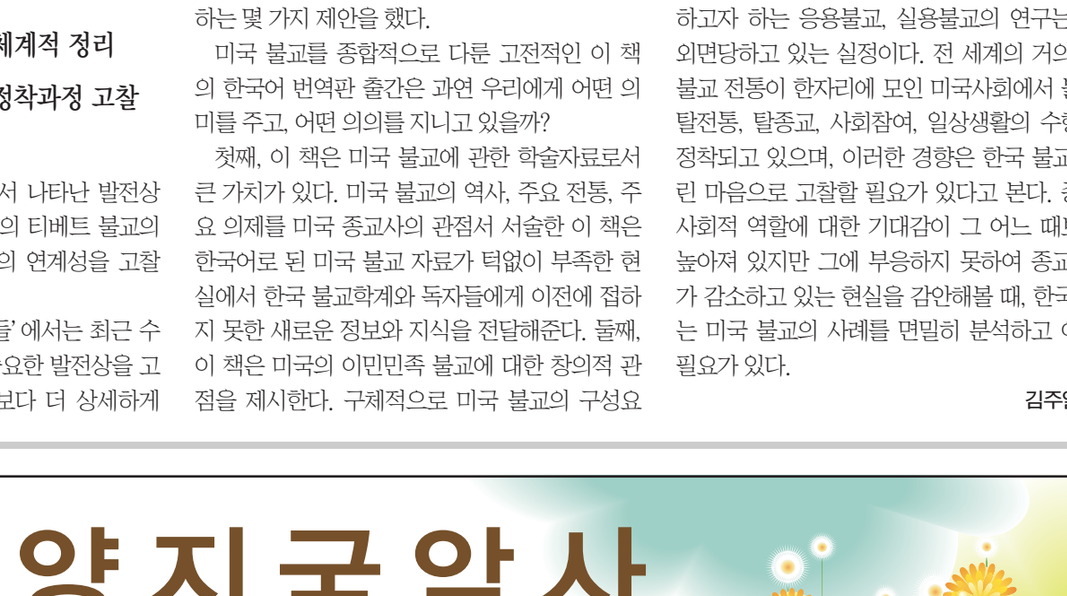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BTN불교라디오 친근+유쾌함으로 '재단장'

'송봉주의 음악풍경' 등 3개 신규 프로그램 론칭

포크 밴드 '자탄풍' 송봉주 DJ나서
절대 입담 소유자 개그맨 차승환도
'원영 스님 해피타임'도 기대 고조
7월 3일부터 개편 방송 'START'

BTN불교라디오 '울림'이 더욱 친근하고 흥미로워진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욱이 감성 포크 밴드 '자전거 탄 풍경'의 송봉주, 절대 입담의 소유자 개그맨 차승환 등이 새 프로그램의 DJ를 맡아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다.

BTN불교라디오 '울림'은 3개 신규 프로그램을 7월 3일부터 방송한다.

먼저, 그룹 '자전거 탄 풍경'의 멤버 송봉주가 진행하는 '송봉주의 음악풍경'이 눈에 띈다. 송봉주 씨는 매일 아침 바쁜 출근 시간, 매력 넘치는 목소리와 신나는 음악으로 청취자들의 활기찬 아침을 열어줄 예정이다. 또한 보너스 코너 '센스 있는 생활정보'도 함께 진행된다. 매주 월~금 오전 8~9시 방영.

매일을 행복으로 가꿔가고 싶다면 '원영 스님의 해피타임'에 주목하자.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의 저자 원영 스님은 이번 방송을 통해 인생경험과 지식들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첫방송에 앞서 원영 스님은 "인생의 시간을 흘려버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만나고, 사랑하고 시작하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청취자들에게 당부한다. 매주 월~금 오전 10시 10분~11시 방영.

또한 MBC 공채 개그맨 차승환 씨의 '유쾌한쇼'는 이름부터 전해지는 유쾌함으로 벌써부터 청취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풍자와 콩트, 개그 토크 전문방송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울림' 제작진은 "차승환 씨가 가진 특유의 센스 넘치는 입담과 유쾌함으로 오전 시간대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방송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12시 방영.

인기 프로그램인 '마음의 선율 혜민입니다'는 기존 오전 8시에서 10시로 방송 시간이 변경된다.

한편 BTN불교라디오 '울림'은 2015년 3월 1일 불교계 최초 '스마트 라디오'로 출발해 1년 후인 2016년 3월 1일 스마트폰 앱을 정식 출시했다. 울림 · 법문 · 불교음악 · 독경 총 4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울림 채널은 청취자들과 소통하며 실시간 참여를 이끄는 공감형 방송이다.

현재 BTN불교라디오 '울림'은 매월 2000~3000명, 총 6만 건의 앱 다운로드 수를 돌파했다.

울림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용앱을 통해 쉽고 빠른 청취가 가능하다. 울림 앱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02)3270-3464~7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BTN불교라디오 '울림' 주요 프로그램

07:00-08:00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
08:00-09:00	송봉주의 음악풍경*
09:00-10:00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10:00-10:10	마음의 선율 혜민입니다
10:10-11:00	원영스님의 해피타임*
11:00-12:00	차승환의 유쾌한쇼*
12:00-13:00	본격스님토크쇼 야자수
13:00-14:00	김효선의 향기로운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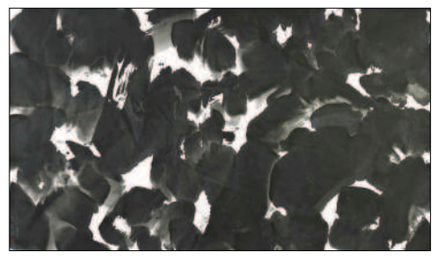
*는 신규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월~금 방영



BTN불교라디오 '울림'이 7월 3일부터 3개 신규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사진은 새롭게 DJ로 나선 (왼쪽부터) 송봉주 · 원영 스님 · 차승환.

물과 먹으로만 '山'을 그려내다

김대열 작가, 한벽원갤러리 초대전



비상비공(非相非空), 179×96cm, 화선지에 수묵, 2017

수묵선화 작가로 잘 알려진 김대열 동국대 교수가 저서 〈수묵언어〉 외 3권 출판기념회 및 초대 개인전을 갖는다.

김대열 작가는 지난 30여 년간 수묵화로 산(山)에 대한 해석을 표현하는데 매진해 왔다. 쓱쓱 큰 붓질로 화면을 휘젓듯, 어떤 주저함이나 걸림이 없는 간결한 화법이 김 작가의 특징이다. 오로지 물과 먹만을 활용해 화면을 가득 채우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김대열의 작품은 불교의 선종(禪宗)을 모티브로 삼는 것으로 알려진다. 절대적인 불타(佛陀)에 귀의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불성(佛性) 개발을 중시하는 선종의 성향에 따라 김 작가도 '정신의 본성을 통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품세계를 펼친다.

김윤섭 미술평론가는 "김대열의 수묵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공기의 흔적'을 들 수 있다. 특정한 형상에 연연하지 않고, 그 형상이 잠시 머물렀던 그림자의 흔적을 드러낸다"면서 "그의 거침없고 대범한 붓질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단숨에 싸안을 수 있는 바람의 휘장(揮帳)과 같다"고 평했다.

〈수묵언어〉 외 3권 출판기념회 겸
30여점 출품… 7월 18일까지 열려

우러전미술문화재단 한벽원갤러리 초대로 진행되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30여점의 작품이 출품된다. 아울러 30여년의 수묵작업을 정리한 〈수묵언어〉와 화문집 〈견산30년〉, 학술서 〈수묵화 출현과 선종〉 〈선종사상과 시각예술〉 총 4권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함께 연다. 전시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김대열(1952~) 작가는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한국화 전공을 졸업해 국립대만사범대학 대학원서 예술학 석사를 받았다. 또한 단국대 대학원 사학과에서 미술사를 전공해 문학박사 과정을 마쳤다. 지금까지 18차례의 개인전을 비롯해 300여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선종의 공안과 수묵화출현에 관한 연구〉 등 3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이며, 중국 남개대학 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02)732-3777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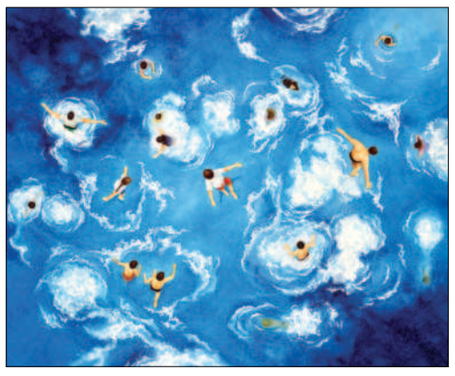
무형의 '물'에서 '자유'를 찾다

양세미 작가, 로터스갤러리 청년신인작가 기획전

2017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청년신인작가 공모에 선정된 양세미 작가의 전시가 오늘(7월 3일)부터 7월 29일까지 열린다.

양세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물'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물은 형태가 없는 무정형적 특성으로 많은 예술가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제공하는 소재로 여겨져 왔다. 양 작가는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물'의 이미지에 특별한 매력을 느껴 매개로 활용, 현대 사회인들과 상관성을 그렸다고 밝혔다.

특히 작품 중 '수영장시리즈'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물'을 통해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선사하고 싶다는 양 작가의 관심에서 출발했다. 양 작가는 "물이 흐르다가 웅덩이에 갇히면 잠시 머무르는데, 쉬었다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 속에서 갈망하는 자유의 모습을 물을 통해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양세미, 수영장시리즈, 130.3×162.2cm, 장지 위에 채색, 2017

양세미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2013년 전라남도미술대전 특선 및 대한민국미술대상전 우수상, 2014년 한국화대전 우수상, 2015년 광주광역시미술대전 특선 등 수상한 바 있다.

개막행사는 6일 오후 6시 30분 열린다.

박아름 기자

'빠르고 정확한' 시각예술계에 '흐리고 느린' 미학을 던지다

법련사 불일미술관 신진작가 단체전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 2017 신진작가 공모전의 3번째 전시, '흐리고 느린'이 7월 11~24일 1 · 2관에서 열린다. 단체전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 신진작가들은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한 한국화, 조각, 미디어 등의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흐리고 느린'은 빠르고 정확한 형태와 색감이 즐비한 한국시각예술계에서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전시다. 신진작가들의 작품으로만 구성돼 더욱 기대를 모은다.

김선행 · 김은정 · 김지혜 · 박신유 · 윤대원 · 이동하 · 이민수 · 이유빈 · 이재희 · 이지민 작가가 참여하며, 기획은 기획평론가 김최은영 교수가 맡았다.

불일미술관은 "유행을 버린 이들이 선택한 시각예술의 구현은 기본적 조형의 기호와 규칙인 '색과 선' 뿐"이라면서 "이들이 표현하는 표상적 기호들은 미술계로 진입하기엔 다분히 흐리고 조금은 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단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작가 중 이지민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30×80×45cm 비단에 채색 2017

박아름 기자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 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010-6332-6070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洗心이 저절로 되는 오래된 절길

〈세심〉

저 절로 가는 길
⑭ 진관사서 삼천사 가는 길

학인이 스승에게 물었다.

"저는 이제 갓 절에 들어온 참이니 스님께서는 뭔가 들어가는 길을 가리켜 주십시오."

그 말에 스승인 현사 스님은 되물었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학인이 들린다고 하자, 현사 스님은 말했다.

"그곳이 네가 들어갈 곳이다."

현사의 시냇물로 유명한 이 문답 속의 시냇물 소리는 감각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리는 소리, 투명하고 무취한 소리, 들으려 할수록 들으려는 의지가 끼어들어 들리지 않는 소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독경하는 〈반야심경〉에 의하면 '색이 아니라 무색의 경지에서 듣는 소리'로 감각이라는 허구를 버려야만 드넓은 정신세계를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사 스님이 제자에게 건넨 이야기는 절이 계곡에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능선에 올라앉은 절을 보기란 매우 드물다. 절이 계곡에 있으면 절골이라 불리는데 그 절골을 따라 물이 흐르면 이 물을 명당수라고 불렀다.

일주문을 통해 진관사(津寬寺)에 들어서니 역시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대개의 절이 그렇듯이 개울을 가로질러 다리가 있었다. 그 다리를 건너야 비로소 속세에서 벗어나고 피안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다리를 건널 때 극락으로 가는 기분인지 진관사로 가는 다리 이름이 극락교이다.

진관사에는 다리가 하나 더 있다. 그 이름은 세심교(洗心橋). 다리를 건너는 동안 발 아래 흐르는 물에 마음의 때를 씻어내란 의미다. 세심교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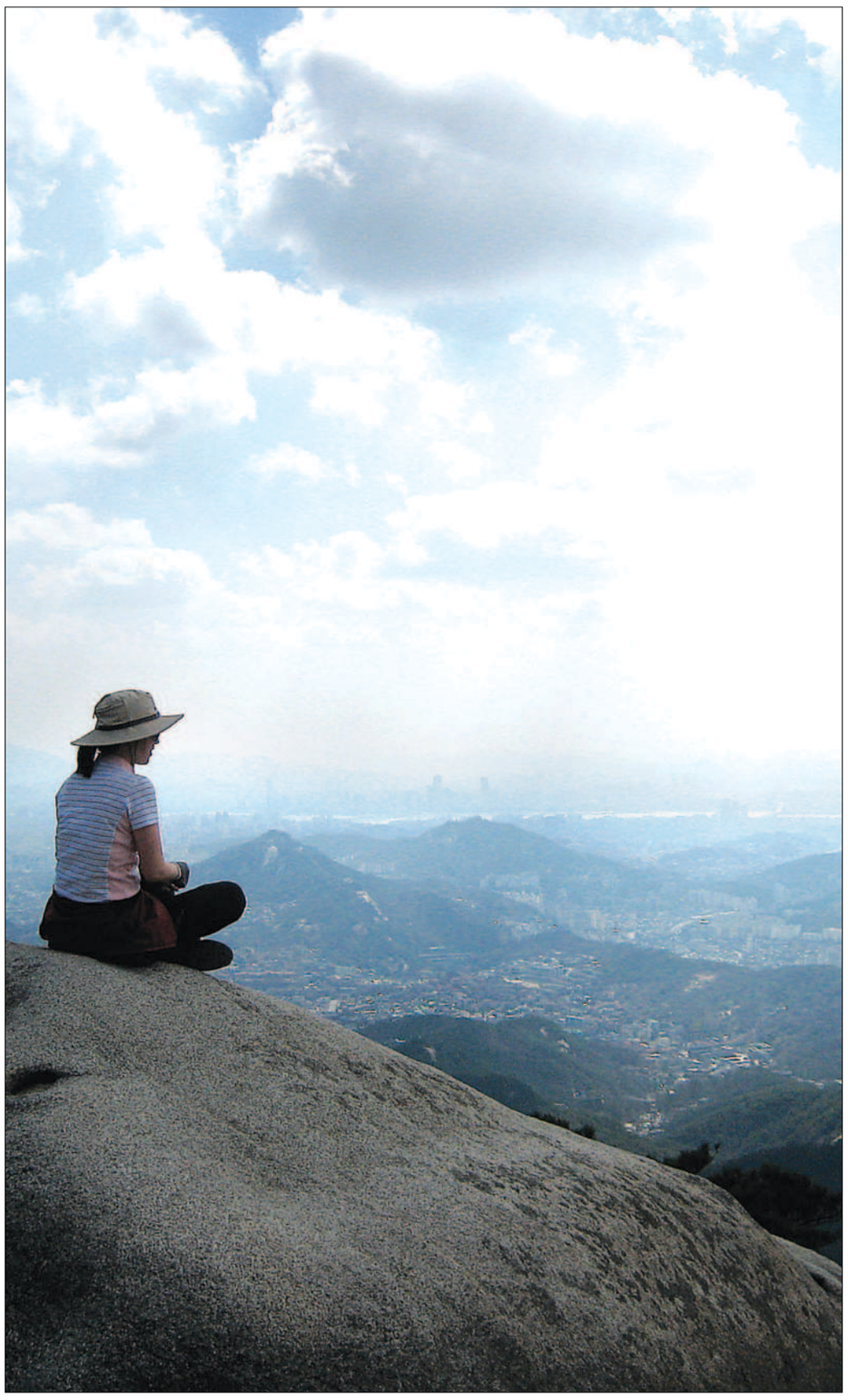
마주 오는 복면의 사내에게 길을 터주려 몸을 비켜서야 했다. 허리에 칼을 찬, 영락없는 자객의 모습이다. 그는 누구인가?

진관사의 전신은 신혈사(神穴寺)이다. 지금의 진관사가 있는 자리에서 서북쪽 어디쯤으로 추측되는 절이다. 신혈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권력다툼이 벌어지니 고려 목종 때 일이다. 목종의 어머니로 오랫동안 섭정해 온 천추태후(千秋太后)가 자객을 보내 유일한 왕통인 왕순을 암살하려 했다. 왕순은, 천추태후의 친동생인 헌정왕후가 숙부인 왕욱과 사통해 낳은 자식으로, 천추태후의 조카뻘이기도 했다.

천추태후는 한 시대를 풍미했으나 문제는 목종이 후사를 두지 못한 데서 생겼다. 목종이 죽는다면 조카뻘인 왕순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할 판이었다.

천추태후는 이 상황에서 자신과 김치양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목종의 뒤에 세우려 했다. 그러자니 왕순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어차피 자기 아들이나 조카나 욕계의 사생아 아닌가.

기록을 들추면 왕순의 어린 시절은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달아난 시기로 보인다. 사미가 되어 여러 절을 전전한 것부터가 그렇다.



북한산 사모바위에 앉아서 서울을 내려다보는 수행도반의 모습. 이 능선에서는 은평구 일대는 물론 서해바다까지도 볼 수 있다.



진관사 입구에 있는 극락교.



삼천사 마애불 앞서 기도하는 불자.

욕심을 씻어내라는 세심교
진관사 수륙재 봉행 근원
능선엔 원효와 의상 설화가
삼천사가 진관동 사찰 옛이름



진관사로 쏟아지는 계곡물.

• 걷는길 : 진관사 – 비봉 – 사모바위 – 삼천사 • 거리와 시간 : 7km 정도, 3시간 30분 예상(휴식 시간 포함)

신혈사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왕순을 보호해준 이는 진관이라는 스님이었다. 진관 스님이 불단 아래 파놓은 굴에 왕순을 숨겨 자객의 칼을 피할 수 있었다. 목숨을 담보하고 왕순을 구해준 진관 스님은 추측건대 천추태후와 대척되는 세력의 한 인물이었으리라.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폐위되자 왕순은 고려의 8대 왕 현종으로 등극한다. 현종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굴을 신혈, 신의 도움을 입은 굴이라 부르고, 절 이름도 신혈사로 부르도록 했다. 은인인 진관 스님을 위해서도 반듯한 새 절을 지어주었으니 그 이름이 진관사이다.

그 사이, 천추태후와 김치양을 옹호한 무수한 세력이 제거 당했다. 현종의 편에서는 해피앤딩이지만 천추태후의 편에서는 지극한 불행이 아닐 수 없었다. 불행을 낳은 원인은 당연히 욕계의 주인공인 욕심이었다.

진관사 세심교가 말하려는 것도 욕심을 씻어내라는 교훈이다. 그러나 진관사 세심교를 건너면 쉬이 욕심에서 벗어나리라 생각하는 중생이 얼마나 될까. 따지고 보면 산 자나 죽은 자 모두 욕계의 희생자이다. 일찍이 그걸 알기에 이성계나 이방원 같은 권력자들이 당신들로 인해 물이나 뭍에서 희생당한 원혼을 달래주려 진관사에서 수륙재(水陸齋)를 지냈는지도 모른다. 자연스럽게 진관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륙도량이 됐다.

아무리 가물어도 진관사 계곡물이 멈춘 적은 없다. 이걸 알기에 나는 여느 등산객처럼 응봉능선으로 향하는 산길에 오르지 않고 진관사 경내를 통과해 계곡을 깊숙이 따라 들어갔다. 물소리가 햇빛을 반사하는 나뭇잎들처럼 바글거린다. 물가의 나무들이 내주는 그늘을 따라 계곡길을 걸으니 입산의 느낌은 더욱 강해진다. 마음이 차분하고 아득해지는 것이 능선을 걸을 때와는 다른 혜택이다. 그렇게 그늘을 밟아 가다가 시냇물을 따라가던 길이 끊긴 데서야 응봉능선에 올랐다.

응봉능선은 은평구로 가지를 뻗은 북한산 산줄기이다. 이 능선에 오르면 은평구 일대는 물론 아주 맑은 날은 서해바다까지 트인다. 옆을 흘끗 보면 의상능선과 원효능선이 나란히 산줄기를 내리뻗었다. 그 모습에서 당나라로 가기로 합의하고 경주를 나서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을 본다.

응봉능선은 사모바위가 있는 쉼터에 닿는다. 언젠가 함께 길을 걷던 도반이 사모바위를 인터체인지임을 표시하는 거대한 이정표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다. 북한산 능선이 이곳에서 모이거나 갈라지고, 등산객들도 길을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데다 생김새까지 네모지니 썩 어울리는 표현이다.

사모바위에서 삼천사(三千寺)로 향하는 하산길을 찾다가 다시 응봉능선을 탔다. 응봉능선을 경계로 진관사와 삼천사는 각자 다른 골짜기에 있다. 3000명의 스님이 수행할 정도로 사세가 컸다는 삼천사다. 그러나 그 숫자에 놀랄 필요는 없다. 불교에서 삼천이란 숫자는 많거나 크다는 뜻으로 통용될 뿐이다.

삼천사는 신라의 원효 스님이 창건한 절이라 하고, 원효 스님과 진관 스님이 함께 창건했다고도 전해오는 말이 있어 흔란스럽다. 진관 스님은 고려 현종의 은인 아니었나? 기이하게도 그 진관 스님이 한국전쟁이 끝나자 진관사를 재건한 인물로 삼천사 사적기에 다시 등장한다. 그렇다면 진관 스님은 시공을 초월한 인물이었나? 추측이지만 왕을 구한 은공으로 진관사를 하사받은 진관 스님이 가까운 삼천사를 중창했을지도 모른다. 부처나 아라한이 되지 못한 중생은 끊임없이 육도윤회하니, 한국전쟁 후 삼천사를 중건한 진관 스님이 전대의 진관 스님과 동명이인인 것을 우연이라고만 여길 순 없다.

삼천사의 옛 이름은 삼천사(三川寺)로, 본래 의상능선 자락인 증취봉에서 삼천리 계곡 사이의 광범위한 지역에 있었다가 화재와 산사태로 사라졌다. 그 자리엔 지금 무너진 석축과 깨진 비석만 남아있지만, 한때는 진관동 일대가 옛 삼천사의 사전(寺田)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금의 삼천사는 보물인 마애석가여래입상이 있는 자리로 옮겨온 것으로, 그 역사가 불과 100여 년이다.



계곡물이 차고 넘치는 여름날, 진관사로 들어가서 삼천사로 나오는 이 절길을 오래된 이야기와 함께 걸어보라. 마음을 깨끗이 씻어 버리는 것도 더위를 물리치는 또 다른 방법이니.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힘내세요

힘내세요. 다 괜찮을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모든 고통은 한때입니다.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느낌은 완전히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본성은 순수하고 지혜롭고 평화롭습니다.

본성을 오염할 수도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도연 스님의 '青春사이다'

① 행복을 위한 바른 마음가짐

숨 쉬는 것처럼 매 순간 행복도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랑, 명예, 돈, 관계, 직장, 성공, 가족, 취미 등 떠오르는 것들은 참 많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다면 바로 '행복' 일 것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랑도 하고 명예도 추구하며 돈을 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추구한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거나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 모두는 '행복' 을 원한다. 행복만큼 소중한 것도 없으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은 고사하고 '불행하지 않으니 다행' 이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과연 뜬구름 잡는 일이자 부질없는 망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보다 덜 불행하고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나는 우리가 바로 지금 행복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한 방법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내가 찾은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한다.

행복은 저 먼 곳에 있지도 않고, 저 먼 미래에 있지도 않다.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늘 호흡 하고 심장이 뛰듯 매 순간 행복은 존재한다. 다만,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까? 행복에 무관심한 태도와 마음가짐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마음가짐' 을 통해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복하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3가지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결심' 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행복해질 것' 이라는 결심 말이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는 믿음. 마지막으로 지금 행복에 대해 감사하는 회향의 마음이 그것이다.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자면 행복할 것이라는 '결심' 은 시동을 키고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하는 순간이 된다. 시동을 키지 않고 엑셀을 밟지 않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듯이 '행복하겠다' 는 의지를 내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내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두어야 그것을 위한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만일 '행복하겠다' 는 의지가 생기지 않고 머뭇거리게 된다면 최소한의 용기가 필요하다.

위대한 결심에는 용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행복은 가장 쉬우면서도 제일 어렵다. 행복을 위한 과정이 불편할 수도 있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행복할 수 없고 변화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변화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레 겁을 먹고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두는 순간 다가오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저항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 **우리 곁에 늘 '행복' 있지만**
>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할 뿐**
> **원인은 무관심한 태도 때문**
> **가장 쉬운 '마음가짐' 통해**
> **'지금 여기' 행복할 수 있어**

나의 행복은 어느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와 기분을 스스로 느끼고 감당하게 된다. 좋든 싫든 자기 자신을 떠난 행복이란 없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현재 내가 해야 하는 의무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나의 행복'을 놓치고 산다. '행복'을 선택하면 다른 것들을 잃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기를 꺼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질 용기'를 내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한다.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저항이 밀려와도 '행복하겠다' 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러한 '용기' 는 행복을 위한 '결심'을 이끈다.

'행복을 위한 결심'이 바로 섰다면 '행복하다는 믿음' 은 그것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금 이 순간에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믿음' 이 필요하다. 이 믿음은 운전자가 행복을 위한 엑셀을 밟으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상태를 유지시켜준다. 행복은 매 순간 순간의 행복감이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느껴지는 행복감을 인정해 주고 잘 받아주어야 한다. 행복은 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여도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된다.

반면 작은 성취와 좋은 일에도 만족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행복한 순간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작다는 이유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은 행복감을 사라지게 한다. 이 작은 느낌과 상태도 행복이라는 '믿음' 을 갖고 '있는 그대로' 를 받아들여야 한다. 행복은 통장에 원금과 이자가 불어나듯 꾸준히 축적될 것이다. 또한,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믿음' 은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주변의 저항과 불편한 시선 그리고 내 마음의 불안감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극복하는 힘이 되어준다.

행복을 위한 마음가짐, '결심'과 '믿음' 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를 더 꼽는다면 '회향' 의 마음이다. 운전을 하면서 감속을 위한 브레이크를 적절히 밟아주지 않으면 이내 위태롭게 되고 사고가 날 것이다. 이처럼 행복에는 시동과 가속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감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 나서가 아니다. 삼라만상의 우주자연과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마음과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행복한 만큼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공덕을 주변으로 회향할 때 나의 행복은 여여하게 흐르며, 광대무변하게 넓어진다. 내가 잘나서 온 것이라는 생각은 아만이자 어리석음이다. 이것은 나의 소중하고 행복한 삶의 드라이빙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된다. 지금의 이 행복은 내가 잘 나서가 아니라 고마운 존재들로 인해 얻은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겠다는 '회향' 의 마음으로 살아가야한다.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 15만원
「중」 110 × 80 × 160㎜ 20만원
「대」 140 × 95 × 200㎜ 25만원

■ 재질 : 청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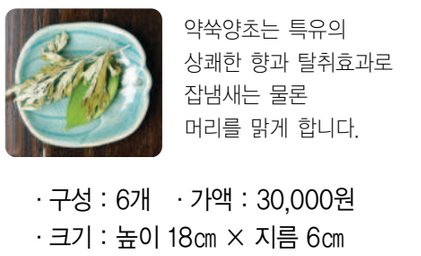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 × 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 × 120(h) × 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 × 140(h) × 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 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